

기획연구 2007-06

**충청남도내 문화·예술 공간의  
창의적·효과적 활용방안**  
- 천안, 당진, 청양을 중심으로 -

오윤균 · 김승호 · 서석돌 · 권영현



# 발 간 사

지금껏 세계의 강국이라 함은 경제 또는 군사 대국을 일컬었지만, 미래의 세계는 문화대국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듯 ‘문화’는 세계를 이끌어갈 중심 코드이고,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문화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랜 전통과 함께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 된 유럽에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조그마한 시골에서도 국제적인 수준의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적인 소통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이러한 문화강국의 실례들이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과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한 우리에게 도시와 지역 간의 차별 없는 문화 예술적 향유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지방의 문화예술복합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충청남도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하겠다.

충청남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효과적인 활용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충청남도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내에 있는 문화공간의 운영 실태분석을 통해 그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므로,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과 활용,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살려낸 독창적인 운영프로그램개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 걸쳐 충청남도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행정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의미도 있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초연구자료로 활용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충남지역의 문화·

예술프로그램들이 창작되어지고 실행되어지기를 바라며, 충청남도의 발전과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7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 용 응

# 목 차

## I.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

## II. 문화 · 예술 · 공간 · 참여 개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1. 문화란? ..... 4
- 2. 예술이란? ..... 8
- 3. 공간이란? ..... 12
- 4. 참여란? ..... 18
- 5. 유럽의 문화예술정책 현황 ..... 22

## III. 문화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1. 충청남도내 문화공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 60
- 2. 충청남도내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63
- 3. 지역 문화예술 발전 전략을 위한 제언 ..... 69

## IV. 결론

- 1. 문화 · 예술 · 공간의 창의적 활용에 필요한 전제조건 ..... 93

참고문헌 .....	98
------------	----

## 부록

예술개념의 역사적인 변천사 .....	101
----------------------	-----

## 충청남도내 문화공간의 환경 및 현황

1. 전국내 문화공간의 실태 .....	106
2. 충청남도내 문화예술 공간의 실태 .....	109
3.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	111
4. 각 지역의 주요 문화 축제와 공간 활용 .....	149

# 제1장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간의 활용에 관한 연구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에 들어와 경제성장의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 경제적인 힘을 얻기 시작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문화예술은 경제적인 부의 축적과 함께 국제무대에 자리잡기 시작했고 2002년 월드컵과 함께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先경제 後문화라는 통상적인 견해는 문화분야로의 투자를 뒤처지게 하는 요인이다. 유구한 전통속에 문화의식이 일반화 된 유럽에서는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시골 곳곳에서도 국제수준의 문화행사 개최가 일상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중앙과 외곽의 균형적인 소통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성화 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강국의 실례들이 국민소득 2만불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고, 국민소득 2만 불에 달하는 우리에게 도시와 지역 간의 차별 없는 문화예술적 향유가 마련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해진다.

문화강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지 문화와 예술은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국민과 지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데 중심이 되고 있다. “서양의 문명은 그리스에서 출발한다”라는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를 강조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듯이 문화와 예술은 살아있는 것으로 정체성과 동일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서구인들에게 문화와 예술은 뿌리가 하나라는 의식을 고양해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수성이 살아나는 역사적인 연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스의 독보적인 문화적 업적,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문예의 화려한 부활, 낭만주의시대에 들어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각기 고유한 문화예술의 족적을 남기었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대륙 미국이 여기에 동참하여 문화강국으로 탈바꿈하기에 이르기도 하였다.

문화와 예술은 역사적인 동일체를 형성하는 기제가 되지만, 문화와 예술의 이해와 실용 그리고 실천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의 유럽과 독일의 유럽을 들 수 있다. 유럽에 속하고 이들 국가들은 오랜 전통과 뿌

리를 문화와 예술에서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성을 담아내어 상호간 차이를 가지고도 있다. 대도시와 지방간이 상호간 문화예술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하지만, 프랑스의 파리와 독일의 베를린이 각기 다르고, 프랑스의 지역에 속하는 아미앵과 독일의 지방에 속하는 프라이부르크는 각기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실천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과 역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양 국가의 문화예술공간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인 이윤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들의 연극·무용·음악·미술·문학적인 프로그램과 행사는 지역의 얼굴을 국제적인 무대에 올리는 계기를 마련한다. 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수준의 미술전시행사인 카셀도큐멘타와 격년으로 개최되는 베니스 비엔날레, 10년마다 개최되는 문스터조각프로젝트, 매년 열리는 파리의 피악 (아트 페어)과 베를린 아트베를린 (아트 페어) 등의 도시는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문화예술인들이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이렇듯 행사를 개최하는 도시는 현대미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유럽의 소도시들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가 원활하게 발달된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프랑스와 독일에서 실행되고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의 활용을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문들은 현재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에 존재하고 있는 문화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출발점이 있다고 하겠다.

충청남도내의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연구는 21세기 글로벌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리고 이 과제는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정책, 지역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프로그램, 서울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내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이러한 시민융합형 문화예술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충청남도의 정체성 확립과 행정중심에서 문화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전제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주제: 충청남도내의 문화·예술 공간의 창의적·효과적 활용방안>에서는 충청남도 천안과 청양 그리고 당진의 문화공간의 활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도시와 문화도시가 하나로 뭉치기 위한 노력은 서울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문화로 담아내고 지역민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기획자와 운영자에 따라 다르지만,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충청남도내 문화공간의 활용의 전문성은 전문 인력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에 소재한 문화예술공간은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유럽의 대도시와 소도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구체화 하고자 한다. 충청남도 16개 각 시·군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문화센터, 복지 센터, 문화의 집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공간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매우 빈약하거나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듯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제한되어 있는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문화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본 연구진들은 시선을 집중하게 되었다.

문화예술의 범위는 무한정이다. 왜냐하면 예술과 비예술 그리고 문화와 비문화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시점과 문화선진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각기 다르듯이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도 각기 다르게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특성을 문화로 담아내는 역할을 제시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는 문화공간의 건설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존재하는 문화기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모으게 한다.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하드웨어는 갖추어져 있거나 소프트웨어는 없거나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본 연구진들은 천안시와 당진군과 청양군을 분석의 중심에 두었다. 왜냐하면 천안시와 당진과 청양군이 충청남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이 존재는 하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전무하고, 또한 시민과의 유대관계가 프로그램으로 묶여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서울에 인접한 천안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이 문화문맥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천안시와 당진군 그리고 청양군에 소재한 문화예술회관의 현황과 지역 주민들과 더 융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문화 · 예술 · 공간 · 참여 개념: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 1. 문화란?

문화는 인간의 육체나 정신을 돌보는 것과 함께 농업에서 유래한 개념으로서, 타일러는 인식의 집합, 믿음의 표상, 예술, 도덕, 규칙, 관습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이 취득한 모든 능력과 풍습을 문화에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that complex whole which includes knowledge, belief, art, law, morals, custom, and any other capabilities and habits acquired by man as a member of society"). 서양에서 문화는 전통적으로 자연과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문화개념이란 문화가 발전한 제한적인 것을 의미한다. 일상에서의 문화개념과 교육적인 문화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기술과 문명개념의 의도에 따라 문화개념의 경계가 나누어진 다. 미국에서는 문화와 문명이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듯이 문화개념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이해된다.

문화라는 단어는 라틴어에 근원을 둔다. 라틴어 *Cultura*는 농업, 즉 땅을 일구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문화는 이렇게 자연에 반하는 단어로 19세기에 이르기 까지 사용되었다. 오늘날 이러한 고전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오히려 예술에서 그 적용의 범위가 찾아진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에 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향으로 전개된다. 1. 언어의 발전(언어문화), 2. 기구의 사용, 3. 불의 사용, 4. 규칙과 공동생활의 형태와 규칙의 발전(종교, 윤리, 의학, 법등) 등이 그것인데, 이러한 네 가지의 방향은 문화개념의 발전단계를 나타낸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8,19세기의 문화개념은 자연의 반대인 문명과 동일시되었다. 이렇듯 인간은 장소에 머물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원시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 시기에 문화는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는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19세기에 들어와 인류학자들이 문화개념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화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들은 문화개념을 다양한 사회에 적용하고

---

1) 문화 *cultura*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동사형으로는 *colere, colo, colui, cultus*가 있다. 모두 “다듬다” 혹은 “농사를 짓다”를 뜻한다.

자 하였고, 문화가 인간의 본성에 부흥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화는 인간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고, 다양한 시도를 체계화하고, 그 결과물을 문자와 언어로 전달하게 된다. 결과로 서로 떨어져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의 요소들이 오늘날 한 그룹에서 다른 그룹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방법과 이론적으로 문화라는 단어의 정의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인류학자들은 문화를 물질적인 문화와 상징적인 문화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차이는 인간의 행동을 반영하는 것만 아니라 연구의 방법론을 통해 두 가지의 범위를 묘사하고 연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고학자들은 물질적인 문화에 집중하고 문화인류학자들은 상징적인 문화에 치중한다. 양자 모두는 이 두 개의 범위가 상호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고자 한다. 그 외에 문화개념은 사물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생산되며, 어떻게 인간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인류학자들은 사회와의 관계와 행동방식들, 일상적인 삶의 사물이 포함된 문화를 이해하기도 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몇몇의 인류학자들은 문화개념을 근본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한다. 문화는 몰락과 변화의 시기에 하나의 유행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진실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수요를 지니고 있다고도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주의는 이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서양에서의 문화개념은 사유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문과 예술의 발전으로 문화국민이 형성되듯이) 지적욕구를 넘어선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일상에서 문화는 비문화와 대조적인 개념으로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문화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야만인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권력문화개념(Dominanzkultur)로 이해된다. 1995년 브르짓 롬멜스파허(Birgit Rommelspacher)가 발전시킨 이 개념은 기존 문화개념의 구조적인 취약점을 대변한다. 그에 따르면 민족우월주의에 따른 경계의 형태는 본질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의 형태로서 설 명되지만, 외부문화 혹은 혁명으로 인한 사회 불안을 수용하질 못한다. 따라서 권력문화로 인 하여 타자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수용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스 요나스 (Hans Jonas-1984)는 이러한 문화적 대결의 방식으로 알렌산더신드롬을 언급한다. 그가 말하는 새로운 지역과 알려지지 않은 지역의 경계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있어 지배하고 억압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새로운 것들을 배척하고 자기의 권력 아래에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문화개념을 이해하는 기준과 범위 그리고 적용은 역사속에 자리하고 있다. 역사와 지역은 문화와 비문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 1) 프랑스의 문화 개념:

문화 혹은 문명은 “지식·신앙·예술·법률·풍습 그 외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람이 습득한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잡한 전체이다”라고 프랑스의 E.테일러는 말하였다. 사전적 의미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문화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용어를 정의한다는 것은 각 사회의 다양성만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문화와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류의 일상적이거나 역사적인 모든 것이 문화에 속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축소하여 정의한다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다. 이렇듯 각 사회의 다양성과 지역성 등을 고려하면 문화를 정의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어려운 일이다. 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하는 의구심은 프랑스를 문화대국으로 이끈 장본인이다. 문화란 한 사회의 양식·습관·언어 등과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예술품등 한 사회·국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것들의 집합 현상이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산은 문화로 대변되는 것이다.

문화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에 속한다. 그렇다면 프랑스 인들에게 문화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들에게 문화의 의미는 곧 프랑스인의 정체성이다. 특히 문화·역사·예술적·과학적 가치를 지닌 동산·부동산을 포함하여 예술적·지적 가치를 지닌 인간의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모든 것을 문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렇듯 프랑스인들은 자국에 4만 여개에 달하는 문화 유적지를 발굴 및 소유하고 있으며, 에펠탑, 루브르,蓬피두 국립문화예술센터 등은 각각 연인원 6백만여 명이 찾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문화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화유적의 가치와 전시조건, 보존 상태 등은 문화재를 관리하는 정부의 의지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듯 문화를 국가 경쟁력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프랑스인들의 남다른 문화 사랑과 인식에 있다. 문화 대통령이라고도 일컫는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문화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문화에 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하였다.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의 문화 계획을 수립하여 수천억 또는 2~3조원이 들어간 국립도서관 등 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프랑수아 미테랑 국립도서관과 루브르 대개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 정부가 행하고 있는 정책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그들이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훤히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문화의 기능은 각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기도 하며 사회의 구성원을 교육하는 기능

을 수반하기도 한다. 개인이나 사회는 문화적 행위로 인하여 문화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그 공동문화의 가치로 인하여 타인과 문화의 공유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문화를 창출(다양한 형태의 창작활동으로: 회화, 조각, 공연, 영화, 무용, 문학 등)하고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개인·사회·국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의 기능은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문화정책이란 이러한 문화의 기능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류의 존엄성을 높이는데 있다.

## 2) 독일의 문화개념

유럽공동체 형성의 중심에 서있는 독일은 문화개념의 정의를 유럽 권에서 찾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문화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학자들은 문화 개념의 의미를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대부분 인종과 인류학에서 사용한다. 인간의 사회는 자기정의와 전통의 규칙에 따른다. 이러한 규칙들은 독특한 방법과 방식으로 후손에 전달된다. 문화는 따라서 한 사회의 행동강령이나 혹은 상징적 내용(종교, 미술, 지식)을 말한다. 이상적 문화는 종종 물질적인 문화, 즉 물질로 충만한 사회와 구분된다. 문화인류학이란 사회의 시스템을 또한 사회의 조직과 구조를 뜻한다.

인류학적 문화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혁명적 문화개념, 확산된 문화개념, 기능적 문화개념, 사회적인 문화개념, 구조적-기능적 문화개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문화개념의 변화는 1960년대 까지 자연과학으로써 인류학으로 이해되었고, 이후부터 해석학적인 이해가 첨가되기 시작한다. 문화개념들은 이야기로서 구성과 혁명이 포함된다. 대중문화, 인터넷문화, 인용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개념은 역동적이다.

윌리엄 제임스 두란은 그의 저서<인류에의 문화사>에서 선사시대의 문화를 다음과 같은 대중적인 범위에서 정의를 내린다. 그는 문화가 사회적인 규정으로 창조적 행위들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네 가지의 요소를 첨가하면 경제적인 수입, 정치적인 조직, 윤리적인 전통, 미술과 학문을 하려는 의지가 바로 그것이다. 그는 문화는 '카오스와 불안이 종식 되면서 시작된다. 호기심과 발명의 정신은 자유로운데, 만일 불안이 사라지고 인간이 자연적인 욕망에서 삶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에 알버트 슈바이처에 따르면 문화는 진보, 즉 개인과 단체의 물질과 정신의 진보이다. 여기서 진보는 우선 개인이나 단체에게 삶의 투쟁이다. 문화의 목적은 또한 그에 따르면 개인

의 관습과 정신의 완성에 있다. 삶을 위한 전투는 이중적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연과 대립하고 타인에게 적대감을 갖는다. 현존을 위한 전투는 자연에 대한 이성의 승리와 인간들의 추잡한 성격의 승리가 확산함으로써 도달하게 된다. 이렇듯 문화는 그의 본질에 따르면 이중적이다. 자연을 지배하는 이성으로 실현되고 인간의 성향을 지배하는 이성에서 실현된다.<sup>2)</sup>

원래 문화는 미술과 종교 그리고 학문이 합해진 것으로 좁게는 언어와 윤리 그리고 사회, 종교, 미술, 경제, 학문, 정의의 기능의 범위를 지칭한다. 이렇듯 문화는 다양한 범위들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인정된 의미시스템 혹은 상호간 분리된 행동을 정의한다.

사회학적으로 문화는 전체를 포함하는 지식을 말한다. 즉 사회의 구성원들의 의식에 자리한 일반적인 행동방식과 가치관, 사회적인 의미와 세계관을 뜻한다. 이것은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몫이자 발전의 대상이 된다. 인류학자와 기호학자인 게르트 호프스테데Geert Hofstede와 에드워드 헬Edward T. Hall은 문화모델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문화적인 사유모델을 특징화 하고 체계화 하여 이론적인 틀을 마련한다. 문화의 기능적인 특징에 대한 이들의 발언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인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을 대표하는 문화가인 괴테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다. 그에 따르면 의상, 음식, 주류의 습관과 역사나 철학 혹은 예술과 학문, 어린아이의 놀이, 환경과 자연형태, 경제, 경제와 문학, 정치와 개인이 문화영역에 속한다. 문화개념의 다양한 정의들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판단과 이해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sup>3)</sup>

## 2. 예술이란?

예술개념은 문화개념과 마찬가지로 시간과 환경, 문화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 현재는 예술가들과 이론가, 역사가, 철학자, 사회학자들의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할 정도로 예술의 범위는 넓다 예술은 문화의 생산물이자 인간이 생산한 것으로 창의적인 과정의 결과임에 틀림없다. 최초에는 종교적인 동기로 이해되었고, 후에는 이것이 예술작품이 되었고 현대에

2) Albert Schweitzer, Kultur und Ethik, ISBN 3-406-39250-4, p. 35 참조.

3) 1952년 Alfred Kroeber와 Clyde Kluckhohn은 200개가 넘는 정의를 그들의 서적(Culture: A Critical Review of Concepts and Definitions)에 수록하기도 하였다. 북미에서는 문화 인류학이 종종 문화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종족과 인류학이 비교되기도 한다.

들어 와서는 진행과정이 결과자체로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문화와 문화적인 행위는 예술을 생성하게 한다. 예술개념은 역사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데, 계몽주의 시대부터 예술은 “미적 예술(Schönen Künste)”의 표현 형태로 이해된다. 조형예술에는 회화, 그래픽, 조각, 건축이 포함되고, 19세기에 들어와 공예와 응용미술이 포함되었으며 후에는 연극, 춤, 영화, 음악, 문학도 표현예술에 속하게 된다. 예술에서 표현기법과 기술은 현대예술의 시작과 사진의 출현과 함께 확장된다. 현재는 새로운 매체로 인하여 표현이 다양화되기도 하는데 이는 기술과 문화의 상호간 결합의 소산이다. 따라서 고전주의적인 장르의 구분은 더 이상 효과를 갖지 못하기도 한다.

독일어권에서 예술은 능력에 속하는 것으로,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인식, 지식, 교육, 마이스터 등이 이에 속한다. 예술이라는 단어가 능력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프랑스 언어권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유럽언어는 대부분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의미가 라틴어의 ars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특히 근대에 들어와 교육과 지식의 의미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복수 형태는 장르, 독자적인 예술, 미적 예술을 포함하게 된다.

우리가 미술사 서적을 들추어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서기 2만 5천년 전에 제작되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렇듯 예술개념은 예술작품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작품의 기능에 따라 그 개념은 구분된다. 즉 비너스 조각상이 제식행사에 사용되었고 후에는 종교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회화와 조각 그리고 음악과 춤과 시(poet)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돌로 지어지는 건축은 서기 1만 1천년전에 지어진 원형제식장이 기원이 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예술들은 제식과 예식의 물질적인 조직에서 출발한다. 고대에는 예술이 의식과 사유를 위한 축적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술은 표현 (음악과 칠하기)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선사시대의 음악, 형상 조각, 동굴벽화는 물론 제식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오늘날 자연인들에게는 과거의 제식기능이 예술가들의 표현 형태에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장식을 하려는 욕구에서 그 형태가 구체화 된다. 사회적으로 예술가와 장식적인 것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에 따른 논란이 있지만, 근대예술론에서 말하고 있듯이 과거에는 비유용성이 남아 있고, 이것이 선사시대 이전에는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예술개념은 이렇듯 문화적 형태의 뿌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지역과 역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물질적인 형태 그리고 그 형태의 기능에서 예술개념이 구체화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술개념은 시기별 각기 다르게 번역 및 정의되어 왔다는 것 또한 이의가 없을 것이다.<sup>4)</sup>

## 1) 프랑스에서 예술개념

프랑스인의 예술에 대한 사랑은 남다르다. 하버트 리드<sup>5)</sup>의 <예술의 뿌리>를 살펴보면 그 다양한 예술적 근안에 대해 알 수 있는데, 프랑스 예술의 뿌리 또한 프랑스 문화의 커다란 축을 형성하고 있다. 헤겔은 <미학강의>에서 “예술적 창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술적 관심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생명 에너지이다. 그 에너지 속에서는 보편적인 것이 법칙과 격언으로 나타나지 않고, 영혼과 감정이 결합되어 작동한다”라고 하였다.<sup>6)</sup> 예술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혼과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 예술이란 개념에는 미적 아름다움을 포함하여 예술작품에 내재된 정신적 영역까지를 포괄한다. 프랑스에서 예술영역을 보자르(Beaux arts)라고 일컫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이다.<sup>7)</sup> 프랑스 인들은 그런 정신적 영역이 부여된 예술작품에 오랜 관심을 가졌고, 문화의 한 부분인 예술 영역은 현재 프랑스의 문화정책에도 주요한 일부분이 되고 있다. 특히 예술가들의 지위향상과 그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주요 골자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은 고급예술과 대중예술로 분류되었는데, 이것은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분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두 개념 간의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줄이려는 노력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는 19세기와 그 이후에 반하여 그 간극이 많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찌 보면 현재의 예술은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이라

---

4) 예술개념의 역사적인 변천사: 부록 참고 할 것.

5) 하버트 리드, 역자 김기주, 예술의 뿌리, 현대미학사, 1998, p.254

6) Hegel, Vorlesungen über die Aethetik

7) 오토오 야스오의 저서에 보면 예술이라는 유형개념의 성립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다. “샤를 배토(Charles Batteux, 1713~1780)는 그 저작<동일한 원리로 환원되는 예술, 1746>에서 세종류의 기술을 구별한다. 첫째는 인간의 욕구를 대상으로 하는 기계적 기술이다. 둘째는 쾌락을 대상으로 하는 미적 기술(예술, les beaux arts)로써 음악, 시, 회화, 조각, 행위예술 또는 무용이 있다. 셋째는 이 두 종류의 중간에 위치하는 예술로서 웅변술과 건축을 들었다. (...) 이 개념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schöne Kunste’로 번역되었고, 영국에서는 ‘fine arts’로 번역되어 18세기 후반 서구 사회에 뿌리내렸다.” 이토오 야스오외, 이흥재 역,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p.36 참조



기 보다는 그 의미가 다소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순수예술과 상업예술로 분류되고 있다.

위의 현상과 연관 지어 볼 때 우리는 문화예술이라는 복합어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문화공간에 ‘문화예술회관’이란 명칭이 흔히 사용되는 등 ‘문화예술’이란 복합단어가 흔히 쓰이고 있다. 여기서 왜 문화와 예술의 복합어인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그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시 된다. 문화는 예술을 포함한 인류의 모든 정신적 물질적 자산을 통칭한다. 예술은 문화에 포함되는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에 문화 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조적 예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총칭해서 문화예술이라 일컫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은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일부 특권층(귀족 또는 성직자계급)의 전유물과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변혁과 더불어 특권층이 누리던 예술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대중화 된다. 물론,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가 생기고 사회·문화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변화하면서 사실상 오늘날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된 것이 사실이다. 예술의 일반화와 개방화가 문화예술이라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중적인 복합어를 형성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에서의 특이한 상황(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공간)을 이해하는 기준이 자체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독일에서의 예술개념

프랑스와는 달리 독일어권에서 예술개념은 학문, 인식, 인지, 견해에 따라 사용된다. 16세기부터 예술은 학문을 설명하거나 철학과 자연과학에서도 사용되었다. 완성의 의미에서 예술개념은 요리, 칼, 승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능력의 전체로서 완성을 의미한다. 만일 솜씨있는 숙임수로 사기술, 미화술, 유혹술 혹은 마술을 한다면 이것도 예술에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범위에서 형용사 “예술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반면에 수공업에서의 의미는 오늘날 공예를 말하는데, 18세기까지 예술은 수공업의 연습으로서 사용되었다. 좁은 의미에서 수공업과 예술은 차이가 있다. 설사 서로가 가깝게 붙어있고 상호간에 혼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술은 공예와 구별되어야 한다. 예술은 자유이고 공예(Handwerk)는 임금의 예술이다. 이러한 칸트의 정의에서 라이프니체는 언어술(Grammatica)과 대화술(Redekunst), 시각예술(Optica), 분해예술(Anatomica), 경계술(Chyma)로써 대부분 학문적인 혼육을 첨가한다. 따라서 과학과 학문적인 예술은 구분되기 시작한다. 괴테는 예술과 학문은 단어로써, 자주 사용되면서 혼용되어 이해된다고 한다. 하나로 두 개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정의를 제안하기도 한다. 내가 생

각하기에 학문은 일반성의 인식으로 일반성에서 유추한 것이 학문이고, 예술은 행위의 학문으로 사용된다. 학문은 오성이자 예술은 매커니즘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둘을 실천적인 학문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래서 마침내는 학문이 이론이고 예술은 문제라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괴테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술을 정의하는 것은 실천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이론도 실천에서 구체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자연과의 대립으로서의 예술은 계몽주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과 반대되는 의미(의도적)에서 사용되면서 이다. 그렇다면 미적 예술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뮌헨만, 헤르더, 괴테, 쉴러에 의해서 학문적으로 자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미학적 논문에서 그들은 인간이 충족의 목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을 예술이라고 한다. 연극, 문학, 음악, 조형예술 작품 등이 바로 그러한데, 이로서 예술개념은 마침내 확장되면서 구체화 된다. 여기서 예술전시, 예술작품,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예술육선도 이 단어에 포함된다. 반면에 인간이 만든 기계와 오랜 역사적인 노정으로 변화를 맞이한 예술개념은 19세기이후에 들어와 본격화 되는데, 기계를 사용하거나 혹은 기계적으로 제작된 대상이 예술에 편입되어 예술과 기술이 동시에 사용된다. 광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비가 등장하는 것도 이때이고 생산물을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발달하게 된다.

### 3. 공간이란?

문화공간이란 문화가 인간의 창조적 행위와 행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간이란 아무것도 없는 빈 곳, 좁은 공간,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간을 말하기도 하는데,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와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혹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공간이다. 인간은 2차원과 3차원의 공간에서 살아 가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인식은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준이다. 동물이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거나 경계를 그으며 자연공간을 지배하는데 반하여, 인간은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한다. 개인적인 특성과 지역 그리고 시대적인 특성이 공간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듯 동물과 인간은 공간에 따라 구분된다. 인간이 공간에서 예술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반면에 동물은 공간에 의존하는 차이를 보인다. 공간의 프로그램에는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이 있다. 우리가 예술을 분류할 때, 그 예술의 표상(表象)이 시간적 계기(繼起) 형식으로 나타나는가, 혹은 한 공간이 병렬(並列)적형식으로 나타나는가에 따라 시간예술(時間藝術)과 공간예술(空間藝術)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시간예술은 문학·음악·연극 등을 포함하고, 공간예술은 회화·조각·건축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류법은 G.E.레싱의 책 <라오콘 Laokoon>에서 나타는데, 그는 문학과 회화의 표현상의 특징을 비교해서 연속적 또는 계기적(繼起的:nacheinander)인가, 병렬적(並列的:nebeneinander)인가의 구별을 가려내어 근대미학에 여러 이론을 형성하게 한다. 연속적 또는 계기적인 것은 음악연주와 혹은 연극과 같이 연주를 시작해서 계속 연주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무형으로 남게 된다. 반면에 회화나 조각은 제작이 끝나면 오랜 시간 동안 결과물/예술작품으로 남게 되는 예술이며, 이는 일정한 공간에 그대로 남아 부동적이다. 20세기의 예술학자 L.테스와르는 이것을 다시 운동과 계기의 예술, 정지와 병렬의 예술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예술의 분류를 시도하였다. 시간예술과 공간예술이라고 하는 구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분류에서 발전한 뮤즈적 예술과, 조형예술이라고 하는 대립개념과도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또 이것을 더 세분해서 시간예술(음악·문학), 공간예술(회화·조각·건축), 시간·공간예술(무용·연극)로 나누거나, 또는 E. 하르트만과 같이 시간예술(음악), 공간예술(회화·조각), 시공간예술(무용·연극), 상상가상예술(예:문학)로 나누기도 한다. J.폴켈트와 같이 시간직관(直觀)은 시각이나 청각에도 공통되므로, 시각예술은 공간적·시간적인 데 대해, 공간직관(直觀)은 시각의 영역에 고유의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이란 것과 공간적이란 개념은 그 포괄 범위가 균등하지 않으므로, 분류 기준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 설도 있다. 프랑스의 미학자 수리오도 예술관조(觀照)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간예술이라는 개념에 반대하며, 조형예술에도 또한 관조하는 데에서는 역시 계기적 사실이 성립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베르그송, 후설, 하이데거 등의 철학적 시간론과 결부하여 근래 유력해지고 있지만, 예술분류상에서 시간적이라는 개념은 음악 연주나 연극 공연처럼 표상형식이 작품 속에 확정된 계기적 질서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조형예술과 같이 관조에서 불확정한 계기적 질서가 불러일으키는 예술에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공간예술의 명칭이 타당하다고 보아도 좋다. 공간예술이라는 개념은 조형예술 일반 속에서도, 회화·조각처럼 상상가상이나 입체형상에 의한 표현적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형상예술과 구별되고, 추상적인 공간 형성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공예 등에만 타당하다는 설도 있다. 어느 장르에도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성과의 관계는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견해는 공간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해버렸다고 할 것이다. 공간예술은 조형예술과 같은 것이며, 그리하여 2차원적인 평면형인 것으로는 회화·평면장식·그래픽 등이, 3차원적인 입체형인 것에는 조각·공예·건축, 그리고 기념비적 예술 등을 모

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 1) 프랑스에서 공간개념

프랑스는 1959년 문화부를 창설하면서 공간에 대한 문화적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이 일찍이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전 지역에 문화보급을 위한 다양한 문화공간이 존재하는데 규모가 큰 '문화의 집', 규모가 작은 '청소년 문화의집', 소규모의 '문화센터'등이 있다. 초대 문화부장관이었던 프랑스의 대문호 앙드레 말로는 각 지방에 문화의 집(앙드레말로 문화센터)을 건립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문화의 집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그 운용비용도 국가와 문화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 운용하고 있다. 앙드레말로 문화센터에는 공연장(연극, 영화, 음악, 무용을 공연할 수 있는 약 500석규모)과 전시장(사진, 미술작품, 기타 공예작품 전시)을 갖추고 있으며, 연극 연습장, 소규모 세미나실, 카페와 유사한 쉼터 그리고 각 지역의 축제·행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17개의 문화의 집이 존재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연합관계는 프랑스를 문화대국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1944년 남 프랑스에 위치한 도시 리옹에서 처음 설립되어 각 지방마다 생기기 시작한 청소년 문화의 집(MJC: Maison des Jeunes et de la Culture)은 각 코뮌(지방행정에서 최소단위)에 몇 개씩 있다. 앙드레말로 문화센터에 비하면 그 규모가 작다. 이는 인구의 비례를 감안한 것이다. 이는 그 지역민에게 근거리에 있는 문화의 공간으로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가는 공간이 된다. 이곳은 우리나라의 문화복지센터와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규모 공연장과 여러 가지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체육활동(유도, 태권도, 가라데등)교실, 영어강좌, 불어강좌(특히, 외국인이나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뜨개질 강좌, 도자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가 되는 공간이다. 또한 문화활동센터는 자치단체가 만든 것으로 소규모의 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공연이나 전시보다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활용도가 훨씬 높다고 하겠다.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는 파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공간이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담아내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 활용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는 우리에게 시작하는 바가 적지 않다.

## 2) 독일에서 공간개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는 공간개념이 이차세계대전 이후에 들어와 변화를 갖는다. 전쟁으로 인하여 과거사에 대한 극복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폐허가 된 공간을 재건축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학문적으로 공간을 프로그램화 하고 있어서 프랑스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 공간은 지리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장소를 연구하고 지역민과 문화를 탐구하여 공간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장을 감안하여 개발하여 프랑스와는 차이가 크다. 공간플래너는 삶의 공간을 컨셉과 인구이동과 지역민과 지역정치와 관계한다. 여기에는 이주민 혹은 외국인도 고려된다. 한스 그림(Hans Grimm)과 지리학자 프리드리히 라첼(Friedrich Ratzel)은 제삼제국시대에 수난을 당한 공간의 프로그램을 한편으론 극복하고 다른 한편 정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망에서 공간개념을 다룬다. 1945년 이후에 들어와 독일에서는 개인과 지금까지 유효한 연구방법과 전문용어들이 바뀌는 이유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프랑스와는 달리 공간의 플랜에 대한 정책과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에 속하는 공간플랜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플랜이란 지역과 문화를 프로그램으로 담아내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지역과 행정지역이 자연공간과 경제와 사회적인 가능성에 따라 규정되고 사용된다. 이러한 지역과 지역행정들이 전문화되기 위해선 주변의 공간·문화·예술·경영에 관한 인재를 대학들에서 양성하고 있다. 특히 건축이나 지리학 혹은 지역문화가 교육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건물을 활용하기 위한 학제간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공간규정과 도시와 풍경플랜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중유럽의 국가들은 공간플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룬다. 공간플랜에 기본을 이루는 연구방향에서 공간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리학과 사회학이 그 대표가 된다.

독일에서 공간플랜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행정에 속한다. 이 국가적인 차원은 공간적인 플랜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고도 부르지만, 유럽에서는 국가와 주정부와 지역 그리고 소단위로 나뉘어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정책이 세분화 되어 있다. 우선 유럽공동체에서 공간플랜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유럽연합에 소속된 국가들 간에 국제적인 조약을 체결하였다. EU와 EFTA(유럽자유동맹) 그리고 EUCOMMIN 프로젝트는 공간조성을 일익을 담당한다. 반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간은 특히 독일에서는 협회로 조직되어 있다. 이

협회는 교통과 건축 그리고 도시발전으로 나뉜다. 건축법과 공간규정(BBR)이 바로 그러하다. 이 법은 규칙적으로 공간규칙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보고서는 공간적으로 중요한 토대와 경향과 발전을 담아내야 한다. 행정기관은 공간규정을 이행한다. 따라서 장관은 주정부와 학문과 소단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정부에서 문화 예술공간의 활용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공간플랜의 핵심은 주정부의 행정기관과 전문기관으로 구분된다. 어떠한 행정기관이 주정부의 플랜을 하는지 주정부에 따라 각기 다르다. 독일 중부에 자리한 라인란드 팔츠주에서는 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고, 북독일의 니더작센에서는 내무부에 속하고, 맥클렌 퍼폼먼과 바덴 뷔르템부르크는 경제부에서 공간플랜을 담당한다. 다른 주정부에서는 공간이 환경부에 속한다. 공간플랜은 또한 상부조직과 하부조직으로 구성되기 되어 있기도 하는데, 이러한 공간정책과 행정부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담당할 뿐 다른 모든 것은 지역의 문화적인 차이와 특수성과 전문가에 일임한다. 물론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분명한 독일에서 공간 분권정책이 필수적이기는 하겠지만, 이러한 분권공간플랜의 구조는 우리나라의 공간정책에 하나의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특히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적인 유산을 지방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또한 지역출신의 전문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일부 대학교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석·박사 논문주제로 다루도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일에서 공간플랜은 주정부에 일임된다. 차이가 있는 공간플랜을 두 가지의 모델로 종합하면, 1. 행정모델에서 지역플랜은 독자적인 과제로 보고 행정부의 구조에 속한다. 2. 연합모델에서는 독자적인 지역플랜의 자치부로서 플랜부를 둔다. 바이에른에서는 18개 지역들의 과제로 나뉘어 있는데, 지역과 주정부는 결속하게 되어 있다. 주정부와 지역의 공간플랜은 법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다. 행정부 외에도 특수동맹과 전문가 집단이 있는데 이들은 공간을 조직한다. 이것은 특히 독일의 도시, 쾰른(Koeln)과 본(Bonn)과 뒤셀도르프(Duesseldorf)가 그 대표적이다. 그 밖에 공간규정과 공간플랜을 다루는 전문학교가 있는데, 하노버(Hanover)에 있는 공간연구 아카데미와 주정부플랜이 있고, 베를린에는 도시계획과 주 플랜을 들 수 있다. 이 전문기관들은 학자와 행정전문가가 함께 운영한다. 공공적인 공간으로 공동체의 부분이나 공식적인 법의 구조로 이해된다. 누구에게나 열려진 공간으로서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공공성이란 도보, 자전거, 차량 등이 통과하거나 주차장과 장소를 말한다. 이 개념은 도시플랜과 교통플랜과 연결되어 있는데, 공공기관은 공공적인 기관들의 건물을 사용하게 한다. 따라서 공공

적인 공간은 개인적인 공간에 비하여 다른 형태를 가진다.

문필가이자 출판인인 볼프 오스트 지들러 (Wolf Jobst Siedler)는 1976년 그의 저서에서 죽은 도시, 거리와 장소 그리고 나무가 죽은 도시를 언급하였다. 1986년 그는 또한 놀이공간과 교통의 소음방지와 도시환경이 장소를 쾌적하게 한다고 말한다. 공공적인 공간의 재사용은 지역의 정체성을 구현하는데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았다. 세금으로 도시플랜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공간의 형성과 사용의 분할은 도시생활에 있어서 활력소가 되며 개인적 투자자에게 매력이 생겨나도록 사용과 건축면적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공적인 공간은 개인면적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예로는 하노버의 프로젝트인 “하노버는 장소를 창조한다”를 들 수 있다. 공공공간이 도시의 환경에 주를 이루고 있다면, 개인적인 공간은 개별성과 환경에 주안을 둔다. 수많은 단체들이 면적과 공공기관을 사용하거나 경제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공적인 기관의 개인화 경향을 더 강력하게 촉진하여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개인도로와 차고지, 혹은 백화점 등이 그 예로서 공공적인 공간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물론 개인주택과 개인적인 사용의 권한이 공간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무주택자와 무허가 점거자 (예술인들)가 퇴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개인적인 공간은 따라서 소유자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사용된다.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공공적인 공간을 단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발전은 소집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그에 따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을 활성화하고 공간을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소속시키기 위해선 제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에서는 문화공간의 건축과 재증축, 혹은 공공적인 공간은 Public Private Partnerships으로 표명화 되었다.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적인 공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단체에서는 개인들의 연합과 관심을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을 전환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민참여는 1981년 Verein Lichtenrade-Ost e.V. (BILO)에서 시작되었고 Lichtenrader Volkspark 이름으로 베를린에서 구체화 되었다. 현재 이러한 문화공간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국제적인 문화행사를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숫자만 해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국제예술가레지던스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이다. 농촌이나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등 독일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문화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

공간플랜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독일에 인접한 국가 스위스에서는 공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공간플랜은 공간은 도시의 한 지역, 도시, 종교, 면적, 국가, 대륙에 따르고

그리고 또한 교통, 환경, 국민,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미래에 공간이 미치는 영향과 사용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여기서 스위스에서 추구하는 공간효과는 사회와 경제와 법과 생태적인 요구등을 하나로 묶게한다. 개인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문화적인 삶을 향유한다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게 되고 경제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스위스 공간문화정책법이 유럽의 공간규정에 속하는데 이는 공간이 미치는 공동체형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자리하기 때문이다. 공간법이 공간을 정의하듯이 스위스에서 공간플랜은 상이개념을 말한다. 공간의 효과로서 모든 플랜의 척도는 도시와 지역 그리고 농가와 공간규정에 까지 이른다. 공간플랜은 형식적인 규칙과 플랜과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플랜과 주정부 법에 따른 지역과 주정부 공간플랜도 이에 속한다. 공간을 교육하기 위한 정의를 찾는다는 것은 정의의 부분이 내용적인 가치가 된다는 것과는 무관하다. 도르트문트 대학교 도시와 지역플랜학과 하인리히 쇼프 (Heinrich Schoof)교수는 공간플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도구사용의 플랜에 있어서 공간적인 조건들의 영향은 플랜간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공간으로서 지리적으로 대지의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sup>8)</sup>

#### 4. 참여란?

참여 (Engagement)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에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의무 혹은 책무 등을 뜻한다. 아방가르드예술에서 강조된 이 용어는 여러 범위에서도 사용되는데, 사회적인 참여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이지 않은 것으로 자유의사가 우선시 된다. 이는 시간과 경제적으로 선한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용어의 사용범위는 크게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참여로 구분된다. 문화 참여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구로는 유네스코가 그 대표적이다. 여기서 유네스코를 언급하는 이유는 국제적으로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재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규정한 법에 따라 유무형의 문화가 발굴되고 보존되어 본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적 참여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들에게 자국민의 문화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는 교육과 학문 그리고 문화를 주관하는 기구로서 국제적인 이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

8) Schoof, Heinrich: Wechselnde Perspektiven in Ausbildung und Beruf von Raumplanern. In: Klaus M. Schmals (Hg.): Was ist Raumplanung, Dortmund 1999,



다. 현재는 프랑스 파리에 자리하고 있는 이 기구에는 19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다. 문화유네스코 (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는 언어와 비물질적인 인류의 유산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적인 형태와 신화, 이야기, 음악, 춤, 놀이, 제식, 수공업적인 능력과 여타 다른 예술 등을 보호한다. 2003년 10월 유네스코는 비물질적인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2006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1982년 멕시코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협의회에서는 “확장된 문화유산”이 시행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126개국 회원국들은 관행된 기존의 문화유산법을 확장시켰다.

1942년 발족한 이 유네스코는 영국의 교육부장관인 Lord BUTLER에 의해서 거론되었다. 구소련을 제외한 참여국들 간에 계약(문화재보존 및 발굴)의 이행이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결성된 유네스코 세계의 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강령에 따르면 참여한 국가들은 세계유산을 파악하고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연합동맹은 상호간 도움을 주어 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한다. 매년 7월에 개최되는 World Heritage Committee는 참여 국가들이 제출한 문화재를 평가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여부를 평가한다. 2005년 결성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문화유산은 1-6, 자연유산은 7-10의 조항에 속하는데, 총 24개국이 이 카테고리에 따라 참여하고 있다.

## 1) 프랑스의 참여개념

프랑스에서 문화적 공간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문화의 공유를 위해서 제공되는 곳이지 상업적 목적을 위한 수익의 공간이 아니다.<sup>9)</sup> 즉, 문화공간의 활용에 시민들의 부담이 과중할 경우 문화적 활동은 위축되고 문화공간에 참여하는 시민이 줄어들 것이다. 문화공간의 운용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 관리나 운용을 위해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공공적인 개념의 문화공간은 루브르 박물관을 비롯하여 프랑스 대혁명 이후 미술관과 박물관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면서 이미 확립되고 있었다. 혁명파들은 예술은 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에 적

---

9) 장마리 퐁티에, 박균성 역,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법 소개, 서울, 행정자치부, 2006, p.32 장마리 퐁티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행정법원 및 분쟁재판소는 대부분의 문화활동의 조건으로 “일체의 상업적 또는 공업적 성격을 배제하는 조건”을 강조한다. 이는 행정적 공공시설법인의 지위를 가지는 서비스 또는 시설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수익자체가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다.” 즉, 다수의 문화적 공간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으나, 그 목적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극 찬성하고 혁명 초기에 이미 '예술 표현의 자유' 또한 선언 되었다. 그리하여 왕족들의 유품들과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 장식품, 고급 가구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문화부는 인류의 (예술) 작품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되, 우선적으로 프랑스의 작품에 대해 가능한 많은 프랑스인들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임무를 지닌다. 또한 프랑스 문화재를 감상하는 청중/관중의 폭을 넓히도록 권장하며, 예술작품의 창작활동을 높이고 그 예술 활동을 풍부하게 하는 (창의적) 정신을 돕도록 하는 임무를 지닌다"<sup>10)</sup>라며 프랑스 문화부 창설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말로는 그 정책 중에 하나로 지방에 문화의 집을 설립하였는데 <문화의 집의 근본은 문화의 분산화이다. 파리 특권의 종말과 보급 및 예술창조의 본거지인 지방의 발전 -이것은 바로 극장, 음악회, 박물관에 가지 않는 대중들을 서서히 공격하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 여태까지는 물질적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에게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sup>11)</sup> 각 지방에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중앙의 문화공간의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함을 물론이고 그와 더불어 각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는 문화공간의 설치뿐만 아니라, 문화통신부와 지역자치 단체는 프랑스 국민의 문화적 관습에 관한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문화 지출에 관한 조사 등 국민의 문화 활동에 관한 관심을 조사하여 그들의 문화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특히, 문화부 산하 문화개발위원회를 두어 중앙의 문화정책계획을 뒷받침하게 한다.

1968년 새로이 문화부 장관에 임명된 듀아멜은 보다 더 직접적이고 근접한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의 문화센터를 신설하였다. 즉 대규모의 공간 보다는 좀 더 소규모로 주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에 노력을 가하였으며, 지역 확산과 공권력의 개입 축소를 시도하였다.

---

10)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 p.208에서 인용함  
프랑스 문화부 웹사이트, 문화부 창설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원문)[Decret No 59-889: "Le ministère charge des affaires culturelles a pour mission de rendre accessibles les oeuvres capitales de l'humanité, et d'abord de la France, au plus grand nombre possible de Français; d'assurer la plus vaste audience à notre patrimoine culturel, et de favoriser la création des oeuvres de l'art et de l'esprit qui l'enrichissent."]

11) 임문영, 프랑스 문화정책의 제도화, p.15에서 인용함.

## 2) 독일의 참여개념

독일어권에서 참여개념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열정과 개인적으로 이상을 위한 질주로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참여는 종종 직업 외에 행위를 연습하는 것으로 사회적인 참여가 그 대표적이다. 또한 직업적인 참여도 있는데, 취직하다라는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극단에 예술가로 취직하다를 들 수 있다. 춤을 출 때 상대방에게 요청 할 때에도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프로세스사회학에서 노버트 엘리아스는 참여를 리얼리티에 연관된 격양된 감정과 가깝다고 하는데, 이 가까움은 리얼리티에 관한 개인적인 희망의 결실과 왜곡된 이론 혹은 제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반대개념으로 거리두기가 있다. 독일어권에서 참여는 문화예술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베를린에 국제예술가레지던스는 독일의 문호 괴테의 이름을 차용한 괴테협회에 소속된 기관이다. 독일어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 괴테협회는 외국예술가를 초빙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머물면서 창작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베를린시민에게는 국제적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참여한 예술가들은 베를린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참여는 수도 없이 많다. 프랑스와 유사한 문화참여연대를 구성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방의 분산화를 참여로 묶어내고 있다. 각 도별로 행정기관을 두어 공간을 활용하게 한다. 지자체를 운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적절하지만, 프랑스 파리에 문화가 중심을 이루어 멀리 가지도 않아도 된다는 장점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 베를린에 박물관 섬과 뮌헨의 피나코텍들과 카셀의 매체박물관(Center for Art and Mediatechnologie), 슈투트가르트의 극장과 국립갤러리의 연합, 쾰른의 대성당과 박물관과 연극장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반면에 독일은 미술전시에 막대한 인력과 자본(국가와 민간)을 투자하기도 한다. 카셀의 도큐멘타(5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전시), 문스터의 조각프로젝트(10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각 전시)가 그 대표적이다. 이러한 국공립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공간은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민간차원의 경제적인 지원을 직간접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가 파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공간을 참여개념으로 확장하였다면, 독일은 분산된 참여를 유도하여 각기 색다른 특징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가 앙드레말로 이후 문화의 집을 재정하여 프랑스 모든 국민에게 문화공간에 참여하도록 하였다면, 후발주자인 독일에서는

양차대전 이후에 막대한 경제적인 기반을 토대로 분권화를 실천에 옮기고 있다. 물론 통독이 후에 들어와 문화공간에 투자하는 경제적인 조건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60-90년도 확장한 공간을 시민과 민간이 참여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유럽공동체를 문화로 묶어내고자 극단·무용·음악·조형예술, 건축분야에서 동구권의 전문 인력을 대거 수용 및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적인 정책으로 문화연대를 만들어가고자 동구권지역에 인접한 베를린과 뮌헨에 소재한 국제적인 연구소에 동구권 학자에게 공동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참여개념은 국가마다 다르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문화와 예술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는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서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참여의 의미와 범위가 프랑스와 독일에 비하면 열악한 실정이다. 더더욱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경우는 독일과 프랑스 소단위 지역에 비하면 시민의 참여와 참여의식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지역에 맞는 행정적인 전문 인력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서울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지역에 걸맞는 문화예술공간 운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5. 유럽의 문화예술정책 현황

### 1) 프랑스

프랑스인들에게 문화적 자부심은 곧 그들의 자존심과 같다. 일찍부터 중앙정부의 정책을 통하여 문화적 자산에 대한 보존과 보호에 노력해 온 것을 보면 문화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미 17세기에 자국 언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프랑스 아카데미’를 창설하였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특히 전국에 소재한 역사적 문화자산을 보호하고 전승하고 있다. 그리고 루이 14세의 문화적 사치와 지원은 문화예술 발전 공헌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문화 대통령으로 불렸던 고 미테랑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의 소중함을 강조하였다. 그가 계획한 문화 대프로젝트(Grand Travaux)는 그의 생전에 거의 성공적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이루었다. 루브르 박물관의 개조와 유리피라미드,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미테랑 국립도서관등은 그의 업적중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와 문화가 하나라는 예문이 프랑스의 전통에 자리하고 있다. 이는 시기별 문화구분에

있어서도 알 수 있다. “프랑스 대통령은 집무실에 미술작품을 걸어놓고 감상하면서 업무를 본다”라는 슬로건에서도 나타나듯이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국제적으로 이미 정평이 나있다. 프랑스에서 위와 같은 공공 문화공간을 창설하고 운용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공공법인을 두어 자치단체 산하 문화 단체 및 공간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각 지방의 지역 문화공간과 도서관, 소규모 박물관, 전시장등을 관리·감독한다.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문화정책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시민이 문화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문화정책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의 구성원에게 골고루 그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존재해야하며 그런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임문영의 “프랑스 문화정책의 제도화”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sup>12)</sup>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을 해칠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면에서, 각 사회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정책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육정책, 사회보장 정책등 다양한 방면에 정책이 필요 하듯이 문화에도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는 일찍이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진 국가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겠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예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미적 가치가 있는 것,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의 대중화는 1980년대에 이르러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정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더라도, 이미 문화는 이 두 계층이 규합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테랑 정부시절 자크 랑 문화부 장관은 미테랑 대통령의 문화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장본인이다. 그는 문화공간을 실내의 개념에서 모든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곳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주요 정책을 실행하였다. 영화축제를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전국이 음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음악축제는 그의 문화적 대중화 실현을 대표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는 문화비용 지출을 들 수 있다. 현재

---

12) 임문영, 프랑스 문화정책의 제도화, p.4

프랑스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앙드레말로의 문화정책 시행이후에 등장한 뒤아멜 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점점 제도화에 역점을 두어온 문화정책에 있어 프랑스의 문화성장관인 뒤아멜은 문화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하여 <국가는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공권력의 간섭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술전시와 연극공연의 실태에 중요한 비교가 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1만 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꼬뮌<sup>13)</sup>에서 평균 10%정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한다.<sup>14)</sup> 이 비용은 각 지방의 다양한 행사·축제·공연단체등에 지급된다. 이렇듯 프랑스의 문화에 대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그 수요와 충족 면에서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추어 보자면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예술창작 지원을 비롯하여, 문화유적지 및 주요 박물관 무료입장제도를 마련하고, 젊은이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관람 무료제도 및 할인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혜택을 골고루 부여하는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할인혜택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 방법을 확대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프랑스가 문화대국으로 자리잡기 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시민혁명으로 인하여 고중세의 문화가 파괴되기도 하였지만, 유럽여행에서 빠지지 않고 방문하고 있는 루브르 박물관이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문화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문화정책이 있었고 국제적인 차원으로 까지 끌어올린 국가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 지방이 문화도시로 지원과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공공성과 예술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조차도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을 공공기관이나 개인건물에 세워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예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은 어떠한가 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다. 복지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정도인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물론 일부분의 고소득 예술인을 제외하고, 예술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취향의 일부이거나 일종의 자기만족과 같은 것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것처럼 예술인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더 많은 예술창작의 기회와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예술인 복지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프랑스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sup>15)</sup> 이렇듯 예술인을 위한 특별한 사회적 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독일이 거의 독보적이다.

13) 프랑스 최소의 기초자치단체를 꼬뮌이라 한다. 하지만, 코뮌의 크기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수도 파리처럼 그 규모가 매우 큰 경우처럼 다양하다.(한국의 읍·면·동같은 행정단위)

14) 장마리 퐁티에, 박균성 역,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법 소개, 행정자치부, p.36

15)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기초예술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2005, p.98

위의 연구집에서 프랑스의 경우 '1975년 12월 31일 법에서 예술적 노동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예술작품의 판매가 유일한 소득원인 예술가들에게 이와 같은 (사회적)권리를 누릴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2) 독일

전후 독일은 문화예술에 대한 각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이다. 문화정책을 대변하는 슬로건 “만일 우리가 유럽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핵심적으로 아이디어에 말한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문화이다”에서 잘 반영하고 있다. 독일문화정책은 지방자치에 있어 프랑스의 중앙집권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독일 문화정책의 기본구조는 예술(조형예술, 표현예술, 음악, 문학)의 범위에서 국가가 밀접한 관심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넓게는 문화정책은 사회적 관계에 있는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확한 개념정의는 이론적으로 문화와 정책의 틀에 따라 각기 달라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 문화정책은 크게는 여섯 가지로 구분되는데, 살펴보면, 1. 학교와 청소년의 문화교육, 2. 고등교육과 연구의 학문적인 정책, 3. 예술을 포함한 문화재의 보호와 관리, 4.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포함한 종교정책, 5. 언론사와 방송국의 규정을 포함한 매체정책, 6. 전체적인 문화경영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설정 등이 바로 그러하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문화정책 범위는 상위개념으로서 지자체의 권한에 따라 해석 및 하위개념이 첨부된다.

독일의 문화촉진의 조건도 프랑스와는 상당히 다르다. 지방분권과 중앙집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과 업무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화촉진이 문화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다. 문화정책은 공공기관(극장,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도서관)의 경제적인 지원으로 여기에는 개인적인 문화 창작도 지원의 대상에 속한다. 지원액수와 지원숫자 그리고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은 지방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예술가에는 세금의 혜택을 준다. 문화지원정책은 통괄적으로 상금과 장학금으로 구분되는데, 세금과 방송 혹은 언론기관과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지원한다. 우리나라의 메세나그룹과 유사하다. 이러한 개인적인 문화촉진정책으로 인하여 도에 속한 대도시 중소도시 그리고 도시의 문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얼굴 만들기에 한몫을 담당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자를 법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국공립 협회를 포함하여 사립 장학재단, 협회, 스폰서등도 이에 포함된다. 이렇듯 독일에서 문화정책은 첫 번째 과제에는 도립이고, 도별로 문화부를 둔다. 또한 독일의 문화정책에서 타 유럽국가와의 차이로는 국제문화정책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무문화에서 담당한다.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과 문화교류에 중심이 된다. 특히 괴테협회를 들 수 있는데, 자국문화가 외국에서 소개되거나 혹은 외국의 문화를 연구

하거나 독일에서 다양한 형태로 수용될 때 중심에 선다. 독일어 언어를 비롯하여 방대한 전문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 다른 기관으로는 TV방송국과 라디오 방송국으로 세계 각국에 자리하고 있다. 물론 방송언어는 독일어이고 내용은 그 지역과 독일에 있다. 이는 글로벌화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진국과 후진국을 동시에 포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커다란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진행된 독일과의 문화교류는 거의 대부분 이 기관의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한편으론 독일문화를 외부에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타자의 문화에 대한 시각을 대중과 함께 한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수행하다. 지역과 지역, 국가와 국가 간의 대화가 이러한 문화정책으로 촉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양차대전으로 얼룩진 국가에서 문화정책의 필요성은 절실했겠지만, 오늘날 독일이 문화의 선진국으로 국제무대에 자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예술계를 주도하는 예술가들의 대부분이 독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상기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크고 전문적인 미디어 박물관 Zentrum fuer Medien und Technologie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세계 문화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카셀 도큐멘타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展 외에도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쾰른의 아트 콜로네(미술시장)와 베를린 아트 베를린(미술시장), 뮌헨의 피나코텍(현대, 노이에, 알테 피나코텍)은 루브르보다 더 큰 전시공간을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조건은 지방 분리형 문화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가와 실행하는 전문가의 이론적인 뒷받침이 전무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앉아서 전문가가 배출되기를 기다릴 수많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지방자치정책으로 독일이 문화선진국의 선두주자가 되기까지는 중앙과 지방, 경제와 문화, 지원과 실천, 관리와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의 문화예술정책은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강대국으로 자리하기까지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재정적인 지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체계화된 정책프로그램으로 현재의 프랑스와 독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연계성, 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지역과 지역 간을 연결하는 문화정책은 유럽국가에서 하나의 귀범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3) 유럽의 문화공간 현황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럽의 문화공간의 현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주요국가의 박물관 숫자 비교, 둘째, 문화예산 비교. 셋째, 프랑스 문화공간의 현황 (공연시설, 문화직종 종사자, 문화부 예산비중, 부서별 주요업무, 지역문화사업국의 주요활동, 지방 문화부의 인력현황), 넷째, 독일 문화공간의 현황 (공공극장, 문화부 부서별 주요업무)

첫째: 주요국가의 박물관 비교<sup>16)</sup>

국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독일	폴란드	한국
박물관수	4,609개	1,300개	1,352개	3,492개	4,034개	551개	355개
1관당 인구수	5.9만명	4.5만명	2.2만명	3.7만명	2.0만명	7.0만명	13.5만명

박물관의 실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공간 확보는 아주 미미하다.

둘째: 주요 국가의 문화 예산 비교

	문화부문 예산액 (억달러)	일반 회계 예산 대비 비율(%)	GDP대비 비율(%)	1인당 문화 예산 (달러)	기준 연도	비 고
일본	792	0.10	1.45	623	2000	문화청 예산
영국	1,550	0.42	12.34	2,613	1999	문화 미디어 스포츠성예산
프랑스	2,977	0.94	17.54	5,038	1999	문화커뮤니케이션성 예산
독일	823	0.27	3.16	1,001	1998	연방 정부의 문화 관계예산
미국	109	0.01	0.13	40	1999	NEA(미국예술재단)예산
한국	8	1.03	0.13	16	2000	문화관광부 문화예술 예산

결과: 박물관의 숫자와 마찬가지로 예산에 있어서도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16) 참조: 문화관광부, 박물관운용실태조사, 미술관운용실태조사

### 셋째: 프랑스 문화공간의 현황

#### 가) 프랑스 공연시설별 현황<sup>17)</sup>

	구분	1989-90	1992-93	1994-95
파리 오페라	공연	-	370	249
	관객(천명)		649	453
국립극장코메디프랑세	공연	392	450	472
	관객(천명)	296	302	244
국립오테옹극장	공연	328	339	300
	관객(천명)	89	145	89
국립샤일로극장	공연	306	295	337
	관객(천명)	162	180	161
폴린느극장	공연	302	393	345
	관객(천명)	77	132	103
국립스트라스부르크 극장	공연	151	104	161
	관객(천명)	32	32	54
국립드라마센터	공연	5,407	7,395	7,300
	관객(천명)	1,557	1,782	1,864
국립문화예술의 장(場)	공연	22,445	23,995	24,249
	관객(천명)	1,912	2,028	2,398
파리시의 사설극장	공연	11,285	11,109	11,773
	관객(천명)	3,475	2,773	2,434

특징: 다양한 시민들의 문화 욕구의 부응.

17) 본 자료에는 순회공연이 포함 하질 않았다. 작가 및 극작가협회의 보호를 받는 레퍼토리에 대해서 3.5%의 세율로 별도 예산세를 납부하는 사설극장이 전국에 포진되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발레 가르니와와 바스티유 오페라극장의 경우는 전체 유료관람과 무료관객으로 되어 있다. 참조: INSEE, ANNUAIRE STATISTIQUE DE LA FRANCE

나) 프랑스 문화직종 종사자<sup>18)</sup>

직 종		1982	1990		
		계	계	남	여
문화작가, 시나리오작가, 대사작가		3,844	5,620	3,492	2,128
작곡, 작사가		22,820	16,164	12,764	3,400
연기자, 무용가		6,764	11,304	5,844	5,460
기타예술가		3,912	8,688	4,764	3,924
조형예술가		14,488	19,852	13,692	6,160
기자, 편집기자		20,608	29,952	18,700	11,252
사서, 학예사(공공부문)		14,212	11,796	2,360	9,436
예술교육가(교수)		16,556	23,856	9,212	14,644
공연예술가		3,776	5,820	4,600	1,220
공연예술 및 레크레이션 관리운영자		19,500	17,616	11,896	5,720
출판, 음반, 공연예술 종사자		3,044	10,812	7,228	3,584
공연, 음반, 영상부문 기술직		3,704	8,368	5,860	2,508
공연, 음반, 영상보조 기술직		8,052	17,156	11,744	5,412
공연(무대)보조		6,192	8,988	6,848	2,140
패션, 장식 미술부 문 기술보조직종	고용	22,844	30,205	14,620	15,585
	자영업	9,516	10,986	6,208	4,778
예술장인		9,892	10,458	8,041	2,417
예술직공		15,120	17,360	13,080	4,280

18)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인구센서스에서 추출한 자료. 참조: La documentation Française, Statistiques de la Culture Chiffres.

특징: 전문화된 행복지수 높이기.

다) 프랑스 문화부의 각 부문별 예산비중<sup>19)</sup>

(단위: %)

공연 예술	영화	문화 유산 및 건축	도서와 독서	박물관	조형 예술	문화 발전	국제 사업	기록 보관	프랑스 언어
29	22	16	13	10	5	2	1	1	1

특징: 물리적 유산에 대한 지원이 26%로 낮고 공연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의 증가

라) 프랑스 문화부의 부서별 주요 업무<sup>20)</sup>

담당국		업무
중앙 행정 서비스	일반 행정국 (DAG)	-문화부 전체 행정관리, 조정, 평가업무 -문화부의 현대화, 분권화작업, 정책평가 및 조정 -문화부 각 부서 연결 -지역문화활동 및 문화정비 정책 조정 -인사관리정책 개발 -예산준비, 시행 및 분배 -법적, 재정적, 전문적 자료준비
	문화유산 건축국 (DAPA)	-건축물 설립촉진 및 기존 건축물의 질적 향상 -문화유산 보호연구 -건축가 활동지원 -문화유산 관련 직업 보호 -건축 및 문화유산관련 교육기관 참여
	고문서국 (DAF)	고문서관련 활동전략 계획 -고문서 수집, 분류, 보존관련 평가, 자문 -국립고문서관(archives nationales)관리 -사립 고문서관 관리 -고문서관련 문화유산 확산
	미디어개발국	-미디어 관련 업무

19) 참조: [WWW.culture.gouv.fr](http://WWW.culture.gouv.fr)

20) 참조: [WWW.culture.gouv.fr](http://WWW.culture.gouv.fr)

	(DDM)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업무
	도서 및 독서국 (DLL)	-도서 및 독서부문 법률 관리 및 평가 -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관리 -국립도서센터(Centre national n여 livre) 및 공립정보도서관(Bibliothèque public d'information)관리 -독서개발정책 조정 -시립도서관(Bibliothèques municipales) 및 도서대여관(Bibliothèque des Pret)관리 -문화유산 관련문서 보존 -국립도서관-지방도서관 네트워크 조정
	공연예술국 (DMDTS)	-공연예술 창조, 확산 및 양성, 교육 -교육, 창조, 확산관련 조직망 개발 -예술관련 프로젝트 개발 -보조금대상 예술단체 재무 및 행정관리
	박물관국 (DMF)	-예술작품 구매 -소장품관리, 보호, 복원 및 연구 -소장품 공공개방 -국립박물관내 건축 및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전문가 양성정책 개발 -지방정부, 단체소속 1000개 이상 박물관 소장품 관리지원 -예술시장 조사 -박물관 관련분야 국제협력 -국립박물관 관리감독
	조형예술 Délégation (DAP)	-조형예술 정책개발 -조형예술 교육관련 법안 제안 -현대조형예술 창조 촉진 -조형예술 관련 직업개발 및 평가 -공공 현대예술 소장품 조존 및 관리 -조형예술가 재정지원 -보조금대상 예술단체 재무 및 행정관리
	국제업무개발 Délégation (DDAI)	-국제적 문화협력 및 문화다양성 개발 -EU와의 협력촉진 -예술교육정책 평가 및 조정 -문화부문 사회경제연구, 정책연구, 문화관련 통계조사

		-공공문화개발
	프랑스언어 Délégation (DGLFLF)	-프랑스어 권리보장 -프랑스어로 인한 사회결속 강화 -프랑스어 현대화 -언어학적 다양성 촉진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언어 평가 및 촉진
	국립영화센터 (CNC)	-영화, 멀티미디어, 오디오비주얼, 비디오 관련법규 제언
지방 권한 위임 기구	지방문화사무국 (DRAC)	-지역정비 및 공공참여 확산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보조 -문화관련 경제개발 -지역국(derection) 활동 조정 -예술분야별 지원
	건축 및 문화유산 (SDAP)	-각 데빠르망에 설치 -정부의 문화유산 정책 참여 -건축물 및 도시화 자문 -역사적 건축물 보존 등
비서실 산하 업무	문화역사위원회	-문화부의 역사 관련 업무 종합 -문헌연구 및 공공개방 -역사분야 세미나, 회의개최 -역사분야 관련기관 조정 -역사분야 서류수집 및 보존 -문화부 자문
	공공건축관련 부처간 조정업무 (MIQCP)	-중앙 및 지방정부 관할 하에 있는 공공건축의 질 향상 -공공건축물 지원, 자문, 조언, 법안제안
	정책홍보 및 커뮤니케이션 (DIC)	-예술가, 전문가, 시민과 문화부 간 커뮤니케이션 활동담당 -정보지, 문화가이드, 언론잡지 등 편집 -중앙-지방국들 간 커뮤니케이션 조정
	일반행정감사관 (IGA)	-행정개혁업무 담당 -문화부 전반 업무에 대한 문제 분석 및 조정 -공공서비스 관련 구조, 기능감독 및 감사

특징: 현실의 변화에 능동적인 태도 및 중앙 집중에서 지방으로 이전화.

라) 프랑스 문화부 인력현황<sup>21)</sup>

분야 (연말실제인원)	1991년도	1998년도	2001년도
비서실	168	115	125
지역개발 및 활동위원회	49	37	31
일반행정국	513	539	513
고문서보관국	42	56	60
건축 및 문화유산국	225	263	292
도서 및 독서국	51	52	60
박물관국	128	141	127
음악, 무용, 연극, 공연예술국	141	141	139
조형위원회	108	88	94
프랑스 언어위원회	-	10	16
중앙행정부 총인원	1,425	1,442	1,457
DRAC 총인원	1,425	1,775	1,963
지방 건축문화 유산부	0	745	761
중앙부처 총계	4,325	5,404	5,638

특징: 전문 인력의 전공분야에 맞는 업무담당.

21) 참조: [www.senat.fr](http://www.senat.fr)

넷째: 독일 문화공간의 현황

가) 독일 공공극장수와 공연 횟수<sup>22)</sup>

	공연장 있는 기초자치 단체	극장		지역 내 공연 횟수	외부 공연 횟수	객석수(1995년)	
		계	공연장			계	1,000명당
독일전체	119	156	624	60,350	7,241	256,671	9.2
바덴- 뷔르템베르크	14	14	69	6,689	797	24,433	10.1
바이에른	15	19	66	6,497	557	33,418	11.4
베를린	1	10	26	4,129	110	21,502	4.4
브란덴부르크	6	8	30	2,859	281	6,636	11.2
브레멘	2	2	8	972	-	2,551	3.6
함부르크	1	3	12	1,420	55	6,566	3.6
헤센	6	8	21	3,159	200	16,186	10.1
메클렌부르크- 포메른	7	7	30	2,655	161	5,638	9.0
니더작센	9	10	47	4,096	617	17,988	10.9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21	26	98	9,228	1,062	49,957	6.9
라인란드- 팔츠	5	5	22	1,653	231	10,113	17.4
자르란드	1	1	5	579	31	2,554	13.2
작센	11	17	69	6,631	1,019	27,511	15.4
작센- 안할트	9	14	55	4,649	1,305	10,044	10.3
쉴레스빅- 홀스타인	3	3	18	1,689	173	10,368	18.7
튀링겐	8	9	38	3,445	642	11,206	17.7

특징: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문화공간 설립 및 전문 인력의 현장성.

22) 참조: Statistisches Bundesamt, Statistisches Jahrbuch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에서 자치단체란 주민 2만명 이상의 경우를 말함. 공연장이라는 자유무대와 콘서트홀을 포함함.



나) 독일 문화부의 부서별 주요업무

Staatsminister	Minister Director	문화예술 (Kunst und Kultur)	음악
			조형예술
			연극
			문학
		미디어 및 국제업무 (Medien : Internationale Angelegenheiten)	출판
			언론
			방송
			영화
		유산보호 (Pflege des Geschichtsbewusstseins)	유적지
			문서, 도서관 관리
		정책수립 (Grundsatzfragen der Kulturpolitik)	문화재 반환청구
			재정 및 회계
			민간업무

특징: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 및 체계화.

4)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현황

첫째: 지방분권법

지방분권법에 명시되었던 전반적인 지역 공공직책은 1984년 지역공무원을 위한 특별법(1984년 1월 26일 법84-53)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 법은 중앙정부의 공공직책과 유사한 형태로 구체화 되었지만 'loi Galland'(1987년 7월 13일 no. 87-529)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법령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에게는 고용범위의 자율성이 주어졌고, 지역 행정시스템이 완화되었다. 공무원단(corps de fonctionnaires)의 개념이 특별 정관에 의해 관리되는 직종개념으로 대체되었고,

코윈, 데파르트망, 레지옹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된다. 문화부문 고용의 직급에 관한 22개 법령이 지정되었고, 이는 13개의 지역고용분야, 4개의 예술교육분야, 9개의 문화유산 및 도서관 관련분야로 구성된다. 각각의 분야별로 카테고리 A와 카테고리B에 해당하는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직종은 다음과 같다.

카테고리A에는 지역 예술교육기관 director, 예술교육 지역교수, 문화유산 지역관장(conservateurs), 도서관 지역관장, 문화유산 보존 지역 담당관(attachés), 지역도서관 서기, 문화유산 및 도서관 보존의 자격을 지닌 지역 보조원, 문화유산 및 도서관 보존 지역 보조원, 문화유산 재고와 감독에 관한 지역 감독관의 직무가 속하며, 카테고리B에는 예술교육 관련 특별지역 조교(assistants)의 직무가, 카테고리C에는 문화유산 자격을 지닌 지역 에이전트, 문화유산 및 도서관 보존의 자격을 지닌 지역 보조원 등이 속하게 된다. 이러한 분류조항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법규를 적용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인력동원을 수월하게 해 주기 위함이다.<sup>23)</sup> 종합적으로 지방의 소규모 공간들은 문화전문 요원과 지역의 문화예술인으로 조직된 자원봉사자들이 그들만의 문화공간을 꾸려나간다.

## 둘째: 지방정부 문화정책

프랑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업무분야 상으로 일치하는 상위 문화부와 관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권한의 일부를 갖는 내무부 및 도지사와의 관계가 중첩되는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일차적으로는 문화부의 소속부서인 지방문화사무국(DRAC)을 통해서 국가적 문화 어젠다와 도큐멘트의 우선순위를 전달 받는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협력아래 현재의 가시적인 기회를 추구하여 미래의 문화지형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현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부시장이 실질적인 책임을 맡는 가운데 지방선출직 의원(elus)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이렇듯 지방정부는 의원과 행정의 이중구조를 통해 중앙의 DRAC과 SDAP과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다.

23) 지역문화직급(filières culturelles territoriales)은 실제 직급 취득의 어려움이나 일자리의 부족 등으로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련된 기술직(극장, 오페라, 콘서트홀 기술자 및 디렉터)이나 문화관련 사무직, 문서관리자, 문화축매자 등을 간과함으로써 또한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지역문화직급은 전문적 권위와 정체성에 따라 지위와 계급을 부여하는데, 이것이 실제 고용인들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급적 단계만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분배 단계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공동 작업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술 교육 고용범위와 그 범위에 들어갈 예술가들을 정의하는데서 발생하는 괴리와 같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한다.

지방정부는 이와 동시에 내무부로부터 파견된 도지사(prefet)의 관할 하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 정부 차원의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지방에 설치된 타 부처의 특별 지방행정기관들은 각기 다른 부처들의 입장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소는 지방정부의 문화정책 수립에 양면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문화축(Pôle Culture)’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DRAC과 SDAP의 업무를 통합, 조정, 촉진한다.

DRAC의 director가 Pôle Culture의 chef가 되어 1년마다 활동에 대한 평가(bilan de l'activité)를 하게 된다. 이것은 마치 하나의 주제에 대한 집단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1)국립기관 및 데빠뜨망의 건축, 문화유산 기관과의 운영 관련해서는 Pôle의 chef가 관련기관을 모아 정기적인 문화유산 컨퍼런스를 개최하거나 ,

2)공공법인(EP)에 대해서는 Pôle의 chef가 관련기관을 모아 문화부가 정한 문화정책의 방향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Pôle Culture의 설립은 지방문화정책이 지방의 문화적인 측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문화정책, 지역개발, 도시계획, 지역경제 등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청취하고 최선의 대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시도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다) 프랑스 지역문화사업국(DRAC)의 주요활동<sup>24)</sup>

분 야	업 무
조형예술	-회화, 사진, 조각, 음성영상매체 등의 창작 작업과 교육훈련지원 -전시지원과 필요한 정보 및 자문제공 -예술센터, 지역 현대예술기금 운영 -작품구입 및 예술가 작업 공간 재원마련
영화와 음성영상매체	-지역 영화인 단체지원 및 코핀의 극장설치지원 -국립영화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영화발전 협약 체결지원 -초보자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지원
도서 및 독서	-서적보급활동 및 문학창작활동지원 -공립도서관 연대 및 도서관 간 상호협력 강화
박물관	-지역 내 유명 박물관 유지 발전 및 신설, 확장 -예술작품구입

24) 참조: [www.culture.gouv.fr](http://www.culture.gouv.fr)

음악과 무용	-음악 및 안무 창작활동 지원 -배급 및 교육훈련 지원
연극과 공연	-연극창작과 배급환경 개선지원 -지방 전문극단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 -극장신축 및 수리를 위한 시설자금지원
문화유산	-문화유산연구, 보호, 보존 및 관련 업무 총괄 -고고학연구, 보호, 보존 및 관련 업무 총괄 -문화유산 자산목록 작성 -민족학연구, 보존관련시책 추진

특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통점과 차별화의 지원정책.

## 5) 유럽의 대도시 문화공간의 활용

첫째: 프랑스

가)蓬피두

기 능	명 칭	규 모	활 용
전시(장)	현대미술관	17,200m2 (약 5,200평)	현대미술전시
	특별전시장	3,600m2 (약 1,000평)	
	산업창조센터	3,730m2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디자인개발 및 전시 공간
영상(관)	영화박물관		영화필름보존 및 상영공간
공공정보도서관	자료센터	15,000m2	책, 잡지, 음반등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
연구	IRCAM	3,000m2	음향과 음악에 대한 실험조정 연구소
기타	어린이 스튜디오	1,000m2	어린이를 위한 미술실, 놀이터, 탁아소 등
	야외광장		야외전시, 음악연주, 꽃시장 등

특징: 4개의 부서의 운영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미술센터, 산업창작센터, 공공도서관, 음향 연구센터- 매년 6백만여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

## 나) 프랑스의 예술가 지원제도

1951년 설립된 1% 예술위원회는 시각예술 창작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립현대 예술기금은 1976년 창설되었으며 시각예술, 사진예술, 비디오, 산업디자인 분야의 현대예술 작품의 구입, 전파 및 보존을 위한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은 ‘신진 예술가의 발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역량을 보인 작가들의 우수한 작품의 구입 그리고 국제적인 예술 경향의 표현’이다.

문화예술창작 지원 제도 중 상금 수여 제도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프랑스의 문화예술창작 지원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기관에서의 문화예술 관련 상금수여 제도와 문화부의 제도가 병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민간기업의 상금수여제도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 학술원의 경우 1911년 문학그랑프리제도를 시작으로 문학 창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1989년의 경우 1명을 선정하여 상금으로 30만 프랑을 수상하였고, 동 기관에서 1986년부터 폭을 넓혀 불어권 문학의 그랑프리 제도를 시행하여 1989년의 경우 40만 프랑의 상금을 수상하였다.

창작환경의 개선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업은 창작 아틀리에 제공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특히 파리의 구시가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던 예술가들이 도시 재개발사업 및 지구개선사업에 의하여 주거지 및 아틀리에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파리시와 문화부가 매칭 펀드를 통해 파리근교 신도시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 둘째: 독일

### 가) (서)베를린 문화센터

기능	명칭	규모	활용
음악(당)	베를린 필하모닉 홀	26,000m <sup>2</sup>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전용연주장
전시(장)	베를린 신 국립미술관 (21세기미술관)	7,900m <sup>2</sup>	개방형전시장, 상설전시장, 중앙전시장, 옥외조각전시장
	베를린 국립박물관		세계 각 지역의 유물전시
	악기박물관		악기전문박물관
정보도서관	국립도서관	열람석 600석	개인연구실, 서적전시실, 강연장, 도서관학교, 식당 등
연구	국립음악연구소		영화필름보존 및 연구
기타	영빈관, 마테우스교회		

특징: 파리와는 다르게 음악, 미술, 정보, 연구, 학문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도시의 중심과 외곽의 원활한 소통.

## 나) 예술가 지원제도

베를린 예술가프로그램은 1963년 Ford Foundation에서 조직된 것으로 이듬해 DAAD협회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제예술가 촉진. 진흥 프로그램이다. 현재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1000명에 달하는 외국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조형예술, 문학, 음악, 필름, 음악, 퍼포먼스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베를린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 베를린 예술가프로그램은 도시를 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시민에게는 국제적인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조형예술분야:

1990년 유럽의 정치상황은 급격하게 변한다. 통독은 상징적인 의미이자 유럽의 정치현황에 커다란 변화를 촉진시켰다.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갈라진 지역이 국제적인 문화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1992년 이후에 들어와서는 국제적인 평론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유망하고 명성있는 예술가들을 선발하여 베를린의 상황에 대한 예술가적인 접근을 유도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초대된 예술가들은 현재 국제예술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베를린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초대된 예술인으로는 Stan Douglas, Rachel Whiteread, Richard Wentworth, Renée Green, Damien Hirst, Matt Mullican, Douglas Gordon, Eija-Liisa Ahtila, Ann Veronica Janssens, Janet Cardiff, Ilya Kabakov, Micha Ullman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예술작품에 베를린시가 담아내어 한편으론 도시의 역사를 문화로 담아내고 다른 한편으론 국제도시인 베를린을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기에 중심이 된다. 예술가들에게는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지역예술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문학 분야:

글로벌화 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문학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문화교류에 있어서 문학적 대화는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커뮤니케이션을 간증하는 지름길이다. 여기에 초대된 문필가로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Ingeborg Bachmann, Wystan H. Auden, Michel Butor, Susan Sontag, Carlos Fuentes, Juan Goytisolo, Breyten Breytenbach, Mario Vargas Llosa, Gao Xingjian, Jean-Philippe Toussaint, Viktor Pelewin, Juri Andruchowysch, Slavenka Drakulić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문필가가 참여하였다. 일부의 문필가는 베를린에 정착하여 출생지와 거주지가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동구권의 수용과 유럽외적인 문화의 수용에 있어서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이 문학예술가 프로그램은 DAAD갤러리에서 그들이 체류하면서 집필한 문학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대중과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베를린에 영구체류하고 있는 문필가들의 모임 “이주고향 베를린”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들이 집필한 글들은 베를린에 소재한 출판사와 연계하여 간행을 한다.

## 음악분야:

음악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작곡가를 초대한다. 1960-70년도에 참여한 작곡가로는 György Kurtág, Krzysztof Penderecki, György Ligeti, Isang Yun, John Cage und Morton Feldman 그리고 1980년대에는 전자음악이 추가되면서 숫적으로 늘어났다. Luigi Nono→Abb. 2, Bill Fontana, Fast Forward, Shelley Hirsch, Fatima Miranda, David Moss, Gordon Monahan, Sainkho Namtchylak, Carles Santos 등을 들 수 있다. 1991년에는 국제적으로 전자음악의 대부로 알려진 Luigi Nono와 John Cage 그리고 1994년에는 Karlheinz Stockhausen의 초기작품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물론 베를린예술가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작곡가들이었다. 2002년에는 소리와 설치예술이 만나는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Gordon Monahan, Robin Minard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비디오 예술장르와 연합하기도 하였다. Gérard Grisey의 작곡과 비디오 예술가 Kotoka Suzuki 그리고 Emmanuel Witzthum이 그 예이다.

작곡가들은 전형적인 행위예술가들로서 베를린 도시에서 얻은 영감을 예술로 담아낸다. 그 대표적인 예술가들로는 1989년 베를린에 소재한 미술전시장 함부르크 역 광장을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 Fast Forward, 지하철의 소음과 음악을 결합한 Christian Marclay, 체육관에서 음악과 무용수 그리고 체육인이 함께하는 작업을 한 David Moss, 32미터에 달하는 베를린 음악가들과 함께 2001년 교회에서 연주를 시도한 Ellen 도 참여하였다. 이 음악국제예술가프로그램으로 베를린시는 국제문화교류에 중심이 된다.

## 영화분야:

베를린 국제예술가프로그램에 빼놓을 수 없는 분야는 영화이다. 미국의 헐리우드와는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영화제작자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술영화 제작자들에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만남, 그들이 제작한 필름을 선보이고, 베를린 시에서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된다. 영화산업주의에서 실험적이지 전위적인 필름이 설자리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지원은 커다란 힘이 된다. 1980년에 참여한 예술가들로는 Paul Sharits, Ken Jacobs, Ernie Gehr, Ken Kobland와 그리고 다큐멘터리필름제작인 Andrej Tarkowskij와 Jim Jarmusch는 베를린시를 그들의 필름에 중심으로 삼았다. 유럽연합의 확장에 있어서 영화가 미치는 영향이 이 문화교류프로그램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더더욱 이영화국제예술가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작된 필름은 칸느(Chen Kaige, István Szabó, Teresa Villaverde)와 베니스 영화제(Otar Iosseliani)그리고 베를린 영화제(Jon Jost, Jim Jarmusch)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독일 필름과 TV아카데미와 연합하는데, 세미나와 토론회 그리고 상연회를 통해서 현장에서 살아있는 교육을 실행하는데 한몫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최인 DAAD는 2006년부터 “베를린 단편영화제”를 수상하기 시작하였다. 수상자는 3개월간의 베를린에서 감독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인 필름영화제와 연관을 맺게 된다. 2006년도에는 이스라엘 출신인 Rony Sasson가 그녀의 단편영화 "Barburot" (Swanettes, 16mm, 15 min, 헤브리어)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07년도에는 터키 출신의 제작자 Nesimi Yetik가 그의 필름 "Annem Sinema Öğreniyor" (My Mother Learns Cinema, 2006, 35mm, 3 min, 터키어)로 수상자가 되었다.



## 무용분야:

베를린 예술가프로그램은 장학금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장학금은 독일과 국제적인 협회의 기관들 간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004년도에는 이미 무용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베를린 술가프로그램으로 베를린 도시의 문화가 자리하게 된다. 따라서 베를린으로의 초대는 프로그램의 핵심으로서 2003-2006년까지 베를린 예술대학이 협력하기도 하였다. 베를린 예술가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의 협력과 참여로 베를린의 문화공간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베를린 도시의 문화를 국제적인 무대에 올려놓는 계기를 마련한다.







독일은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문화정책을 장려하고 있다. 베를린 예술가프로그램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다양한 예술분야를 도시문화 속에 담아내어 국제적인 면모를 공고히 하고 있다.

## 6) 유럽의 중소도시 문화공간 활용의 예

첫째: 프랑스

가)파리의 북부에 위치한 중소도시 아미앵의 2007-08 프로그램






janvier 2008			
Misia - Lisboarium Misia, J.M. Neto, C.M. Proença ... musique(음악)>jeudi 10 janvier >tarif C		Orchestre de Picardie E. Leducq-Barôme et A.R. El Bacha musique(음악)>samedi 12 janvier >tarif C	
	스페인 까딸랑 지역의 어머니와 포르투갈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수수께끼 같은 매력적인 여인 Misia 가 90년대를 기억나게 해줄 것이다.		Chostakovitch 와 Prokofiev의 전문가 Emmanuel Leducq-Barôme에 의해 지휘되는 빼까르 오케스트라단의 연주
Gavroche, rentrons dans la rue ! V. Hugo, A. Artaud, J. Huthwohl, M. Bozonnet théâtre(연극)>du 15 au 19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Sans filtre N. Amaraoui et M. Burner danse(무용)>les 15 et 16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연출가 Marcel Bozonnet는 말한다 “오우! 이런 더러운 배우들, 이 모든 형형색색의 빛깔을 맛보게 하다니!!!”		Nabih Amaraoui 와 Matthieu Burner는 무용학교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들은 zarb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리고...
Fées S.B. Aubert, F. Deslias, J. Gherrak, P. Demière ... théâtre(연극)>mardi 15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Res / Persona S.B. Aubert, Y. Guillemette et C. Texier théâtre(연극)>jeudi 17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이 연극 ‘요정’에서는 70년대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닫힌 공간 목욕탕에서...		곧 성인이 되는 2000년을 앞에둔 젊은 여성의 고백. 이 연극에는 한 젊은 여배우만이 등장한다.
Quantum - Quintet EB. Leroux, Continuum, J. Bailie, C. Martinière ... danse(무용)>vendredi 18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For all the wrong reasons L. Pauwels, T. Rummens, H. Bartles, E. Edipidi ... théâtre-danse(무용극)>les 18 et 19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Brice Leroux 는 인간의 신체에서 영감을 얻는다.		작가이자 연출가인 Lies Pauwels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Cannibales S.B. Aubert, J-N. Francoise, F. Deslias, Y. Alex ... théâtre(연극)>samedi 19 janvier >tarif exceptionnel 4		Massacre à Paris C. Marlowe, P. Collin, G. Delaveau, F. Picard, F. Bosson ... théâtre(연극)>les 22 et 23 janvier >tarif B	
	S.B Aibert의 삼부작 중 마지막 이야기. 아파트 안에서 비디오와 빛의 벽으로 둘러싸인 채... 한 커플의 이야기...		종교문제로 인하여 신교도들의 대학살이 벌어진 암울한 파리,, 무장한 구교도들...
Orchestre de chambre de Bâle P. McCreesh et A. Kirschlager musique(음악)>vendredi 25 janvier >tarif exceptionnel 1		En sourdine / Peter Pan E. Calcagno, O. Dubois, S. BLanquet, Y. Le Goïc ... danse(무용)>du 29 au 31 janvier >tarif Saison Jeune Public	
	현대적인 만큼 바로크적이고 고전적인 발르 챔버 오케스트라는 20년 사이에 단단한 명성을 쌓아왔다.		동화적이고 모험적인 무용

février 2008			
La seconde surprise de l'amour Marivaux, L. Bondy, P. Sturm, K-E. Hermann, M. Bickel ... théâtre(연극)>les 31 janvier et 1er février >tarif C		IMPORT EXPORT K. Augustijnen, L.R. Albear, M. Bauer, J. Benitez ... danse(무용)>lundi 4 février >tarif B	
	연인에게 서프라이즈는 항상 있는 법...		
Exposition : Le Dessin Eveillé P. Convert, C. Girardet, A. McCall, H. Op de		Giovanna Marini P. Bovi, F. Breschi, G. Marini et P. Nasini	


Beck exposition(전시)>du 8 février au 4 mai		musique(음악)>mardi 26 février >tarif B	
	선과 곡선이 만나는 le Frac Picardie 의 드로잉 전시		
Questo buio feroce P. Delbono, C. Santerre, R.J. Restinghini, F. Sajiz ... théâtre(연극)>les 27 et 28 février >tarif B			
	Pippo Delbono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다른 그의 연극 세계		



mars 2008			
Exposition : Le Dessin Eveillé P. Convert, C. Girardet, A. McCall, H. Op de Beck exposition(전시)>du 8 février au 4 mai		Fifty Million Frenchmen C. Porter, P. Verrot, J. Brennan ... musique(음악)>samedi 1er mars >tarif D	
	선과 곡선이 만나는 le Frac Picardie 의 드로잉 전시		프랑스 무대에서 첫선을 보이는 Pascal Verrot 드문 무대
Un chapeau de paille d'Italie E. Labiche, J-B. Sastre, M. Bonny, C. Gasc ... théâtre(연극)>du 5 au 7 mars >tarif C		Orchestre National Symphonique du Danemark C. Nielsen, N. Znaider, Tchaikovsky, Brahms musique(음악)>samedi 8 mars >tarif exceptionnel 1	
	나뭇가지에 걸린 한 여인의 밀짚모자...		스칸디나비아의 가장 유명한 작곡가 Carl Nielsen의 음악을 덴마크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
27ème Festival d'Amiens, Musiques de Jazz et d'ailleurs		Spiegel W. Vandekeybus, G. Van Poeck, B. Dandoy,	

- musique(음악)>du 10 au 23 mars		L. Aris ... danse(무용)>mardi 11 mars >tarif B	
	재즈와 그 외의 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		무대위에 펼쳐질 20여년간의 Wim Vandekeybus의 끊임없는 연구; 위험, 갈등, 에너지, 힘, 본능...
Angels in America T. Kushner, J. Poniedzialek, K. Warlijowski ... théâtre(연극)>les 14 et 15 mars >tarif B		Tendre jeudi J. Steinbeck, M. Bauer, I. Bonnaud, J-M. Skatchko ... théâtre(연극)>les 26 et 27 mars >tarif B	
	모든 것이 협상의 대상인 새로운 세계에서 던져지는 근본적인 질문들...		배우와 음악가들이 결성한 극단 Sentimental Bourreau가 공연하는 현대 프랑스극
Plic Ploc - Cirque plume - B. Kudlak, R. Miny, F. Esnée, F. Crouzet, J-F. Monnier ... cirque(서커스)>du 27 mars au 3 avril >tarif exceptionnel 3			
			
avril 2008			
Orchestre de Picardie E. Colomer, I. Tchétuev musique(음악)>samedi 5 avril >tarif C		Le conte d'hiver W. Shakespeare, J. Osinski théâtre(연극)>les 24 et 25 avril >tarif B	
	진 빼까르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였던 Edmon Colomer가 초대지휘자로 오케스트라에 돌아오다.		William Shakespeare 의 잘 알려지지 않은 코메디비극

mai 2008		
Jenaer Philharmonie - Orchestre de Picardie N. Milton et G. Mahler musique(음악)>mercredi 7 mai >tarif C		Cher Ulysse J-C. Gallotta, M. Altaraz, C-H. Buffard ... danse(무용)>mardi 6 mai >tarif C
	독일의 Jenaer Phillharmonie와 빠까르 오케스트라의 협연	 1981년 창단 이래도 3번째 프랑스 무대
Andromaque J. Racine, D. Donnellan, N. Ormerod, J. Greenwood ... théâtre(연극)>du 14 au 16 mai >tarif C		Toki - Sankai Juku U. Amagatsu, T. Kako, Yas-Kaz ... danse(무용)>mardi 20 mai >tarif D
	트로이 전쟁의 패배로 절망과 수치의 나라에 선 안드로마크의 운명, 장 라신느 작품	 Sankai Juku, Toki, 공연단
Orchestre de Picardie - P. Verrot P. Verrot, J. Dick musique(음악)>mercredi 21 mai >tarif C		Tricôté M. Merzouki, Compagnie Käfig, AS'N ... danse(무용)>les 26 et 27 mai >tarif Saison Jeune Public
	Hébé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	
Krystian Zimerman K. Zimerman musique(음악)>jeudi 29 mai >tarif exceptionnel 1		
		

juin 2008			
Création 2008 A. T. De Keersmaeker, A. Franco, J.L. Lamers ... danse(무용)>mardi 3 juin >tarif C		Orchestre de Picardie - A. Van Beek A. Van Beek, M. Laforêt musique(음악)>vendredi 13 juin >tarif C	
	현대 무용		네델란드 지휘자 Arie Van Beek 초대 음악회

septembre 2007			
Exposition : Répliques E. Bossut, D. Firman et C. Robert-Tissot exposition(전시)>jusqu'au 28 octobre>무료		Extra Dry N. Amaraoui et M. Burner danse(무용)>mardi 25 septembre >tarif B	
	세 명의 예술가들이 펼치는 인간의 행위와 태도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예술 또는 퍼포먼스		아방가르드적 무용

octobre 2007			
Exposition : Répliques E. Bossut, D. Firman et C. Robert-Tissot exposition(전시)>jusqu'au 28 octobre>무료		Les étourdis J. Deschamps et M. Makeïeff théâtre(연극)>du 2 au 4 octobre >tarif C	
	9월의 퍼포먼스와 동일		2003년에 창작된 이 공연은 프랑스 전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부드럽고 유머가 가득한 진정한 보석같은 스펙터클.
Bojan Z Bojan Z, R. Vignolo et M. Vink musique(음악)>mardi 9 octobre >tarif B		English Chamber Orchestra S. Gonley et S. Chang musique(음악)jeudi 11 octobre >tarif exceptionnel 1	
Bojan Z, 불안정 속에서 영원한 균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사라장의 열정적인	



	그들의 음악적 탐구		무대. 유혹적이고 감수성이 넘치는 비발디의 '사계'를 감상하십시오.
Plus ou moins l'infini A. Bory et P. Soltanoff cirque(서커스)>les 17 et 18 octobre> tarif B		Bruno Leonardo Gelber B. L. Gelber musique(음악)>dimanche 21 octobre >tarif D	
	지난 두 번의 공연에 이어, 111 서커스단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 아찔한 줄 위에서의 공연을 감상하십시오.		불, 열정, 서정, 부드러움, 우아함의 브뤼노 레오나르도 젤베르. 브라암스의 멋진 음악을 위하여...
Le Roland 1 - production H. Tillette de Clermont-Tonnerre et L. Pajon théâtre(연극)>les 25 et 26 octobre >tarif A		Le Roland 2 - création P. Crosnier, V. Debost, L. Ferault, A. Jaillet, L. Pajon, N. Senty ... théâtre(연극)>du 23 au 26 octobre >tarif A	
	태생- 진실을 찾기 위하여 사람이 동물이 된다면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가?		창조
Biyouna Biyouna musique음악>mercredi 24 octobre >tarif C		Orchestre de Picardie K. Bakels et B. L. Gelber musique(음악)>vendredi 26 octobre >tarif C	
	알제리 영화감독인 Nadir Moknèche과 이미 세편의 영화음악을 작곡한 알제리의 진정한 스타 Biyouna.		네델란드인 Kees Bakel 이 지휘하는 빠카르디 오케스트라단의 방문 공연

décembre 2007	
David Eugene Edwards - Woven hand - D. E. Edwards, O. Garrison, P. Van Laerhoven et P. Humbert	La maman bohème - Médée D. Fo, F. Rame, V. Tasca et D. Bezace théâtre(연극)>du 4 au 7 décembre >tarif



musique(음악)>samedi 1er décembre >tarif B		C	
	폭풍 전야의 고요. David Eugène Edwards는 시인처럼 음악을 연주한다. 그의 음악은 떨리는 침묵처럼 어둡고 변화무쌍하다.		웃어야 한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도 웃어야 한다.
L'Italienne à Alger G. Rossini, P. Verrot et S. Anglade musique(음악)>les 4 et 6 décembre >tarif exceptionnel 2		Le Cid A. Ollivier, M. Rumeau, D. Jeanneteau ... théâtre(연극)>du 12 au 14 décembre >tarif C	
	향수로 가득한 감각의 진주로 수놓아진 붉은빛 치맛자락 같은 음악, 여성의 매력이 가득 넘치는 음악...		17세기 프랑스 연극의 대표 극작가 코르네이유의 열정적인 사랑과 가문의 명예 사이에서 갈등하고...그들앞에 놓인 운명은...
Quatuor Prazak V. Remes, V.Holek, J. Kluson et M. Kanka musique(음악)> jeudi 20 décembre >tarif D			
	프라그의음악학교에서 만난 우정의 열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그룹 중에 하나인 Prazak 현악 4중주단의 연주		

특징: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 연극, 무용, 음악회, 전시회, 서커스 등- 으로 연중행사. 장르의 다양성으로 문화욕구에 대한 충족 및 연계 프로그램운영.

나. 프랑스의 남부 도시 툴루즈(Toulouse) 근처의 미디 피레네 청소년 문화의 집(MJC Midi-Pyrénées) 2007년 11월 프로그램

구 분	날짜/장소	내 용	가격/info
Stage (워크숍)	du 01-01-2007 au 25-11-2007 Salle de danse(무용실)	아프리카 무용 워크숍	Tarif et contact: Tarif: 35€ le stage, réservation au 06 79 72 21 84

			ou 05 61 97 65 12
Exposition (전시회)	du 05-11-2007 au 16-12-2007 Médiathèque intercommunale Tarn et Dadou à Briatexte 81396	eu de mains 사진 전시회 Réalisé par le club-photo MJC de Labruguière	Tarif et contact: Téléphone médiathèque: 05 63 58 58 66
Exposition (전시)	du 06-11-2007 au 23-11-2007 à la MJC de Roguet (Toulouse)	Matières et couleurs corse Peintures de Laurent TRAMINI. 미술 전시회	Tarif et contact: MJC : 05.61.77.26.00
Exposition (전시회)	du 07-11-2007 au 28-11-2007 à la MJC de Castanet Tolosan (31)	Catherine Keun. Monique Chabbert Luce 무용	Tarif et contact: MJC : 05.62.71.70.47
Exposition (전시회)	du 09-11-2007 au 16-01-2008 A la MJC de Verdun sur Garonne (82)	수공예품 전시	Tarif et contact: MJC de Verdun sur Garonne Entrée libre 05.63.27.01.70
Expositio( 전시회)	du 14-11-2007 au 28-11-2007 à la MJC de Puylaurens	환경 전시회 전시자: Wicki Gerbranda et Bernard Claessens, 프로젝트명: “나는 우리의 지구를 지킨다”“cette exposition s’inscrit dans le projet ” Je protège ma planète”.	Tarif et contact: accès gratuit contact: 05 63 70 24 22
Semaine du jeu (놀이)	du 19-11-2007 au 24-11-2007 A la MJC de Léguevin (31)	카드 놀이를 비롯한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5세부터~) Semaine du jeu Initiation, fabrication et tournois de jeux (tarot, jeux du monde, jeux de bistrot...) Tout public à partir de 5 ans.	Tarif et contact: Gratuit, MJC de Léguevin 05 34 57 46 38 mèl : mjcleguevin@wan adoo.fr
Concert (콘서트)	le 23-11-2007 MJC de Mazamet à 21h	Momar Afrodream Festival « TRAVERSEES AFRICAINES » et partenariat avec le festival de la CIMADE	Tarif et contact: 4 € - 8 € 10 rue de Juillet 81200 Mazamet

		<p>« Voyages, regards croisés sur les migrations » 아프리카 음악인들의 밤</p> <p>1부-단편영화상영-음악영화 CINE-CONCERT - Film illustré en direct par le groupe MOMAR AFRODREAM (LeClandestin Zeka Laplaine 1996 / Zaïre, Portugal / 17 min / N&amp;B)</p> <p>2부-대화의 시간 DISCUSSION ECHANGE sur le thème « Voyages, regards croisés sur les migrations » - durée : 30/40 min</p> <p>3부-콘서트 MOMAR AFRODREAM en CONCERT durée : + ou - 1h</p>	<p>Seulement 70 places ! Pensez à réserver ! 05 63 98 68 02</p>
Concert (콘서트)	<p>le 23-11-2007 MJC Albi / Le Noctambule à 20h30 - 13 rue de la République</p>	<p>Taxi Brouss' 택시부루스이 경계없는 음악 레게에서 락 그리고 왈츠까지 le Taxi Brouss'. Sénégalais, Caldoches, Malgacho-Polak et sans oublier Toulousains se retrouvent dans le même taxi-brousse.</p>	<p>Tarif et contact: 8 € / 11 € - MJC - 13 rue de la République 81000 ALBI - 05-63-54-20-67</p>
Théâtre (연극)	<p>le 23-11-2007 A 20h30 au foyer rural d'Odos (65)</p>	<p>Les pas perdus L'Atelier théâtre du centre Maintenon de Bagnères présente "Les pas perdus" de Denise Bonal Denise Bonal의 “잃어버린 발자국” ‘어느 기차역; 떠나고,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고...기다리고, 희망하고, 절망하고, 웃고, 울고,,,그리고 살아간다!’  엇갈리는 운명, 유머와 감동이 있는 드니즈 보날의 인간미가 넘치는 작품</p>	<p>Tarif et contact: Entrée gratuite MJC Odos : 05 62 45 07 42</p>
Spectacle (스펙터클)	<p>le 25-11-2007 A 16h au forum de Graulhet</p>	<p>Ballade Africaine 아프리카 페스티벌을 맞이하여 그로에 청소년문화의 집은 “발라드 아프리카”를 기획한다.</p>	<p>Tarif et contact: 5 € - entrée libre pour les - de 12 ans contact MJC de</p>

		<p>합창단, 무용수, 연주가들이 어우러진 공연</p> <p>la MJC de Graulhet organise une manifestation intitulée "Ballade Africaine". Ce spectacle vivant regroupe trois formations : 4 percussionnistes, 50 danseuses et 35 choristes.</p> <p>Manifestation complétée par une exposition sur le thème de l'Afrique noire.</p>	<p>Graulhet</p> <p>05.63.42.16.25</p>
<p>Court-Métrage (단편영화)</p>	<p>le 27-11-2007 à la MJC Roguet (Toulouse) à partir de 14h30</p>	<p>16번째 단편영화제 두편의 영화 상영 Festival Séquence court-métrage Dans le cadre du 16ème festival Séquence court-métrage, l'association Séquence propose deux projections des courts-métrages à la MJC Roguet Saint-Cyprien.</p> <p>Le 27 nov./14h30 "Programme pour adolescents". Ce programme sera constitué des réalisations européennes, françaises et même de créations d'ateliers des lycées et collèges de la région Midi-Pyrénées. 미디-피레네 지역의 중·고등학생들과 유럽의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p> <p>Le 28 nov./ 15h00 "Programme autour de Noël" Pour enfants de 4 à 10 ans. Un délicieux programme plein de lutins, de Père Noël, de jouets pour les enfants sages...et les autres! 4~10세 사이의 아동들을 위한 영화 산타할아버지와 착한 아이들을위한 엄청난 선물들...</p>	<p>Tarif et contact: Tél : 05.61.77.26.00</p>
<p>Slam (음악)</p>	<p>le 27-11-2007 Le Noctambule / MJC Albi à 18h30 - 13 rue de la République</p>	<p>"드디어 슬람" CD 출시 음악콘서트 루이 라솔 고등학교 출신의 34명의 젊은이들의 그룹 Scène slam - sortie du CD "enfin slam" Originaires du Tarn, un groupe de 34</p>	<p>Tarif et contact: Entrée libre - MJC Albi 05-63-54-20-67</p>

		jeunes issus du Lycée Louis Rascol, a travaillé le slam pendant 6 mois avec Eric Cartier (Vibron).	
Contes (동화)	le 27-11-2007 MJC - ECLA - 24 avenue Jean Jaurès - 65800 Aureilhan à 20h30	피레네 지역의 동화 모음 Chaîne de contes en Pyrénées	Tarif et contact: MJC : 05-62-34-08-46 www.mjcaureilhan.fr
Concert (콘서트)	le 30-11-2007 MJC GAILLAC	그룹: Les Z'apéros Recital de guitare de flamenca avec stephane BRAUER(기타리스트) avec la participation de la danseuse anne CABRIER(무용수)	Tarif et contact: 3 euros : tel 05 63 57 03 70
Concert (콘서트)	du 30-11-2007 au 01-12-2007 à la MJC de Roguet (Toulouse)	그룹: "Cantar" Musiques et paroles de la cordillère des Andes à la cité de Buenos Aires. Mercedes GARCIA : Chant, textes. - Paul PACE : Guitare, voix, sons.  라틴 아메리카의 시, 산문, 소리, 동화, 문학, 노래, 음악의 어우러짐 '자연, 바람, 인디언의 신비, 침묵은 인생, 사랑, 단어, 소리를 되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고독과 유배의 끝자락까지 흘러간다.	Tarif et contact: Tél : 05.61.77.26.00
Spectacle musical  (음악 스펙터클)	le 30-11-2007 à la MJC de Montastruc à 21h	무대위의 세 시선: 가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스트  마리오네뜨와 인물들이 세상의 조그마한 것들을 이야기 한다.  Sur scène, trois regards, une chanteuse, un pianiste, un violoncelliste et tout un petit monde où évoluent des marionnettes-personnages qui racontent leur passage sur terre.	Tarif et contact: MJC : 05.61.84.73.23 Plein tarif : 10 € - Adhérents / réduit : 8 € - Enfants / ados : 4 €

특징: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거주공간과 인접한 문화공을 활용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참여유도. 인구 5-10만명이 있는 곳에 문화의 집 소재.

둘째: 독일 남부의 프라이부르크시(인구 20만명)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이 도시는 500년이 넘는 대학의 역사가 말하고 있듯이 공공기관과 예술가집단과의 협력이 오랜시간을 걸쳐 체계화 되어 있다. 인구 20만의 소도시인 프라이부르크에 소재한 공공문화예술공간은 60개가 넘는다. 시립박물관, 시립극장, 시립음악당을 비롯해 산하 단체와 협회가 산재해 있다. 시민융합형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는 E-Werk을 들수 있다. E-Werk은 시에 속한 공공건물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공간이다. 일명 Arbeitskreis Alternative Kultur, e.V. (AAK)는 1981년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것으로 프라이부르크시를 문화의 도시로 만들어 간다. 이 협회의 목적은 문화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문화의 사회적인 역할을 감안한 이 문화예술복합공간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AAK협회는 프라이부르크 시립극장과 함께 1990년부터 “프라이부르크국제연극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96년부터 E-Werk은 “프라이부르크 국제춤 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2006년 부터는 독일 국영방송국과 함께 “재즈축제 Le Gipfel du Jazz”를 개최하였다.

현재 40명에 달하는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협회는 회장 Marion Bär, 대변인 Bernd Kammerer와 Stefan Wiemers, Oliver Lange, Sven Kestel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의 회원들은 문화형성과 문화와 사회적인 교육, 문화적 만남을 통한 사회적 경험의 교환과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고자 출발한 비영리단체이다. 기금은 프라이부르크시와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E-Werk은 프라이부르크에 소재한 문화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7명이 넘는 미술가들의 작업실과 제즈와 락 음악학교, 춤과 무용학교, 연극배우 학교, 소극장, 실험연극공간이 연합한다. E-Werk은 문화공간으로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과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가가 예술가를 초대한다”라는 협회의 슬로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와 무용, 연극, 음악, 퍼포먼스 등 각 분야에 기획전문가 할약하고 있다.

## 무용분야:

E-Werk 오랜 기간 동안 프라이부르크에서 무용학교로 사용되었던 공간이다. “울동-아트”라는 이 무용학교가 현재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무용과 춤 분야의 목적은 프라이부르크 시민에게 자유참여를 유도하여 후진양성과 무대연출가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둔다. 전문무용수와 전문가를 초대하여 관객과 호흡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Michael Langeneckert Rebound, Angelika Ächter, Arte Schoki, Hideto Heshiki 등이 초대되었다. 청년무용수와 기획자에게는 퍼포먼스와 울동-예술로 수용하여 발표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Oliver Lange, Sabine Noll, Sandra Schöll, Marion Dieterle는 그들의 예술을 E-Werk에서 선보인 청년기획자이기도 하다.

“춤축제”는 국제예술행사에 속한다. E-Werk에서 선보인 것으로는 Sasha Walz/Berlin; Katie Duck/Amsterdam; Meg Stuart, Karine Ponties, Lilia Mestre/Brüssel; Fureurs CNDC L'Esquisse/Angers; Julian Hamilton/Gerona; Déjà Donné/Prag; Angels Margarit/Barcelona; Michele Noiret/Brüssel; Yolande Snaith/London; Anzu Furukawa/Berlin/Tokio; Dominik Borucki/Las Palmas; David Zambrano/Venezuela; Ultima Vez/Wim Vandekeybus/Brüssel; Hans Hof/Amsterdam; Lanonima Imperial/Madrid, Nigel Charnock/London; Sol Picó/Barcelona; Erna Omarsdottir/Reykjavic 등이 있다. 총감독은 Karin Hönes & Wolfgang Graf가 맡고 있다.

## 연극분야

E-Werk은 프라이부르크 무용그룹에게 발표할 기회를 제공한다. 타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예로는 Cargo Theater, Theater R.A.B., Said Mola's actors gang, Barbara Zimmermann과 그녀의 Ensemble, Pan.Optikum 등이 있다. 사업계획은 매년 10월에 짚는다. 연극축제는 이 협회의 핵심적인 국제적인 행사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프라이부르크 국제연극축제”는 지속되고 있다.

연극축제 프로그램:

1996: „마스크, 인간, 형상“, 형상연극축제  
 1997: „건너뛰기“ 소단위 지역들의 축제  
 1998: “무대에서 영화”  
 2000: „Partout“, 프랑스 주빈국  
 2002: „Test East“ 동유럽 주빈국  
 2006: “믿음”, 터키. 등에도 알 수 있듯이 주제는 국제와 프라이부르크 도시를 연결하도록 짜여져 있다.

## 음악분야

E-Werk에서는 재즈와 팝음악을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소리작품의 일환으로 프라이부르크 정기 연주회를 개최한다. Ensemble SurPlus, James Avery; Profectio, Roland Breitenfeld; Holst Sinfonietta, Klaus Simon; The F-Orchestra, Lukas Lindenmaier와 Harald Kimmig등이 연주를 하였다. 또한 E-Werk은 2006년 최초로 독일국영방송국과 함께 “Le Gipfel du Jazz”라는 재즈축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연주되는 음악회는 무료 입장이다. 2007년에는 동유럽이 주빈국으로 초대되었다.

## 조형예술분야

E-Werk프라이부르크는 예술가에게 생산과 전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과 교육자에게는 현장교육의 장소로 활용된다. 이 조형예술분야는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작가들간의 교류와 공동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다. 또한 독일전역과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결망을 제공하여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꾀한다. 이 조형예술분야는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예술가집 포럼(E-Werk에 소속된 예술가들의 작업실) 2. 게스트 아틀리에(예술가집은 타지역 작가와의 교류를 촉진한다. 매년 타지역의 예술가를 선정하여 거주 및 작업실을 제공한다.) 3. 전시공간(오픈스튜디오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4. 멀티미디어 컨셉(위에서 언급된 구성요소를



총집결하도록 컨셉을 만든다)

E-Werk의 프로그램 2007년 11월

킵-머릿속의 예술 07 | 23.11.2007 16:00 Uhr - 22:30 Uhr

예술과 학문의 대화/ 언어-리듬-소리

킵-머릿속의 예술 07 | 24.11.2007 09:30 Uhr - 18:00 Uhr

예술과 학문의 대화/ 언어-리듬-소리

2007년 12월 프로그램

인터컬처페스티벌 “정체성” | 07.12.2007 20:00 Uhr

TACOLAND

인터컬처페스티벌 “정체성” | 08.12.2007 20:00 Uhr

VÖLKERBALL

인터컬처페스티벌 “정체성” | 09.12.2007 16:00 Uhr

GROCOIO (춤)

특징: 조직의 전문화 및 연계프로그램. 국제성과 지역성의 융합.

## 제3장 문화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1. 충청남도내 문화공간의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충청남도내의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충청남도는 행정복합도시와 문화도시가 상호간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천안과 청양 그리고 당진의 건축적인 문화공간은 국제적인 수준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는 열악한 현실이다.

충청남도내의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는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급선무이다. 프랑스와 독일이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는 있지만,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문화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하다. 이러한 공동체와 차이가 가능한 이유도 문화와 예술개념에 대한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방식과 행동양식이 풍습과 관습, 종교와 학문, 언어와 역사에서 구체화 되지만, 이러한 방식과 양식이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정의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인간에 의하여 구축된 모든 것이 문화라는 그들의 이념에는 항상 행동강령이나 상징적인 내용이 한 집단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담고 있다. 따라서 문화는 언어와 윤리, 사회와 종교, 경제와 학문, 미술과 문학에 있어서 기능의 범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과 당진과 청양에는 지역의 자생적인 놀이, 축제, 생활관습 등이 자연조건과 경제와 풍토적인 환경 등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문화적인 조건과 행사가 자생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문화가 지역의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이유는 단발적이라는 것과 단합과 화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문화행사를 전문화 시키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문화행사를 공식화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전문연구원의 역할은 행사의 가치와 평가를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홍보와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양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문화예술 공간은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프랑스 북부의 아미앵과 독일 남부의 프라이부르크는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도민의 숫자보다도 더 적은 소도시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유럽의 소도시에 속한 이 도시의 특징이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제적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들의 문화정책이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 한다. 특히 공공건물의 활용으로 기획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었고, 전문프로그램머의 역할은 건축에서가 아니라 지역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에 치중하게 된다. 대중을 배려하고 국제성을 감안한 전문성이 행정과 전문 인력의 원활한 관계에서 살아난다. 프랑스 툴루즈 지역의 피레네 청소년문화의 집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안과 당진과 청양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함께 공유하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들은 지역출신의 예술가들에게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를 방지하고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기 지기 위해선 지역의 청소년들이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년층에게는 전래되고 있는 무형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할 것이다. 공공기관에 지역민의 특성이 담아지고 있는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가 귀감이 된다.

공연과 전시회는 시민들의 문화적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천안과 당진과 청양의 문화공간은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을 주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그 사회·문화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주의 할 점은 한쪽에 치우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곳은 공연예술 위주로 극장을 활용하고 어떤 곳은 지역 공공 행사를 위한 장소로만 사용되며 어떤 곳은 교육적 또는 사회적 역할에만 집중한다. 이렇듯 한쪽으로의 방향 집중은 결과적으로 문화공간의 비효율적인 활용 사례이다.

문화예술 공간의 활용도: 과연 우리나라의 지방 문화예술회관의 가동율은 어떠한가. 그 기능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의 활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 순수 기능보다는 자치단체나 외부단체의 집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그 시설

의 순수기능인 공연이나 전시 기능 보다는 시·군청의 행사 진행이나, 정치적 목적의 집회, 예비군·민방위 등의 실내 교육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공간 활용은 부차적인 요소로 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간의 적절한 활용이나 공간의 수입창출을 위한 대여의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내용의 과반수는 대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의 문화예술회관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듯이, 천안과 당진과 청양의 경우는 프로그램기획과 실행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저하게 미약하다. 더 심각한 것은 문화 창작 활동의 근거지인 공간이 대관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천안과 당진과 청양의 문화공간의 활용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의 문화적 욕구가 파악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지역민의 발길을 문화예술회관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주민들의 문화예술적 취향을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이 연구결과물을 실천에 옮기는 전문 기획자가 상주해야 하며, 문화행사를 교육하고 홍보하는 전문 홍보팀이 구성되어야 한다. 천안과 당진과 청양의 문화예술 공간의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단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2. 충청남도내 문화예술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 1) 천안 문화예술회관에 적절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안

-천안 미술 전시 기획 제안:

가. 천안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문화회관 전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교의 미술교사와 학생 그리고 미술관이 함께하는 형태의 미술전시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나. 회화나 조각 등의 전시는 많지만, 미디어와 퍼포먼스 혹은 다매체 전시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겨울에 미디어 전시를 개최하고, 천안에 거주하거나 천안출신의 작가를 묶어내는 전시, 전국규모의 청년작가 전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전시로 서울로 진출하려는 지역의 유능한 예술가들을 체류하게 한다.

다. 천안의 축제를 문화회관에서 집약하는 전시도 필요하다. 시민참여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 천안 시민문화회관 기획공연 제안

월	공연	장소
1	해외 무대예술 공연	대극장
	신년 음악회	대극장
	가족 연극	소극장
	어린이 연극 만들기	소극장
	판소리 춘향전	소극장
2	인형극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소극장
	해외무용	대극장
	천안 시립교향악단	대극장
3	서커스	대극장
	콘서트	대극장
	연극	소극장
	해외 교향악단 초청공연	대극장
4	오페라	대극장
	아동극	소극장
	가야금	대극장

	뮤지컬	대/소극장
	어린이 음악극	소극장
5	어린이축제	대/소극장 야외극장
	무용	대극장
	발레	대극장
	연극	소극장
6	악극	대극장
	천안 시립 국악단	대극장
	아동극	소극장
	마당놀이	야외극장
7	무용	대극장
	어린이 난타	소극장
	피아노 콘서트	소극장
	천안 시립교향악단	대극장
8	해외 오페라	대극장
	뮤지컬	대극장
	어린이 뮤지컬	소극장
	가족 연극	소극장
9	대중가요 초청공연	대극장
	인형극	소극장
	해외 오케스트라 초청	대/소극장
	비보이 공연	소극장/야외극장
10	Rock 콘서트	대극장
	가을맞이 낭만 콘서트	대극장
	뮤지컬	대/소극장
	연극	소극장
	클래식 독주회	소극장
11	연극페스티벌	대/소극장
	가곡의 밤	대극장
	천안 시립 무용단	대극장
12	연말 음악콘서트	대극장
	재즈 음악회	소극장
	연극	소극장
	매직쇼:마술	소극장
	뮤지컬	대극장

천안은 인구 50만이 넘는 광역시 규모의 대도시이다. 그만큼 문화 향수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공연의 흐름은 뮤지컬의 비중이 높아졌다. 대중의 선호도가 뮤지컬로 옮겨간 후 서울의 대극장들에서는 해외의 우수한 뮤지컬을 대거 기획하고 있다. 천안의

도시규모로 보아 뮤지컬에 대한 충분한 문화 수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지역의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또는 기타 음악, 공연 단체들의 공연 기회를 자주 기획하여 지역민들의 애착심을 길러주고 지역의 음악·예술인들에게도 자부심을 길러 주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회관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므로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을 규칙적으로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외에도 대관을 통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전시공간을 통한 우수한 전시를 유치하고, 공간의 공실율이 없도록 좋은 문화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로 한다.

비수기의 공연회수가 낮은 것은 재정적 이유가 가장 큰 걸림돌일 것이다. 공연장 운영상의 이유로 이러한 공연 편중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편차가 좁혀져 일 년 내내 동등한 수준의 공연이 균등하게 공급되었을 때, 관객들이 언제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공연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정 프로그램이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예술단체와의 공동제작 공연을 정례화 하는 것은 지역민을 관심을 배가 시키고 고정 관객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야외 공간이 있는 경우 야외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야 한다. 야외공간은 일정 기간을 제외하며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야외공연이 전혀 불가능한 겨울 철을 제외하고는 매주 야외에서 공연을 상연함으로써 주5일 시대를 맞은 지역민들의 주말을 보내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명소로 개발한다면 관객개발의 차원에서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야외공간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특히 공연관람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막연한 수준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잠재관객, 또는 공연관람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는 관객들을 실질적인 관객으로 만드는데 있어 유효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2) 당진 문화예술회관에 적절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안

### - 미술전시

가. 당진군의 축제행사를 전시로 묶어낸다. 축제는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전시는 자료로 남기 때문에 후속 홍보효과와 시민 참여형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중고등학교와 연계하는 전시를 기획한다. 학생과 미술교사 그리고 문예의 전당이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가 필요하다. 학교의 미술수업의 일환으로도 가능하다.

다. 지역에 거주하는 작가와 지역출신의 작가를 발굴하는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반면에 노인이나 타계한 지역출신의 작가들의 업적을 기르는 사료발굴 작업을 동시에 한다. 이러한 발굴 작업은 지역민에게 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된다.

라. 당진군에 있는 여러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국내외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당진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일상을 예술작품에 반영하는 방법이자 당진군의 위상을 국제적인 무대에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 - 당진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제안

월	공연	장소
1	해외 무대예술 공연	대극장
	신년 음악회	대극장
	가족 연극	소극장
	어린이 연극 만들기	소극장
2	발렌타인 콘서트	소극장
	어린이 뮤지컬	소극장
	지역 음악인 프로그램	대극장
3	난타 초청 공연	대극장
	콘서트	대극장
	연극	소극장
	가족 뮤지컬	대극장
4	오페라	대극장
	중국 서커스 초청	대극장
	합창단 공연	대극장
	뮤지컬	대/소극장
5	어린이축제	대/소극장 야외극장
	뮤지컬	대극장
	무용	대극장
6	연극	소극장
	뮤지컬	대극장
	음악인 독주회	소극장
	해외 초청 무용	대극장



7	신비한 마술 공연	대극장
	해외 공연	대극장
	어린이 음악회	소극장
	지역 교향악단/합창단초청	대극장
8	마당극	야외극장
	어린이 뮤지컬	대극장
	가족 연극	소극장
9	클래식 연주회	대극장
	인형극	소극장
	외국인 축제	대/소극장
10	오페라 공연	대극장
	음악인 초청 연주회	
	가을 음악 콘서트	대극장
	가족 뮤지컬	대/소극장
11	영화 페스티벌	대/소극장
	음악인 독주회	소극장
	지역 교향악단/합창단초청	대극장
12	송연 음악회	대극장
	뮤지컬	대극장
	판소리	대극장
	크리스마스 연극	소극장

당진 문예의 전당의 경우 충남에서도 천안 다음으로 대체적으로 공간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당진의 인구는 10만 여명으로 외국의 경우 10만 여명의 인구가 있는 곳에는 공연이나 전시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당진의 경우 지역의 규모와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자체의 기획 공연율을 높이고 주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적극 유치하며 대관율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공간을 찾는 것은 다양하고 흥미로운 공연이 자주 공연될 때 사람들이 찾게 된다. 지역민의 관람인 수가 적다고 해서 문화 행사나 공연을 줄이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지역민의 성향을 고려한 공연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 3) 청양 문화예술회관에 적절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안

#### - 미술전시

청양에는 2006년 문을 연 문화예술회관이 있다.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전문기획자가 급선무이다. 이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 및 수행한다.

가.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미술전시를 기획한다. 학생과 미술교사와 그리고 전문기획자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전시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전시공간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나. 청양에는 20-40대의 군민들에게 미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줘야 한다. 생업에 종사는 사람에게 고급화된 미술품 보다는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체험하고 경험하는 현장을 전시로 묶어낸다.

다. 전문기획자는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능한 청년작가를 섭외하여 당진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미술행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라. 청양의 축제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축제행사를 담은 사진공모전 혹은 축제행사에 사용한 사물 등을 전시장에서 진시하여 시민의 관심을 외부에서 실내로 유도한다.

- 청양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제안

월	공연	장소
1	어린이 뮤지컬	대극장
	신년 음악회	대극장
	농촌 가족 연극	소극장
2	합창단 초청공연	소극장
	지역 예술인의 밤	소극장
	어린이 창작백일장	대극장
3	동화 연극	대극장
	콘서트	대극장
	가족 뮤지컬	대극장
4	노인 노래자랑	대극장
	서커스	대극장
	오케스트라 연주회	대극장
5	어린이축제	대/소극장 야외극장
	대중가수 초청공연	대극장
	뮤지컬	대극장
6	지역 유아 합창대회	소극장
	지역 농악단 초청	대극장
	해외 음악회	대극장

7	연극	대극장
	천안 시립 국악단 초청	대극장
8	마당극	야외극장
	어린이 뮤지컬	대극장
	지역 국악인 음악회	소극장
9	클래식 연주회	대극장
	인형극	소극장
	외국인 축제	대/소극장
10	뮤지컬	대극장
	지역 청소년 예술제	대극장
	가을 음악 콘서트	대극장
11	음악인 초청 공연	대/소극장
	지역 교향악단/합창단초청	대극장
12	송연 음악회	대극장
	뮤지컬	대극장
	국악 한마당	대극장

청양 문화예술회관은 2006년 10월에 훌륭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화 공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관청의 행사나 일부 일반 대관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방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의 문제점을 골고루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수 백억원을 투자한 공간이 사람들이 드나들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을 역력히 드러내 준다. 특히, 문화행정의 부재와 지방 재정의 취약성은 훌륭한 건물을 지어놓고도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선적으로 파견 공무원의 문화행정 교육이 절실하며, 충남 타 지역의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단체장이나 관련 사무직 직원을 전문 행정인으로 투입하는 것도 빠른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최소의 공연 기획을 우선 배정하고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최대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3. 지역 문화예술 발전 전략을 위한 제언

#### 1) 지역 문화·예술 기획자의 양성 및 교육

문화예술의 시대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의 부재는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문화

예술의 창조와 재창조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문화 공간의 운영은 공간의 행정인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문화공간의 운영에 문화전문가들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의 운영 현황을 보면 문화행정 전문가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공간의 전체적인 계획을 총괄하는 기획자의 능력은 곧 문화공간의 효율적이고 훌륭한 행정의 주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하고 능력 있는 문화 기획자의 배치는 문화공간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 문화부나 서울의 주요 문화공간의 기획자들이 또는 문화 교육관계자들에 의한 지방의 문화공간 기획자의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히 실행에 옮겨야 할 과제이다. 문화 기획자의 양성은 다음에 사항을 훈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소속된 문화공간의 연간 정책을 효율적으로 입안 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문화공간 및 추진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 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원활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홍보 및 진행의 효율적인 방법을 습득하여야 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 ④ 공간 운영 전체 또는 각 프로그램의 재정적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줄 알아야 한다.
- ⑤ 지역과 주민의 특성을 살려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 ⑥ 지역의 타 문화단체 또는 문화·예술인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의견을 교류·수렴하여 문화공간의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 하여야 한다.
- ⑦ 지역의 새로운 문화현상을 수집·관리하고 프로그램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⑧ 대도시의 문화공간의 운영을 항상 주시하고 새로운 문화현상을 빠르게 습득하여 지역의 문화행정에 빠르게 적용하는 기획력을 기른다.
- ⑨ 공연 및 전시회의 기획은 물론 지역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능력을 기른다. 예) 공연 워크숍/무대미술창작교실/향토문화교실/교양강좌 등
- ⑩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⑪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전략적인 기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기획자의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기 획	내 용
문화예술정책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흐름을 습득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그램 기획	공연·전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원활한 운영에 대한 기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산 기획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예산의 마련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기획자는 연간 재정운용에 대한 적절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한다. 또한 문화공간의 수익과 관련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문화예술의 교류	문화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지역 문화공간의 성패는 얼마나 지역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있다.
단기적/장기적 목표 설정	문화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전략 기획에 의해 빠른 시간에 지역민들이 공간을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문화는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현상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2~3년 후의 전략까지도 세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안을 세운다.
평가	분기별 또는 연도별 평가안을 마련하여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는데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의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기획은 결론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문화공간의 규모와 예산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능력이다. 결국 해당 문화공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설 기반, 유용 인력, 실행 자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훌륭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 기획이다. 문화예술회관의 기획은 소통의 기반이므로 간결해야 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최근 5년간 지역문화원지원현황

연도	구분	지원 대상	지원액	비 고
2002 (국고)	사업비	문화원 213	4,343,000	1개원당 15,000~21,000 특별지원사업등 110,000
	향토사료비	문화원156	1,060,800	1개원당 6,800
	시설비	문화원22	1,542,000	22개원(영등포, 금천, 대구 동구 팔공, 대전중구,동두천,보은,진천,서산,여수,영광, 경산,경주,문경,김해,인천,광명,서산,청양, 진채, 안산, 거제, 해남)
	계		6,945,800	
2003 (국고)	사업비	문화원 213	4,759,500	1개원당 17,000~21,500 추가사업비1개원당 2,500
	사무국장	문화원211	1,022,470	1개원당 5,000~2,500
	인건비	문화원16	1,117,500	16개원(기장,부평,시흥,청주,대천,온양,예산 완주,고창,김제,장흥,진도,신안,영천,영덕,봉 화,거창,사천)
	계		6,945,800	
2004 (국고)	사업비	문화원217	3,776,500	1개원당 14,500~19,000
	사무국장	문화원 213	2,130,000	1개원당 10,000
	시설비	문화원 17	1,000,000	18개원(중구,용산,성동,청원,진천,장흥,상주, 부산진,유성,홍천,청양,홍성,고창,안동,김천, 창녕,진해)
	계		6,906,000	
2005 (국고)	시설비	문화원 4	480,000	4개원(홍천, 춘천, 고성, 사천)
	계		480,000	
2006 (국고)	시설비	문화원12	1,819,000	12개원(춘천,속초,철원,제천,옥천,음성,천안, 여수, 울진, 함안, 고성, 거창)
	계		1,819,000	

※ 국고지원 기준 보조율 50%임(시설비는 30%)

## 2006년 지역 문화 행정인력 해외연수 현황

구분	연수기간	연수지역	지방행정인력
1회	5.14~5.20(7일)	일본	각시도문화예술담당공무원(13)
2회	5.29~6.5(8일)	프랑스, 독일	각시도문화예술담당공무원(13)
3회	6.30~7.7(8일)	이탈리아	각시도문화예술담당공무원(16)
4회	9.2~9.8(7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각시도문화예술담당공무원(14)
계			56명

## 2)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홍보

‘문화도 산업이다’라는 말은 어제 오늘 생긴 말이 아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문화산업을 미래의 최고의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한 편의 영화가 수 십 만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도 소개된 해리포터의 작가는 한 편의 어린이 소설 시리즈로 4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우리나라에서도 부각되어야 한다. 본 연구문에서는 문화의 산업화에 대한 개요나 경영논리를 나열하지는 않겠다. 다만 그 과정의 일부분인 공연 마케팅의 한 과정인 홍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문화를 산업화 시키려면 마케팅이 필요하다. 더 많은 상품을 팔기 위해 마케팅이 필요하듯이 더 많은 관객을 끌어 모으기 위한 마케팅도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홍보이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게 하려면 첫째 좋은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하고 둘째 그 공연을 최대한 훌륭하게 홍보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었다 하여도 홍보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허사이다.

## 공연 홍보수단

홍보방법	내 용
포스터	<p>포스터는 한두 장의 이미지로 모든 것을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미지가 1) 간결하며, 2) 강렬하고, 3) 명확한 전달이 이루어져야 한다.</p> <p>한 장의 포스터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하면 복잡한 이미지나 글자의 배치로 인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를 잘 알 수가 없고, 너무 간략하게 구성하면 또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훌륭한 포스터는 복잡하지도 단순하지도 않으며 한 눈에 시선을 끌어 호기심을 유도하여야 한다. 포스터에는 공연제목, 종류, 장소, 시간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p>
팸플릿	<p>팸플릿은 포스터와는 달리 작은 소책자로 공연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팸플릿에는 공연의 내용은 물론 기획의도, 연출의도 등 작품에 대한 컨셉과 함께 배우와 스태프 등 관련 인물 정보까지 모두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포스터에 비하여 비싼 제작비로 인하여 공연 전 홍보의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 일반적으로 팸플릿은 공연과 함께 일정액을 수수하며 판매한다.</p>
우편 D-M	<p>우편 홍보는 전화와 함께 전통적인 홍보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홍보수단이다. 특히, 우편 홍보는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나 동호회, 단체, 학교 등에 많이 전달하는 홍보수단으로 활용된다.</p>
광고물/전단지	<p>전단지나 광고물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전단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므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p>
이메일	<p>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홍보 수단이다. 장점은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린다는 것이고, 단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전달되므로, 공연의 성격과 타겟에 맞게 홍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는 홍보수단이 다 마찬가지로겠지만, 문안은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p>
홈페이지	<p>홈페이지 홍보는 이제 기본적인 수단이다. 특히 문화행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노출이 용이한 방법이다.</p>
지역 신문방송매체	<p>신문이나 지역의 방송에 광고하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매체의 광고는</p>



	우선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이다. 전화나 우편물 또는 전단지 등의 경우 귀찮아하거나 오히려 불편해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기타 매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그런 거부감이 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많은 홍보 효과를 유발한다.
현수막	현수막 홍보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단기간에 가장 많은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홍보수단이다.
시설물 광고	버스 승강장, 버스 옆면, 옥외 광고가 있다.
전화	요즘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서비스를 이용한 SMS 광고를 많이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공연정보를 가장 많이 취득하는 매체는 바로 포스터이다. 그리고 인터넷, 현수막, 신문방송의 순이다. 중앙의 경우 신문이나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역 일간지에서 공연내용을 기사로 다루더라도 그 파급효과가 중앙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대부분의 문예회관이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옥외 홍보물도 큰 실효를 거두기 힘든 형편이다. 포스터의 무분별한 부착은 지역 외관을 흉하게 만들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키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포스터를 합법적인 장소에 게재 하여 관객들이 당초의 의도대로 관람욕구를 가지고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예회관의 운영으로 축적된 고객의 데이터를 십분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개별 고객관리는 물론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 맞춤형 공연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회원 제도를 지역에 맞게 잘 활용하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 또한 최근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어서도, 더 많은 예술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고, 예술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디자인적 측면 등을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홍보 수단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서 공연 장소 즉 공간의 홍보가 잘 되어있어야 한다. 훌륭한 장소에서 좋은 공연이 무대 위에 올라갈 때 관객이 찾아가는 것이다. 소문보다 효과적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홍보 효과는 없다.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공연에 대해서 말하고 찾아오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역의 문화공간이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어서 자주 찾는 곳이 된다면 그들이 가장 훌

통한 홍보 수단이 되는 것이다. 문화공간이 일부 주민의 공간이 아니라 모두에게 개방되고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의 자산이 되도록 친숙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홍보하는 것이 공간의 활용과 의미를 높이는 것이다.

### 3) 공간 활용과 문화체험 기회 확대

사람들이 문화예술회관을 많이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문화공간이 주민들에게 공간을 이용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시민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들을 분석해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시민들이 문화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은 반드시 공연이나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공간은 공연이나 전시회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간을 열어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친숙하게 문화공간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 - 공간 개방

공연이 없거나 아무런 행사가 없는 경우 문화시설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특히 시설 내에 극장만 존재할 경우이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공연장의 로비나 넓은 복도를 활용하여 전시회를 기획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내의 여유 공간(세미나실 또는 회의실 등)을 확보하여 지역민의 만남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화공간의 문이 닫혀있을수록 지역민의 마음도 닫혀 지고 공간의 문이 열려 있을수록 지역민들도 더욱 친근하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지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연과 전시가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극장을 비롯하여 전시실, 소극장, 야외극장, 세미나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이라면 지역 주민들이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공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시설 내에서의 워크숍이나 문화교실이 운영된다면 자연스럽게 공간은 개방된다. 공간의 개방은 단순히 대문을 열어 놓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 홍보

지역의 문예회관은 문화시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두 말할 나위 없

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놓아도 그곳을 찾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놓은 만큼 좋은 볼거리나 문화정보를 제공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문화공간을 지역의 자랑거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 어찌 보면 공연물의 홍보보다 지역 문예회관의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이 지역 관청의 한 두 번의 행사만 치르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결국 공간과 사람들과의 간극은 메워지지 않는다.

#### - 참여

문화공간이 확보된 뒤에는 사람에게 투자하여야 한다. 즉 많은 사람들의 공간으로 위치할 때에 성공적인 문화적 일치가 성립된다.

외국에서는 지역민들이 문화공간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자원봉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다. 아직 우리에게선 조금 낯선 감이 없지 않으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퍼져가고 있는 만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자원봉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적 경험을 얻게 하고 주부에게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정보를 얻게 하고 노년층에게는 생활의 활력과 삶의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안내 도우미, 우편발송, 서류관리 그리고 전문 봉사자들에게는 장비 수리나 정비 등을 맡길 수 있다.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봉사자의 선정에서부터 배치에 이르기까지 나이와 조건 등을 고려하고 적절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무임금으로 봉사하는 만큼 문화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감사패, 초대권, 기념품 등)을 부여하여 자부심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부여한다.

자원봉사자들은 구체적인 업무훈련이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운영관리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훈련이 잘 되지 않고 인력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 역할이 모호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배제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바람직한 상을 가질 수 없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직원들의 관리 소홀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문화공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봉사자들 스스로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원활한 유대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 교육과 연계한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사실상 지방 도시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예술과 접할 기회는 너무 적은 게 현실이다. 교과 과정에 있는 미술 수업 그리고 미술학원을 제외하면 예술에 참여할 기회는 더욱 줄어든다. 교과 과정의 미술 수업이 예술참여의 한부분이기는 하지만 극히 부분적인 한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문화·예술적인 감각과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능력의 개발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판에 박힌 형식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감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화·예술에 더 쉽게 접근하고 더 많은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학교와 사설 학원이 나누어 분담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예술적 교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는, 학교의 특성화 시간 등을 활용하여 공연, 사진, 미술 워크숍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체험은 놀이로 접근하여야 한다. 교육과 같은 딱딱한 교재로서의 문화나 예술은 결국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힘든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이다.

- 문화와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이 지역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한다는 의식이 팽배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역 공동체가 문화·예술 공간과 공동체적인 동질성을 느낀다면 그곳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고 친숙한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며, 생활에 활기를 느끼고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정신건강은 물론 문화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편안하고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소이어야 하며,
-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하고,
-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조사 및 확대되어야 하고,

- 정치적인 장소로서의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하고,
- 그 대신에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 지역민에게 학습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소규모의 공공 도서관 마련)
- 마지막으로 지역의 문화정보지 발행하여 공유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은 다양한 관객층을 개발하고 지역민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동반되어야 한다.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 취향은 일회적인 홍보로 인해 생겨나기 어려우며, 오랜 기간 동안의 훈련과정을 통해서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천안과 당진과 청양에는 전문 인력(기획, 연구, 교육, 홍보)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재원의 부족하다. 이로 인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도 하지만, 치밀한 계획 및 목적 아래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오늘날 공연장의 관객개발을 논함에 있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에 대한 이론적 토대도 강좌로 개설하여 문화예술의 지적 호기심까지 채워주는 단계로 발전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야외무대를 제공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결과를 선보일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이를 정기적인 야외무대 상설공연의 하나로 정례화 시킨다면, 이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공연장에 대한 친근감 및 참여욕구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장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문화공간의 행정 인력과 기획자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장소나 프로그램만을 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양한 계층(어린이, 청소년, 주부, 농어민 등)을 모두 아우르는 환경이 조성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① 어린이, 청소년들의 위한 문화 축제 마련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어깨에 달려 있듯이 문화와 예술 발전의 미래 또한 그들에게 달려 있다. 청소년들은 문화적 접촉에 민감하다. 어린 시절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창조력을 길러 주어야 하며 예술 창조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연계프로그램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장소를 제공하고 예술적 감각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 표창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문화·예술 접근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 ② 지역 유치원 연극 공연대회(초·중등학교)

연극공연축제와 같은 소규모 무대예술축제를 마련하여 지역의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무대에서 그들의 끼를 발산하고 창조적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 연극은 어린이들의 흥미를 충분히 끌 수 있는 놀이와 같은 것이므로 유치원생은 물론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더구나 연극놀이는 친구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대화술의 교육적 효과는 물론 공동체적인 팀워크 작업으로서 협동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방법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초등학교생들은 저학년부터 연극놀이를 통한 교육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대본을 쓰게 하고 역할을 분배하여 그들이 쓴 대본으로 그들끼리 공연을 만들어낸다. 그들에게 연극은 일부 배우들만의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 ③ 어린이들을 위한 인형극/마임 공연 기획

유아는 물론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연 형식이 인형극이다. 인형극은 동화적 호기심과 신비로움을 심어준다. 특히, 인형극의 장점은 소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며 크게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규모 실내 극장은 물론 날씨가 좋은 여름날에는 야외극장에서 인형

극 공연도 흥미를 끌 수 있다. 또한, 마임 극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쉽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공연이므로 이러한 공연을 자주 기획하여 지역 어린이들과 부모들을 극장으로 불러들여야 한다.

#### ④ 시낭송회

시낭송은 아이들에게 언어의 아름다움과 언어에 대한 사랑을 깨우쳐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시를 쓰고 시를 읽게 하는 것은 국어의 깨우침은 물론이거니와 소설을 읽는 재미와는 또 다른 묘미를 심어 준다. 시낭송회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행사이므로 지역의 문화공간에서 자주 기획하여 아이들이 행사장을 자주 찾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 ⑤ 주민 노래 경연대회

주위를 둘러보라. 얼마나 많은 노래방이 있는가. 한국 사람처럼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는 듯하다. 한동안 모든 방송사에는 주부노래 경연대회라든지 각종 노래 경연대회가 주최되었다. 아직도 전국노래자랑은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민들의 만남의 자리도 되고 삶에 지친 피로를 털어버릴 수 있는 이러한 행사는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도 될 것이다.

#### ⑥ 어머니 교실: 수·공예·회화 전시회

사실 대도시나 중소도시의 어머니들은 맞벌이를 하는 부부를 제외하면 개인적인 시간이 많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나 건강을 위한 헬스를 한다든가 하는 여유를 갖기도 한다. 천안과 같은 규모의 도시에는 사회복지 회관 같은 곳에서 수·공예 교실이나 회화교실과 같은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농촌의 어머니들은 문화회관이나 복지회관의 강좌를 여유롭게 들을 만큼 여유롭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농촌의 현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은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하여도

적절히 여가 활동이나 개인의 취미 활동을 할 공간과 강좌가 없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다. 농어촌의 젊은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을 위한 취미 활동의 개발과 사업 실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 ⑦ 농민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문화는 도시민의 전유물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는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 생활의 여유가 없다고 해서 농촌지역을 문화의 사각지대 또는 문화소외 지대로 남겨둔다는 것은 정부와 자치단체의 방임 행위에 속한다. 그들이 문화공간을 찾고 공연을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화 행정을 주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농어촌 지역민들에게 유익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농한기 시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지역의 예술인이나 농어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청하여 문화 공간에서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강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 ⑧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더불어 필요한 자원(정보, 장비, 교육, 자문) 제공

사람들이 모으려면 장소가 필요하다. 문화공간 내에 지역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알려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게 한다. 재정적 여유가 확보된다면 공간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를 비롯하여 정보, 자문 그리고 교육까지 제공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민의 예술적 인성과 창조력의 개발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 ⑨ 지역 봉사 프로그램 마련

‘봉사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는 것은 받을 때보다 더 뿌듯함을 맛보게 한다. 지역에 자원봉사단을 자발적으로 조직하도록 도와주고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는 봉사단원들 간은 물론 지역민들에게 끈끈한 정을 맺어주고 지역 행정인들에게도 호의적으로 마음을



열게 한다.

#### ⑩ 지역 예술인을 위한 교류의 장소 마련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은 해당 지역 예술인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수용자의 입장이므로 문화예술의 발전에 수용자적 참여로서의 기여밖에 할 수 없다. 지역의 문화예술회관은 이러한 점을 주지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다.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회관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예술인들의 교류는

- 예술인의 고립을 방지하고,
-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 예술가에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 예술인 개인의 자기개발은 물론,
- 지역 예술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은 관료적 사고와는 친숙하지 않으므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유롭고 창조적인 인식으로 예술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들의 창작활동은 측면으로 지원하고 발표회를 통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모임을 제공하고 지역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문화예술회관의 기획자는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보존·개발 가능한 지역 향토예술의 보유자에게는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하여 지역민에게 교육하고 전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고향이거나 특별히 그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장소와 예술 전시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이러한 효과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물론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며, 그로 인하여 예술인들은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역의 대학에 관련학과와 연계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들과 적극 협조하여 학생들의 전시회를 지역민에게 개방하고 지역 어린이들과 대학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문화 워크숍을 주최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 ⑪ 외국인과 공유하는 문화행사 마련

우리의 농어촌지역에서 결혼하는 사람 중 한 명은 외국인이라고 한다. 특히 결혼해서 오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며느리들이다. 언어는 물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충격이나 문화적 변화는 그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는 외국인 며느리들과 함께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과 곳곳에 산재해 있다. 설날이 특별한 날에 전국의 몇몇 곳에서 외국인을 위한 행사가 있다. 소도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이러한 문제도 인식하여 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빠른 기간 내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시도하여야 한다. 다민족이 섞여 살아가는 작금의 현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 4) 찾아가는 문화·예술 개발 및 확대

#### - 문화 소외지역인 농어촌의 문화공간 개발

농어촌에 문화공간을 새로 설립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현 상태에서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타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 새마을 회관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에는 새마을 회관이 있다. 마을 사람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새마을 회관의 마을 단위에서 가장 친숙하고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 - 초·중등학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특히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있는 학교는 문화 활동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향수를 충족 시켜주어야 한다.

### - 폐교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많이 있다. 특정한 사설 문화단체나 예술인들이 폐교를 구입하여 그곳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꾸민 성공적인 사례도 많이 있다. 이렇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 - 교회·성당

지역마다 산재한 교회나 성당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그곳의 중요활동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욱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고 교회나 성당 측에서도 그러한 예술 공연을 적극 환영할 것이다.

### - 시장 또는 광장

실내 공간 외에도 야외공간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예로부터 서양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만남의 장소는 시장이나 광장과 같은 야외의 넓은 공간이었다.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실내 공간의 확장으로 공연예술이 실내로 많이 옮겨갔다. 하지만, 가용 가능한 실외 공간은 훌륭한 예술 공간이 될 수 있다. 아직도 농촌에서 5일장과 같은 시장이 서고 있으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의 공간에서 지역민에게 문화예술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농어촌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충남의 16개 시·군구의 인구 중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다수이다. 농어민들이 문화공간을 찾는 것이 남의 집 이야기로 간주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한다.

## - 찾아가는 공연 및 전시 확대

우리나라의 농어촌 지역은 문화소의 지역에 속한다. 농어촌을 방치하는 것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법은 소외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농어촌민들과 그곳의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시행하기에는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문화시설에 자체 공연단이 있는 경우 또는 자치단체의 공연단(시립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등)이 소외 지역의 학교, 새마을 회관 같은 공공장소를 찾아가 공연하고, 그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 - 찾아가는 공연의 예

가. 자치단체내 공연단이 있는 경우

공립 문화예술회관에서의 공연과 더불어 단발적이 아닌 정기적인 지역 순회공연을 기획한다. 특히, 농어촌 학교시설을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예술적 정신을 고취하고 대도시의 아이들이 받고 있는 문화 혜택에 뒤지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마을 단위의 주민들에게도 주변의 몇몇 마을에 공지하여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는 마을 회관이나 야외 공간을 적극 활용한다. 농어민의 경우 전통음악이나 마당극 그리고 농어촌 아이들에게 인형극과 마임극과 같은 그들에게 친숙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나. 자치단체에 공연단이 없는 경우

문화예술회관에 연극단을 구성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겠으나, 여의치 않다면 외부의 공연단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 순회공연을 유치하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시설 내에 소규모의 연극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소의 지역을 방문하여 공연한다는 것은 첫째, 그들에게 문화예술의 참관/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 후진성을 탈피하고, 둘째, 그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대도시의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는 시점에서 농어촌의 문화적 후진성을 탈피하는데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5) 지역 내 문화·예술 인력 양성

### - 문화예술회관 관리 인력의 전문성

충청남도내 문화예술 공간에는 천안의 문화공간을 제외하면 아직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다. 대표적인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문화시설에 비하여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 및 교육 인력은 물론 무대 관리 인력이나 장비관리 인력 등 대부분의 전문 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선 문화단체장의 경우 보통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현실에서 문화공간 단체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공연과 전시에 관련된 거의 모든 결정을 관장(회장)이 하는 현실에서 관장의 행정력은 공간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운영의 책임을 전문인으로 채용된 관장이 맡아야하며 전적으로 독자적인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온 경우가 많았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체제로 전환하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위탁하는 민간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행정 직원들도 문화예술 전공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문화시설 직원의 전문화도 시급하다. 일반적으로 시·군청 문화과에서 파견된 직원이 관리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문화행정 교육은 문화공간의 실질적 운영에 직결되므로 시급히 재정비 되어야 한다.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지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연 기획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연수를 정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부서의 효과적인 관리운영이 요구된다.

지방의 문화공간의 경우 직원의 문화일반과 지역문화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지역민과의 교류, 특히 지역의 예술인들과의 원활한 교류가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 매뉴얼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예술 인적자원의 중요성

어느 지역이든 각 지역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능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예술인 본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발전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지방에서는 숨은 예술인들의 발굴하고 새로운 예술적 기질을 가진 청소년들을 교육하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술인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물론 성인들도 예술적 자질을 가지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들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교육하는 것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예술가의 탄생도 기대한다.

프랑스의 장마리 퐁티에는 “문화정책은 보호이외에 다른 목적도 포함되는데, 그 세 가지는 보급, 교육, 창조이다”라고 는 말하고 있다.<sup>25)</sup> 우리는 그의 말처럼 문화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문화를 보급하고 인재를 교육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즉 문화공간은 시설 그 자체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를 제공하고 문화를 교육하며 문화를 재창조하여야 하는 임무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문화공간의 제2의 역할 속에서 새로운 문화예술인이 탄생하다.

## 6) 지역 내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활성화

현재 천안지역의 문화예술회관 관계자들이 한 달에 한번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이는 지역 문화행정에서 바람직한 일로써 각 문화공간의 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열악한 행정 환경에 처해있는 군소 문화공간의 사무원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만남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상호간 물적·인적 자원을 교류하고 공동제작을 통해서 제작비를 절감하고 자체 기획력을 확보하는 것도 연구해 봄직 하다. 각 문화시설의 행정 직원들은 교류의 폭을 넓히고 책임의식과 문화예술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로 타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인적교류를 통해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기른다.
- 16개 시군의 문화 인력 교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상호 보강한다.
-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한 문화공간의 예술단을 적극 활용하여 농촌 지역까지 순회공연을 통하여 문화예술 확장의 폭을 넓힌다.
- 공연물의 공동제작을 통해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제작비를 절감한다.
-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문화 교류를 확장한다.

25) 장마리 퐁티에, 박균성 역,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법 소개, 서울, 행정자치부, 2006, p.13

## 7) 수익창출

문화공간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재정적 안정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가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문화공간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무리 우수한 프로그램과 훌륭한 예술가들이 있다고 하여도 기획하고 공연 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문제는 문화예술 회관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회관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운영된다. 자치단체의 재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의 모든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재정은 충분치 않은 게 현실이다. 재정이 부족한 경우 문화공간은 거의 비워두거나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형편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예술회관의 재정은 보통 시·군청의 문화체육과에 소속되거나 독립 법인으로 관리된다. 문체과 소속인 경우 시·군청에서 연간 재정을 책정 받아 운영한다. 그리고 독립 재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도 시·군청으로부터 재정을 할당받거나 시·군의회로부터 운영자금을 책정 받아 관리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독일 등 문화선진국이 중심이 되었다. 대도시와 소도시의 문화공간 활용방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물보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체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충청남도내 문화공간활용방안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경우는 일정부분 문화공간 활용에 대한 자체적인 수익 사업을 해야 한다.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재투자자가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수익은 단체나 단체장의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업메세나도 고려해 볼 만하다.<sup>26)</sup>

### -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부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프랑스, 독일 등 문화 선진국들의 예를 보더라도 기부는 문화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재정적 충당의 요소이다. 오늘날 기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사회단체나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이다.

---

26) 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p.101~102 참조

아직 우리나라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공간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문화단체의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관객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지역사회의 유지나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까지 기부를 통해 이루어지 재정으로 문화공간이 지역 문화예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길러주는 역할이 요구된다.

#### - 기업 기부의 중요성 강조

- 대중 좋은 인식
-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 친숙한 이미지
- 지역에 기여한다는 자부심 고취

#### - 워크숍

관객층과 지역민의 특성 및 지역 인구의 분포를 분석하여 특화되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간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일반 강좌는 주부나 어린이의 취향을 고려하여 여가를 활용하거나 교육적 효과를 염두에 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말의 경우에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한다. 특히 지역 내의 또는 초청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하여 지역민의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켜준다. 일반 강좌와 더불어 보다 더 전문적인 워크숍을 통한 예술지식과 체험을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 - 특별행사

특별행사에는 문화공간을 활용하여 분기별 바자회 또는 공간내에서 일일카페 또는 지역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 등을 통하여 발전기금 또는 자금을 확보한다.



## - 광고물

공간 내 또는 외부에 기업이나 후원 단체의 광고물 부착하여 홍보해 주는 수단이다.

## 8)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발전 심의 위원회 구성

### 가. 문화예술 발전 심의 위원회의 역할

지방 문화시설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공연과 전시에 관련된 전반적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의 위원회의 구성이 요구된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 심의 위원회는 지역 문화공간의 활용과 공연/전시 기획에 제안을 하고 문화행정 직원은 심의위원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공간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심의 위원회는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 주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에 쉽게 접근하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역의 향토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공연기획에 제안하여 향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다.

### 나. 구성

직 책	인 원	역 할
심의 위원장	1 명	지역 문화예술 발전 심의 위원장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책임진다.
부위원장	3명	부위원장에 문화공간 또는 관청의 문화과 책임자를 한 명 임명하여 심의위원회와 행정과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위원	00명	심의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지역의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골고루 배치하여 문화적 편향성을 예방한다.

### 다. 운영 및 역할

- 문화공간 내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다.

- 지역 문화예술인의 교류와 모임을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 지역의 문화예술 발굴에 적극 참여한다.
- 공연과 전시에 대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다.
- 지역 문화예술 공간의 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 자발적인 회비로 운영하되 일정부분 지역 관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한다.

## 제5장 결론

### 1. 문화·예술·공간의 창의적 활용에 필요한 전제조건

최근 들어 문화공간의 확대·설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하여 그 수와 관리인력 또한 수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미흡하다. 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공연·전시 공간은 물론 박물관·도서관등 공공문화시설이 국가전략의 후선으로 물러나 있는 것은 커다란 아쉬움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현격한 차이를 해소하여야 하며, 현재로서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지방의 소외된 농어촌 지역을 아우르는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문화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문화는 국가와 지역의 얼굴 만들기에 있어서 중심이 된다. 그리고 문화예술프로그램은 국가와 지역의 문화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글로벌화 되어가는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보더라도 문화에 대한 가치는 평가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정서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진들은 유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몸담아 왔고 현재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정책이 프랑스와 독일을 문화강국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이 높아가도 있는 추세이다.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개발되어 있고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연과 미술에 중점을 두었다. 공연과 미술은 문화의 정수이자 유동적이라는 장점을 지닌다. 지역의 특성과 역사 그리고 지역민의 특성을 감안한 문화행사가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은 충청남도에 속하는 지역이면서도 독특한 축제행사와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적인 축제행사와 문화공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 미술전시와 연극 혹은 음악공연이 장소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대관계에 관한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하다.

본 연구진들은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야 국가의 문화가 발달한다는 굳건한 믿음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 믿음은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에서 구체화 하고자 프랑스와 독일의 소도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자료를 분석하였다. 오랜 시간을 걸쳐 만들어진 프랑스의 아미앵과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소도시와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비교가 아니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실천에 옮기까지의 구조에 시선을 집중하였다. 본 연구의 중심인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경우는 전문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또한 애항심을 배양하고 청년들의 대도시 진출보다는 고향에 정착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급선무이다.

본 연구의 주제는 문화예술 공간의 시민융합형 활용방안이다. 공간의 활용에 필요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이 참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어서 전문 인력이 선제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성과 역사 그리고 지리적인 조건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선 전문 인력의 효과적인 배치로 공간 운영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지역민의 생활공간이 유기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세대 간의 문화격차를 줄여나가는 공연행사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미술전람회 꾸미기 등이 고려해볼직하다. 감상자에서 참여자로 그리고 관람자에서 창작자로서의 전환이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공간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원어민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창작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 보다는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이 학생들과 원어민 예술가들과 함께 진행하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본다.

#### - 천안시

천안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공간별 세분화 하면 다음과 같다. 천안시 시민문화회관은 음악과 발레 뮤지컬 등의 공연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전통을 유지하면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인 행사와 지역적인 행사를 감안한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음악경연대회가 적절하다고 본다. 국제적인 것으로는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공연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것이 또한 천안시와 문화교류의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외국의 문화를 수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이탈하여 천안시의 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술 전시 프로그램으로는 대관전과 기획전으로 구분하면, 대관전으로는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여 프로그램의 실비에 사용하고, 기획전으로는 지역과 국내 그리고 국제미술을 두루 섭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미술시장은 경제적인 측면과 외국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본조기이다. 이러한 국제미술시장이 유럽의 각 도시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는 별도로 설명을 하질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미술인들의 시선을 집중하고 천안시는 경제적인 이윤을 얻게 된다. 천안문화원에는 시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교육 포함)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한편으론 천안에 잠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론 천안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게 한다. 특히 아라리오 갤러리와 연계한 국제적인 전시기획도 고려해볼직하다.

#### - 당진군

당진군의 문예의 전당이 상징적인 건물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공연과 전시가 함께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제창작스튜디오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어민예술가들과 지역예술가와 국내예술가의 화합을 유도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당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학생들에게 영어회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장소는 지역에 소재한 공공건물을 사용하여 경비를 줄이고, 현지인과 지역적으로 만나는 장소로 꾸며간다.

#### - 청양군

청양군의 문화행사는 지역의 특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이 기획하고 진행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청양의 문화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모형식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기관과 연계하는 교육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하고 축제행사를 전시형태로 담아내는 전략이 수립되어 할 것이다.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확충되어야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를 방지하게 될 것이다. 연극과 공연 그리고 미술전시를 활성화 하여 도민이 즐겨 찾는 문예공간이 될 것이다. 찾아가는 프로그램보다는 찾아와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급선무이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고려한 기획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공간의 건립은 결국 문화예술 확산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이라는 공공적인 목적과는 무관한 문화예술은 없고 건물만 있는 양상을 낳기도 한다.

문화 예술 및 문화산업부문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부문	11,589	11,599	12,222	12,726	13,332	3.6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434	526	534	574	612	9.0
문화예술역량강화	1,379	1,441	1,463	1,501	1,607	3.9
문화산업육성 및 인프라 구축	1,360	2,254	2,291	1,341	1,404	0.8

※ 2006년 완료되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부지매입비용(1,694억원) 제외시 7.7%

#### - 문화공간 활용의 비효율성에 관한 제안

가.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문화공간의 활용 사례는 대도시 또는 다른 지역의 문화공간의 활용에 좋은 일례가 될 수도 있다. 수입이나 위치보다는 자발적인 활용방안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회관은 지역 내의 국·공립 또는 사립의 소규모 문화공간들의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 유기체가 되어야 한다.

다.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경우는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소도시의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에서 밝혔듯이 중앙의 문화코드에서 벗어나 지역의 축제와 지역성이 살아나는 공간 활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라.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문화예술 공간 활용에 있어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은 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의 삼일치의 부조화이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 주민을 위한 예술표현의 장소 마련

둘째, 지역 주민의 예술 체험/관람의 기회 확대

셋째, 기획 능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넷째, 수익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의 재창조에 자본을 재투자하여 활성화.

본 연구진들(책임자: 오윤균/ 연구자: 김승호, 서석돌)은 충남발전 연구원의 연구비로 연구 <(주제: 충청남도내의 문화·예술 공간의 창의적, 효과적 활용방안)>를 수행 하였다. 그리고 천안과 당진과 청양의 문화예술공간이 창의적이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조건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공간의 개념에 두었다. 왜냐하면 이 개념들은 지역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환경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안과 당진과 청양은 서울에 비하면 문화와 예술분야에 있어서 뒤 떨어져 있지만, 유럽의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서에도 이미 밝혔듯이 유럽의 중소도시의 공간은 창의적이자 지역적인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울중심에서 아직도 벗어나 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밀도의 원인이자 지역의 노령화 현상에 있어서 지역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필히 개발되어야 한다.

연구진들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천안과 당진과 청양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미술전시와 공연과 연극에 중점을 두었다. 왜냐하면 천안과 당진과 청양군민들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가기 위함이자, 지역성을 겸비한 국제적인 문화행사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물이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안하였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원활한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경험하게 되었음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

문화관광통계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서울, 문화관광부, 2006, 173p.

문화부문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서울 :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2006, 227p.  
문화정책백서, 2003-2004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서울 : 문화관광부, 2004, 532p.

아트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318p.

예술과 조형예술에 관한 서적

이토오 야스오외, 이홍재 역,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역사넷, 2002. 248p.

장마리 폰티에, 박균성 역, 프랑스의 문화정책과 문화법 소개, 서울, 행정자치부, 2006, 40p.

충남도 관내 이용 문화 시설 현황(표작성)

프랑스 문화발전 장기계획 / 프랑스 국가문화정책연구위원회 [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서울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7, 246p.

하버트 리드, 역자 김기주, 예술의 뿌리, 현대미학사, 1998, p.254

김영수, 21세기 문화정책의 방향, 한국공공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2002

[www.culture.gouv.fr](http://www.culture.gouv.fr)(프랑스 문화부 홈페이지)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1999): Grundriss der Landes- und Regionalplanung, Hannover

Akademie für Raumforschung und Landesplanung (2005): Handwörterbuch der Raumordnung, Hannover: ARL, ISBN 3888385555

Andreas Mäckler: 1460 Antworten auf die Frage: was ist Kunst? 1000 Antworten, Köln 2000



Baumer, Thomas: Handbuch Interkulturelle Kompetenz (2 Bände). Verlag Orell Füssli, Zürich. ISBN 3-280-02691-1 und ISBN 3-280-05081-2

Birgit Rommelspacher (1995): Dominanzkultur. Texte zu Fremdheit und Macht, Orlanda Frauenverlag. ISBN 3-929823-29-2

Christian Lewke, Der verfassungsrechtliche Kulturauftrag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Eine funktionsbezogene Betrachtung des Mediums in seiner Bedeutung für Individuum, Gesellschaft, Kunst, Wissenschaft und Religion (Schriften zum deutschen und europäischen öffentlichen Recht Bd. 15, hgg. von S. Detterbeck), Peter Lang, Frankfurt/M. 2007.

Dieter Henrich und Wolfgang Iser (Hrsg.): Theorien der Kunst, Frankfurt am Main 1999  
Edward Burnett Tylor: Primitive Culture (1871)

Ein Anwendungsbeispiel - Herzog, Christof; Das Methodenpaket IeMAX mit dem Fuzzy-Simulationsmodell FLUCS-Entwicklung und Anwendung eines Entscheidungsunterstützungssystems für die integrative Raumplanung  
[http://e-diss.uni-kiel.de/diss\\_622/](http://e-diss.uni-kiel.de/diss_622/)

Elias, Norbert: Über den Prozess der Zivilisation. Soziogenetische und psychogenetische Untersuchungen, 2 Bände, Frankfurt a. M.: Suhrkamp 1976.

Geertz, Clifford: Dichte Beschreibung. Beiträge zum Verstehen kultureller Systeme, Frankfurt a. M. 1987.

Georg W. Bertram: Kunst. Eine philosophische Einführung, Ditzingen 2005 (Reclam)

Gerald Herrmann: Was ist Kunst?, Herndorf am Wallersee 2005 Romantik

H. Spitzer (1995): Einführung in die Räumliche Planung, Stuttgart:UTB, ISBN 382528106X

Hans-Georg Gadamer: Die Aktualität des Schönen. Kunst als Spiel, Symbol und Fest, Ditzingen 1977 (Reclam)

Heuel-Fabianek, B., Kühn, K., Mank, G.: Raumverträglichkeitsstudie (RVS) für die Europäische SpallationsNeutronenQuelle ESS am Standort Forschungszentrum Jülich. Vorhabenbezogene Änderung des Gebietsentwicklungsplans für den Regierungsbezirks Köln - Teilabschnitt Region Aachen. 2003. ESS-Bericht "ESS 03-134-M. ISSN 1433-559X

(Internetseiten der Bezirksregierung Köln: Die Raumverträglichkeitsstudie (PDF-Datei))

Johannes Heinrichs: Kultur - in der Kunst der Begriffe. Mit einem Geleitwort von Kurt Biedenkopf zum World Culture Forum in Dresden, Steno, München 2007. ISBN: 978-954-449-327-1

John Dewey: Kunst als Erfahrung, Frankfurt am Main 1998

Kaschuba, Wolfgang: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Ethnologie, 2. Aktualisierte Auflage, München 2003.

Langhagen-Rohrbach, Christian (2005): Raumordnung und Raumplanung, Darmstadt: WBG, ISBN 353418792X

Literatur [Bearbeiten]Hubertus Busche: Was ist Kultur? Die vier historischen Grundbedeutungen, in: Dialektik. Zeitschrift für Kulturphilosophie, 2000/1, 69-90.

Manifest der 93: Aufruf An die Kulturwelt! vom 4.10. 1914

Martin Seel: Ästhetik des Erscheinens, Frankfurt am Main 2003

Michael Hauskeller: Was ist Kunst? Positionen der Ästhetik von Platon bis Danto, München 2002

Nelson Goodman: Sprachen der Kunst. Entwurf einer Symboltheorie, Frankfurt am Main 1997

Nelson Goodman: Weisen der Welterzeugung, Frankfurt am Main 1990

Schweitzer, Albert: Kultur und Ethik. ISBN 3-406-39250-4

Tasos Zembylas: Kunst oder Nichtkunst. Über Bedingungen und Instanzen ästhetischer Beurteilung. Wien, 1997

Umberto Eco: Das offene Kunstwerk, Frankfurt am Main 2002

Wolfgang Ullrich: Was war Kunst? Biographien eines Begriffs, Frankfurt am Main 2005 (S. Fischer)

# 부 록

## I. 예술개념의 역사적인 변천사:

1. 고대: 일반적으로 고대는 이집트에서 시작한다. 이집트와 서기 1422 - 1411년 클래식 그리스와 로마시대의 예술작품들은 보존되어 있다. 건축, 조각, 벽화, 소품 등이 그러하다. 이 시대의 회화와 조각은 예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공업으로 제작된 생산물이다. 예술가가 제작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극장은 제식행사의 장소로서 타 장르에 비해 더 발전되어 있다. 고대에서 자유예술(*artes liberales*)은 자유인에게 주어진 능력을 나타낸다. 마르티아누스 카펠라 *Martianus Capella* (서기 400년경)는 7가지의 예술을 구분하였다. 트리비움(*Trivium*)에는 문법과 변증법과 대화론이 속하고, 쿼바드리비움(*Quadrivium*)에는 기하학과 수학과 천문학과 그리고 음악을 포함시킨다. 이러한 일곱 가지의 예술 중에서 현대에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음악이다. 헬레니즘시기에는 의학과 건축이 첨가 되었고 반면에 수공업은 기계적인 예술에 속했다. 회화와 조각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예술에 속하게 된다. 이렇듯 예술의 종류와 범위는 시기별 각기 다르다. 예술이 정신에서 나오고 예술품은 물질로 나타난다는 것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르네상스시대에 장르간의 논쟁이 있기도 하였지만, 예술품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독일의 관념철학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현대에서 말하는 예술과는 차이가 많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컨셉트 아트와 대지미술 혹은 공공미술은 예술개념의 다변화와 범위의 확장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2. 중세시대에서 예술개념을 살펴보면, 자유예술의 시스템이 1180년경에 등장한다. 중세시대에 고대의 예술적인 삶이 거의 사라지는데, 예술개념은 반면에 고대의 유형인 예술의 자율성 *artes liberales*와 같이 예술의 기술성 *artes mechanicae*이 수용된다. 이 시기에는 철학을 기반으로 신학, 법학, 의학이 등장한다. 조형 예술가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수공업자이고 길드와 유사한 직업을 갖는다.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속된 자로서 생산한 예술품에 사인을 하

기도 한다. 건축, 조각, 음악, 극장, 회화 등은 주문으로 생산되는데 대부분 교회가 주문자였다. 귀족들도 주문을 하기도 하였지만, 수적으로 빈약하다. 여기서 바로 교의와 세속적인 이미지의 유형과 음악의 형태 등 표현형태가 생겨난다. 고대에 자연을 모방하려는 의도가 중심으로 이루어었다면, 중세시대에는 종교나 정신적인 표현으로서 미 개념을 정의하려고 하였고, 이것이 스콜라학파가 신의 미美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는 예술에서 개념으로 자리하게 된다.

3. 근대에 들어와 예술개념에 대한 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근대에 들어와 조형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개념이 시민사회와 함께 변화 하였다. 이전에는 교회나 귀족이 주문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소장가가 새로운 수용자로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프로세스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르네상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르네상스예술이 15세기 중엽에는 유럽전역에 확산되면서 본격화 된다. 도시에는 새롭게 등장한 상인들이 예술로서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예술가들은 주체로서 자신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제작한 예술품들은 믿음이나 귀족들의 신분을 재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획과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능력을 증명하여 예술가이자 직업인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아이콘적인 이미지와 건축이 등장하게 되었고, 미술애호가는 해석을 해야 하는 과제가 부여된다. Ekphrasis와 미술서적, 예술가와 예술과 관찰에 관한 서적이 예술가적인 의도에 속하게 된다. 독자적인 예술가는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고 이것이 조형예술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4.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르네상스에 나타난 것으로 고전적 고대를 부활한다는 뜻을 지닌다. 고전적 고대의 인간상과 자연상에 기초를 둔 예술개념이다. 세속적인 음악과 문학이 꽃을 피우는 시기이기도 하다. 종교개혁은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주문자인 자로마와 가톨릭 교회의 세력을 약하게 하였지만, 반대종교개혁은 바로크시대에 음악과 미술이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듯 예술개념은 생산자와 생산품 그리고 생산물의 기능의 요소에 따르게 되었다. 4. 계몽주의 시대의 예술개념을 대표하는 학자로는 무르비크 시모노비치Ludovike Simanowiz와 프리드리히 쉴러Portrait Friedrich Schiller(1794)를 들 수 있다. 이들은 18세기 중반과 19세기의 예술론 정의에 초석을 마련한다. 계몽주의의 시대의 예술에는 회화, 조각, 건축, 문학, 음악 그리고 현대에서 말하는 예술토론도 속한다. 여기서 미학이 대두되었고 미학에서는 추와 미의 경계로 예술작품의 질을 카테고리로서 정의하는데 중심이 된다. 계몽주의 시대에 들어와 자유가

강조되기 시작한다. 자유는 이상적인 개념으로서 정치와 학문에서 독립하고 독자적으로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한 문학과 예술에 이상개념인 자유가 자리한다. 예술가적 창작으로서 수공적인 예술품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독일의 관념론 함께 미술품에 대한 이상이 생겨난다. 이러한 프로세스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인하여 진행된 세속화의 급속한 속도이다.

문학과 예술과의 차이는 소설과 시가 문학에 포함되면서 시작된 논쟁에서 찾아진다. 반면에 예술이라는 용어는 회화와 조각에 적용되었는데, 18세기에 탄생한 저널(신문이나 잡지)에서 소개되고 평가되었다. 이로서 수용이 발생하였고, 작품, 오리지널 천재와 같은 개념들은 예술가들의 개인성으로서 표현 형태로 칸트로 인하여 각인되었다. 외적인 그림과 내적인 그림을 구별하는데, 내적인 그림이란 예를 들면 언어, 표상, 아이디어를 말하고 외적인 그림이란 건축이나 혹은 수공업으로 완성된 사물로 사용물을 말한다.

자유라는 생각은 예술가는 더 이상 주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새로이 생겨난 미술시장이 한 몫을 한다. 이로서 주제가 변하게 되는데, 종교와 신화와 그것의 모티브와 초상화, 알레고리 대신에 산업사회의 노동을 다루는 주제가 등장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인 양식들이 확산되어 양식은 상품적인 기호가 아니라 경쟁하는 예술가들의 기호로 사용되었고, 작곡가들도 또한 모차르트와 같이 세계관이나 교회적인 성격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이 등장한 자유는 위험을 담고도 있는데, 낭만주의 이미지에서 예술가들이 천재개념을 찾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5. 현대에서 예술개념은 낭만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계몽주의가 현대예술개념이 탄생하는 준비를 마련하였다면, 중세시기에는 독자적인 예술가가 나타났고, 바로크의 왕권주의 시대에는 예술작품이 독립되었다. 중세시기의 기계와 노동 그리고 자동화가 예술에서 수공업에 대한 상황을 변하게 하였다. 이후로 예술에는 더 이상 기능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심미주의 *L'art pour l'art*가 대두된다. 기능주의에 남아있는 예술의 형태들이 공예와 비교되어 산업미술과 순수미술로 구별된다. 양식사에서 양식표현이 창작예술에 포함된 것이라면, 예술가들은 프로그램적으로 혹은 담론적인 반대자 혹은 동반자로서 예술비평가의 새로운 그룹을 형성하게 한다. 이로서 다양한 카테고리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기의 컨셉 대신에 양식의 종합용어인 이즘ism이 생겨난다.

현대개념은 반현대와는 대조적이다. 예술 애호가들이 계몽주의까지 귀족이나 부르주아 계층이 지배적 이었다면, 미술시장이 탄생함으로써 관객의 확산되기 시작한다. 미술시장은 살롱과 같이 전시이다. 여기서 예술에 관한 논쟁이 쟁쟁해 되었고, 서적이 증가되기 시작한다. 동시에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의 탄생하기 까지를 탐구하여 스스로에게 맞는 방법과 재료와 표현법 등을 분석한다. 예술 자체가 주제가 되면 될수록 확장된 관심의 영역이 축소되기 마련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전위예술이 등장 하게 된다.

이탈리아 피렌체의 드로잉과 베니스의 색채, 혹은 취미에 따른 루벤스와 푸생, 앙시앵과 모던 등이 예술에서 논쟁의 중심이 되었듯이, 예술은 사회의 전체로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반현대로 나타나는데, 이 반현대는 자기만의 표현 형태를 가지고 있고 퇴보하는 키치와 다양한 신고전주의 혹은 모던을 모욕하는 것이 바로 그러하다. 이 반현대의 표현 형태에 있어서 국가사회주의가 전형적인 대표이다. 퇴폐미술이라는 용어로 클래식모던이 퇴행을 하게 되는데, 예술가라는 직업의 금지와 인간의 심리까지도 파괴하기도 하였다, 1936년 9월부터 독일 박물관에 소장된 20세기 초반의 예술작품들은 분리되었고, 소련에서는 20년대 아방가르드 예술에 속한 구축주의와 절대주의가 스탈린주의로 폄박을 받았고 문학이나 조형예술과 음악에서는 사회주의적인 리얼리즘이 대두되었다.

6. 포스트모던에서 예술은 다원화 된다. 예술에서 포스트모던은 자유와 오리지널과 진정성에 관한 착상의 부분들이 새롭게 의문시 된다. 타 작가들을 인용하거나 역사와 동시대 양식을 결합하고, 물질과 방법과 다양한 미술장르가 혼합되기도 한다. 예술경영과 전시 장소는 메타적인 측면에서 되질문시 되었고, 화이트 큐브와 같이 전시는 하나의 질문이 된다. 디자인과 대중문화와 내재문화의 경계가 흐려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라지기도 한다.

7.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하는 예술을 일반적으로 동시대미술이라고 부른다. 현재의 미술과 유사한 소집개념들은 현재 상황에 관한 것이다. 예술가적 아방가르드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생겨나면서 낡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회와 문화에서는 더 이상 일반적으로 보호하고 선두주자를 위한 방향이 주어지질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대 미술은 예술가들의 행동이나 작업을 대변하는 개념이다. 이 행동과 작업들은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고 미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와 동시대 예술은 모든

의미들과 아카데미한 규칙들과 세분화, 모든 예술양식들과 문화적인 경계를 무시한다. 반면에 자유는 예술가들의 욕구에 따라 반영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종류의 예술들은 미술을 스스로 체계화 하는데, 이 학문적인 시스템은 산업사회와 함께 발전되었다. 글로벌과 인터컬처의 기능적인 시스템으로서 동시대 미술은 다양한 문화에서 원천들을 소집하기도 하는데, 예술사가 예술의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고, 따라서 서양미술의 전통에서는 그리스 철학이 역사적인 토대로서 의미가 있듯이 그러하다. 동시대 미술은 회화, 조각, 무용, 음악, 연극 등의 전통적인 구분을 해체하고 이것을 하나로 테마로 삼기도 한다. 반면에 매체예술은 기술과 예술을 결합하여 자리를 잡기도 한다.

학문과 유사하게 작품과 작업은 전체를 파악하는 의미들이 되고 문맥으로 해석된다. 관찰자와 해석자 그리고 관객이 이러한 문맥에 자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와 전문 전달자의 관심에 따라 변화하고 차이가 있다. 미술이론에서 동시대 예술개념은 토론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예술가들과 수용자들 혹은 예술시장과 예술작품이 탐구의 중심에 선다.

글로벌 사회에서 한편으론 대화가 증식되고 다양한 예술의 방향들이 세계미술로서 모든 세계에 동시에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론 지역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반작용으로서 민속적인 예술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기도 한다.

## II. 충청남도내 문화공간의 환경 및 현황

### 1. 전국내 문화공간의 실태

- 미술관 분포도

시    도	미술관			
	소계	공공	사립	대학
강 원	2	1	1	-
경 기	21	3	18	-
경 남	2	2	-	-
경 북	9	5	4	-
광 주	4	1	2	1
대 구	-	-	-	-
대 전	2	1	1	-
부 산	3	1	1	1
서 울	27	3	23	1
인 천	3	-	3	-
전 남	5	2	3	-
전 북	3	2	1	-
제 주	3	2	1	-
충 남	4	-	4	-
충 북	5	2	3	-
울 산	-	-	-	-
합    계	93	25	65	3

문화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06.

2005년 기준으로 화랑협회에 가입한 화랑은 124개이며, 상업 화랑을 포함하여 전국에 200개 이상의 화랑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국 공연시설 및 공연장 분포도<sup>27)</sup>

(단위: 개소)

구분		합계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연시설수	공연장수	공연시설수	공연장수	공연시설수	공연장수
전체		410	541	271	385	139	156
시	서울	106	131	36	53	70	78
	부산	21	30	7	16	14	14
	대구	22	29	14	21	8	8
	인천	19	26	14	19	5	7
	광주	13	15	12	14	1	1
	대전	13	17	8	11	5	6
	울산	6	8	2	4	4	4
도	경기	57	88	45	73	12	15
	강원	21	28	18	25	3	3
	충북	20	20	14	14	6	6
	충남	14	22	14	22	0	0
	전북	22	31	20	29	2	2
	전남	21	26	21	26	0	0
	경북	22	26	22	26	0	0
	경남	25	34	19	26	6	8
	제주	8	10	5	6	3	4

1997년부터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신장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제공을 위해 지방 문예회관 건립비를 국가가 지원(개소당 20억원 이내)하고 있다.

27)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공연예술 실태조사 p.50.

- 문예회관 건립현황

구분	1997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문예회관	79개소	113개소	122개소	132개소	150개소

문화관광부자료

대도시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경우 공연장, 전시장 등을 갖추고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예회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건립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문화의 집 현황

문화의 집은 단일 예술장르 중심의 근대적 사고를 탈피하고, 주민들이 쉽게 찾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복합문화시설로, 주5일근무제 등 국민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적 여가문화공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생겨난 것이 문화의 집이다.

- 문화의집 건립현황

구분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문화의집	15	37	69	94	123	135	154	165

문화관광부(2006), 문화기반시설총람

## 2. 충청남도내 문화예술 공간의 실태

### 1) 충청남도내 문화공간의 비교

도시명	공연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기타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관	시민 회관	복지 회관	청소년회 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국내 총계	280	194	768	90	494	162	210	28	50
충남시 계	3	1	20	3	9	2	8	1	-
천안시	-	-	12	1	1	1	3	-	-
공주시	-	1	1	-	1	-	1	1	-
보령시	1	-	2	-	1	-	1	-	-
아산시	1	-	3	-	-	-	1	-	-
서산시	1	-	1	1	5	-	1	-	-
논산시	-	-	1	1	1	1	1	-	-
계룡시	-	-	-	-	-	-	1	-	-

### 2) 충청남도내 미술관 비교

도시명	미술관	화랑	전시실
국내 총계	85	195	10
충남시 계	3	2	1
천안시	1	2	-
공주시	-	-	1
보령시	1	-	-
아산시	1	-	-
서산시	-	-	-
논산시	-	-	-
계룡시	-	-	-

### 3) 충청남도내 박물관 비교

도시명	박물관
국내 총계	230
충남시 계	7
천안시	-
공주시	5
보령시	1
아산시	1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도시연감, 2005(제34호) / 행정자치부

### 4) 문화공간 관리 인력 현황<sup>28)</sup>

(단위: 명)

구 분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풀타임		비정규직 파트타임	
	남성	여성	소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3,393	1,479	4,872	2,750	833	482	350	161	296
행정지원인력	1,484	691	2,175	1,290	403	166	210	28	78
공연사업인력	508	529	1,037	368	282	79	63	61	184
공연 외 예술사업인력	184	191	375	104	106	56	63	24	22
무대기술인력	1,217	68	1,285	988	42	181	14	48	12

28)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공연예술 실태조사 p.128.

### 5) 전국 공연예술인의 수<sup>29)</sup>

구 분	회 원 수	내 역
예 총	117,538명	음악협회 7,513
		무용협회 2,963
		연극협회 3,993
		연예협회 94,115
		국악협회 8,914
민 예 총	5,815명	민족음악인협회 400
		민족극운동협의회 315
		민족춤위원회 100
		민족풍물굿위원회 5,000
계	123,353명	9개 단체

공연예술단체를 부문별로 보면 음악단체가 708개(37.1%)로 가장 많으며, 국악512개(26.8%), 연극, 무용, 연예, 기타 순이며 공연단체 작품 활동 현황은 공연단체(1,508개)의 연간 총 공연작품수 7,419편이며, 단체당 평균 4.92편의 공연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 3.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바람직한 문화예술 공간의 구성은 시설, 인력 그리고 내용 이다. 국고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우리나라의 문화공간은 대부분 관내 시·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의해서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는 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에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이다. 행정능력만으로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일개 단체를 운영하는 것과는 다르다. 문화공간의 운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예술 지식과 체험이 요구된다. 즉, 문화예술 전문 인력

29) 문화관광부, 2005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p.5

이 투입되어야 한다. 당장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파견 공무원들의 문화행정·문화기획력을 교육시키고 모범적인 타 기관(예:예술의 전당)의 행정체험을 통하여 문화공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시립 문화공간의 행정은 재단법인화하거나 일괄적인 전문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프랑스·영국·독일의 경우 공무원이 문화예술공간의 장을 맡거나 파견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볼 수 없는 현상이다. 그들은 문화공간의 업무에 협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은 문화공간의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운영 계획안이 제출되면 가장 훌륭한 계획과 인물에게 일정기간 문화공간을 맡겨 운영하게 한다.

문화공간의 여러 현안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일 것이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는 문화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문화부문에 재정을 추가 배정하여 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문화시설의 유지는 물론 낙후된 지방의 문화공간 설립에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의 확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하여 공간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재정적 비용의 분담을 유지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원활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자칫 설립된 문화공간의 운영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민간차원의 재정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통독이후 제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인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럽공동체의 문화예술분과와 연합하기도 한다. 이렇듯 재정 지원의 불협화음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도 효율적인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플랜이 필수적이다. 지방 중소도시의 문화공간의 외적 조건은 다음과 같은 최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시·군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교통의 불편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이다. 지역의 면적과 주민의 수 그리고 집중분포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한 위치 선정이 필요하다. 문화공간이 다소 외곽에 위치한 경우나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복잡한 교통 혼잡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지만, 도심에 위치한 경우 차량의 소통과 주차란을 해소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② 공간의 기능적 설계가 중요하다. 소극장과 같은 전문 연극공연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문화공간의 수가 현저히 적은 현 상태에서는 복합 문화센터와 같은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공간의 효율적인 기능은 각 문화회관의 현재 활용 상태를 분석하면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③ 문화공간의 미적 관점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공간의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미학적 관점에서 도시전체의 미관과 주위 환경에 그리고 지역적 특색에 걸 맞는 아름다운 문화공간은 시민의 자부심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④ 규모의 적절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공간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문화공간이 필요하다. 규모를 크게 할 것인가 작게 할 것인가는 지역의 특색과 지역의 다른 문화공간과의 차별성 그리고 문화공간의 설립 목적과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그 목적에 맞는 충분하고 적절한 크기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⑤ 전문 인력의 활용이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공간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공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유경험자가 수반되어야 한다. 유경험자는 지리와 연령층과 특산물을 고려한 공간 배치와 활용을 수용한다. 또한 유경험자는 최대한 지역출신으로 한다. 왜냐면 계절에 걸맞는 공연행사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지역민과 더 친밀하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 종합:

- 우리는 왜 연극이나 뮤지컬 등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것보다 영화관을 더 많이 찾을까? 그것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영화관을 찾는 것 보다 현저히 비싼 비용 때문이다. 공연물의 제작비용이 증가되고 배우의 보수와 기타 비용의 증가는 관람료의 높은 책정으로 귀결된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더욱 쉽고 친근하게 공연에 접근하려면 관람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국가의 문화적 지원과 공공단체의 지원이 필요하고 반면에 전문가와 지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문화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 공공성을 담보로 한 문화예술회관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지, 예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문화예술회관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으로 순수 공공성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문화공간이 이상적인 것이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충분한 재정을 확보한 문화예술회관은 많지 않다.

- 충청남도내의 문화공간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조차도 만들어내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관리 인력의 부족과 전문 프로그래머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공간은 비교적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공공의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탁 관리·운영 되고 있다.

## 1) 천안 문화예술회관

- 천안의 인구분포 및 학교·학생 현황

천안시 인구 연령별 분포도(2007)<sup>30)</sup>

연 령	남 자	여 자	남 녀
12-14세	12,634	11,411	24,045
15-19세	18,413	17,404	35,817
20-29세	42,698	44,898	87,596
30-39세	51,281	49,654	100,935
40-49세	45,159	39,739	84,898
50-59세	21,184	19,535	40,719
60-69세	25,993	35,366	61,359
70세이상	8,147	13,757	21,904
합 계	258,925	254,221	513,146

30) 통계청 자료참고, 현재2007년 자료, <http://www.nso.go.kr>



천안시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 현황(2004년)<sup>31)</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국립	-	-	-
	공립	57	19	11
	사립	-	6	7
	계	57	25	18
학생 수	남 자	국립	-	-
		공립	3,810	2,267
		사립	688	1,070
		계	25,021	4,498
	여 자	국립	-	-
		공립	3,237	1,971
		사립	699	1,218
		계	22,412	3,936
	남녀 합계		47,433	8,434
				6,526

천안의 인구분포를 보면 일반적인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천안의 인구는 51만 여명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도시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다. 또한 청소년들과 중년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어 문화적 활동이 활발한 도시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천안시의 주요 문화시설 현황

시민문화회관은 지난 2004년 12월 31일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의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두정동), 문예회관(성환읍)이 천안시민문화회관으로 통합되었다. 교육문화회관은 천안시민문화회관 두정분관으로, 문예회관은 천안시민문화회관 성환 분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업무는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다.

31)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2004년도 자료 참고, <http://www.cne.go.kr/ctnt/ptal>

## 2006년 지방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표

문예회관명	천안시민문화회관 본관	입주단체수	
개관연월일	1987.11.08	공연장등록일	1987.11.08
설립주체	천안시	운영주체	천안시(시민문화회관)
주소	천안시 신부동 471-1	홈페이지	http://cahall.cheonan.go.kr
전화번호	041-521-2851	팩스번호	041-521-2853
관장	오 대 교(행정6급,48세(남)/前 지역경제팀장)	관장채용방법	임명
복합시설여부		복합시설형태	

### <재정 현황>

재정현황

수 입 (백만원)													
계	외부 지원금						자 체 수 입						
	소 계	공 공			민 간		소 계	공연사업			공연 외	기타	전년 도 이월 금
		국 비	지방비	기 금	기업 & 민간 재단	개인		공연 수입	대관 수입	기 타			
754	605	-	605	-	-	-	149	74	75	-	-	-	-
지 출 (백만원)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차기년도 이월금						
		공간유지 비	제세부담 금	기타운영 경비	공 연	공연 외							
1,044	444	14	53	76	246	211							
재정자립도 (%)													
72%													

공공요금 지출현황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류구입비	기타
	2,500천원	800천원	30,000천원	-	22,302천원	23,135천원

시설 및 운영실적		2006년 운영실적											이용(관람객) 수 (단위 : 명)		
		목적내 사용 일수				목적외 사용 일수				정 기 휴 관	유지 보수 안전 진단	가동 율			
구분	규모	계	자체 사용	대관 사용	공연 준비 및 철수	계	자체 사용	대관 사용	공연 준비 및 철수						
대강당	923㎡	201	10	95	96	-	-	-	-	-	30	60%	62,800	43,700	19,100
소강당	307㎡	191	24	77	90	-	-	-	-	-	30	57%	16,080	-	16,080
제1전 시설	139㎡	164	24	120	20	-	-	-	-	-	30	49%	3,000	-	3,000
제2전 시설	284㎡	170	34	115	21	-	-	-	-	-	30	51%	2,875	-	2,875
제3전 시설	139㎡	89	25	53	11	-	-	-	-	-	30	27%	1,275	-	1,275
연면적	4,867 ㎡	×	×	×	×	×	×	×	×	×	×	×	×	×	×
합    계		815	117	460	238	-	-	-	-	-	150	-	86,030	43,700	42,330

<시설 현황>

공연장 규모	공연장명	객석수	장애인 객석수	객석바다 면적	무대면적	구동무대기계수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 향
	대강당	998석	석	674m <sup>2</sup>	244.4m <sup>2</sup>	24열	5열	1식
	소강당	200석		267m <sup>2</sup>	40m <sup>2</sup>	1	고정식	1식

무대시설	야외무대		연습실		분장실		장치보관소		장치제작소		자료및정보실	
	객석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석	m <sup>2</sup>		m <sup>2</sup>	3	60.7	1	4m <sup>2</sup>		m <sup>2</sup>	1	4m <sup>2</sup>

일반 편의시설	아트숍	전시장	회의장		강의실		주차장		식당	매점
	시설수	시설수	좌석수	면적	좌석수	면적	주차대 수	면적	시설수	시설수
		3	석	m <sup>2</sup>	200석	307m <sup>2</sup>	10대	661m <sup>2</sup>		

특수 편의 시설	구분	시설	면적	최대 수용 가능인원	년 간 총 이용자수	월 평균 이용자수
	장애인 관련시설	전용객석	m <sup>2</sup>	석	명	명
		주차장	66m <sup>2</sup>	1대	240명	20명
		화장실	6m <sup>2</sup>	2실	300명	25명
		기타( )	m <sup>2</sup>		명	명
	육아 관련시설	동반객석	m <sup>2</sup>	석	명	명
		놀이방	m <sup>2</sup>	명	명	명
		수유실	m <sup>2</sup>	명	명	명
		기타( 1 )	2m <sup>2</sup>		명	명

<인력 현황>

인력 총괄 현황1	총계	일반 직원 수 (행정 경영 인력)	전문직원수					인턴사원		자원봉사자	
			공연사업인력			무대기술인력 (무대예술전문인 포함 )	공연 외 인력 (전시 및 교육)	활용 여부	연간 인턴 사원 수	활용 여부	연간 자원 봉사 자수
			공연 기획	홍보 마케 팅	안내 및 진행						
	10명	7명	명	명	명	3 명	명		명	활용	40명

인력 총괄 현황2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사원		자원봉사자	
			남	여	풀타임		파트타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반직원수	행정(경영)인력	2명	5명	명	명	명	명	명	명	20명	20명
	전문직원수	공연사업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무대기술인력	3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연외 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소계		5명	5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10명		명				명		명	

정규직 현황	구 분		근무기간별					연령별 (만 나이)					
			1년 미만	1~3 년	4~1 0년	11 년 이상	소 계	29 세 이하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세 이상	소 계
	일반직원수	행정(경영)인력	명	명	명	7명	7명	명	3명	4명	명	명	7명
	전문직원수	공연사업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무대기술인력	명	2명	명	1명	3명	명	2명	1명	명	명	3명
		공연외 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계		명	2명	명	8명	10 명	명	5명	5명	명	명	10 명

무대기 술인력 현황 (무대예 술전문 인)	구 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계	
	1급		명/	명	명/	명	1명/	1명	1명/	1명
	2급		1명 /	0명	1명/	1명	명/	명	2명/	1명
	3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비고(자격증 미취득자)		1명		명		명		1명	

<문예회관 운영프로그램>

(단위:천원)

국내공연 프로그램		자체기획공연							대관공연						
장르		공연 건수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관객수		수입 지출		공연 건수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관객수		수입 지출	
					유 료	무 료	사업 비	공연 수입				유 료	무 료	사업 비	공연 수입
연극	연극	1	1	1	216	190	14,851	2,120	6	7	8	3,745	1,024		2,185
	뮤지컬	1	1	2	1192	328	312,36	27,395	14	18	29	11,237	3,010		6,555
무용	무용														
	발레	1	1	2	1,033	329	38,574	16,638	4	4	4		670		1,456
음악	양악	1	1	1	859	315	73,706	13,434	26	26	26	16,231	4,010		9,468
	오페라								5	5	5	330	842		1,820
전통	국악								2	2	2	1,250	362		728
	창극														
종합	종합및복합	1	1	1	190	164	10,352	945							
기타	대중음악								1	1	1	614	185		364
	영화								8	12	34	10,293	2,063		4,370
	일반행사								119	132	134		23,014		48,070
	기타	1	1	2	843	338	77,952	13,708							
계		6	6	9	4,333	1,664	246,671	74,240	185	207	243	43,700	35,180		75,016

해외공연 프로그램	자체기획공연								
	공연 작품명	공연 장명	공연단체명 (소속국가명)	공연장르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관객수		입장권 판매총액
							유료	무료	
	블라디보스톡팍 스오케스트라	봉서 홀	KCBS예술 단 (블라디보스 톡)	음악	1	1	582	212	8,040
	산토토마스합창 단	봉서 홀	GJ MUSIC CONTACT (필리핀)	음악	1	1	252	183	2,424
	호두까기인형	봉서 홀	원아트에이 전시 (백러시아)	발레	1	2	967	207	16,190
	대관공연								
	공연 작품명	공연 장명	공연단체명 (소속국가명)	주최 단체명	공연장 르	공연 일수	공 연 회 수	관객수	
								유 료	무 료

기타 프로그램	전 시								교 육			기 타		
	자체기획				대관				교육 건수	교육 일수	참여 자수	건수	일수	참여 자수
	공연 건수	공 연 일 수	공연 회수	관객 수	공연 건수	공연 일수	공 연 회 수	관객 수						
					47	329	371	26,450						

## 2006년 지방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표

문예회관명	천안시민문화회관 성환분관	입주단체수	
개관연월일	1996.10.21	공연장등록일	1996.10.21
설립주체	천안시	운영주체	천안시(시민문화회관)
주소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79	홈페이지	<a href="http://cahall.cheonan.go.kr">http://cahall.cheonan.go.kr</a>
전화번호	041-521-2857	팩스번호	041-521-2859
관장	오대교(행정6급,48세(남)/前 지역경제팀장)	관장채용방법	임명
복합시설여부		복합시설형태	
회원수	총계 (    명)	유료회원수 (    명)	무료회원수 (    명)
고유번호 (고유번호증 있을 경우)	312-83-03301		



<재정 현황>

재정현황	수 입 (백만원)														
	계	외부 지원금						자 체 수 입							
		소 계	공 공			민 간			소 계	공연사업			공연 외	기타	전년도 이월금
			국 비	지방 비	기 금	기업 & 민간 재단	개 인	공 연 수 입		대관 수입	기 타				
	540	498		498				42		42					
	지 출 (백만원)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차기년도 이월금						
			공간유지비	제세부담금	기타운영경비	공 연	공연 외								
	667	187	29	64	32			355							
	재정자립도 (%)														
81%															

공공 요금 지출 현황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석유류구입비	기타
	250천원	500천원	36,000천원		19,110천원	20,388천원

<시설 현황>

시설 및 운영실적		2006년 운영실적										이용(관람객) 수 (단위 : 명)			
		목적내 사용 일수				목적외 사용 일수				정기 휴관	유지 보수 안전 진단				가동 율
구분	규모	계	자 체 사 용	대관 사용	공연 준비 및 철수	계	자 체 사 용	대관 사용	공연 준비 및 철수						
대공연 장	760석	294		170	124						50	93%	68,000		68,000
소공연 장	240석	122		70	52						10	34%	11,900		11,900
전시장	198㎡	16		8	8							4.4%	3,600		3,600
회의실	198㎡	22		11	11							6%	330		330
연면적	4,836㎡	×	×	×	×	×	×	×	×	×	×	×	×	×	×
합    계		454		259	195						60		83,830		83,830

공연장 규모	공연장명	객석수	장애인 객석수	객석바닥 면적	무대면적	구동무대기계수		
						무대기 계	무대조 명	무대음 향
	대공연장	760석	3석	661m <sup>2</sup>	450m <sup>2</sup>	1식	1식	1식
	소공연장	240석	석	291m <sup>2</sup>	51m <sup>2</sup>	1식	1식	1식

부대시설	야외무대		연습실		분장실		장치보관소		장치제작소		자료및 정보실	
	객석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시설 수	면적
	석	m <sup>2</sup>	1	172m <sup>2</sup>	2	92m <sup>2</sup>	1	51m <sup>2</sup>		m <sup>2</sup>		m <sup>2</sup>

일반 편의 시설	아트숍	전시장	회의장		강의실		주차장		식당	매점
	시설수	시설수	좌석수	면적	좌석수	면적	주차대 수	면적	시설수	시설수
		1	40석	198m <sup>2</sup>	석	m <sup>2</sup>	300대	4,462m <sup>2</sup>		

특수 편의 시설	구분	시설	면적	최대 수용 가능인원	년 간 총 이용자수	월 평균 이용자수
	장애인 관련시설	전용객석	22m <sup>2</sup>	3석	120명	10명
		주차장	150m <sup>2</sup>	10대	96명	8명
		화장실	40m <sup>2</sup>	4실	144명	12명
		기타( )	m <sup>2</sup>		명	명
	육아 관련시설	동반객석	m <sup>2</sup>	석	명	명
		놀이방	m <sup>2</sup>	명	명	명
		수유실	m <sup>2</sup>	명	명	명
		기타( )	m <sup>2</sup>		명	명

<인력 현황>

인력 총괄 현황1	총계	일반 직원 수 (행정 경영 인력)	전문직원수					인턴사원		자원봉사자	
			공연사업인력			무대기술인력 (무대예술전문인 포함 )	공연 외 인력 (전시 및 교육)				
			공연 기획	홍보 마케 팅	안내 및 진행			활용 여부	연간 인턴 사원 수	활용 여부	연간 자원 봉사 자수
	5명	2명	명	명	명	3    명	명		명	활용	20명

인력 총괄 현황2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인턴사원		자원봉사 자	
			남	여	풀타임		파트타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일반직원수	행정(경영)인력	2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10명	10명
	전문직원수	공연사업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무대기술인력		3명	3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연외 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소계		5명	5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		5명		명				명		명		

정규직 현황	구 분		근무기간별					연령별 (만 나이)					
			1년 미 만	1~3 년	4~1 0년	11 년 이 상	소 계	29 세 이 하	30~ 39 세	40~ 49 세	50~ 59 세	60 세 이 상	소 계
	일반직원수	행정(경영)인력	명	명	명	2명	2명	명	명	2명	명	명	2명
	전문직원수	공연사업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무대기술인력	명	1명	1명	1명	3명	1명	1명	1명	명	명	3명
		공연외 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무대기술인력 현황 (무대예술전문인)	구 분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계	
	1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2급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3급	1명/	0명	1명/	0명	1명/	0명	3명/	0명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비고(자격증 미취득자)	1명		1명		1명		3명	

<문예회관 운영프로그램>

국내공연 프로그램		자체기획공연							대관공연						
장르		공연 건수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관객수		수입 지출		공연 건수	공연 일수	공연 회수	관객수		수입 지출	
					유 료	무 료	사업 비	공연 수입				유 료	무 료	사업 비	공연 수입
연극	연극								16	16	16		6,400		5,600
	뮤지컬														
무용	무용														
	발레														
음악	양악								11	11	11		1,870		1,870
	오페라														
전통	국악														
	창극														
종합	종합 및 복합														
기타	대중 음악														
	영화								17	17	17		6,800		5,950
	일반 행사														
	기타								215	215	215		68,860		28,763
계									259	259	259		83,830		42,183

- 천안시 시민문화회관
- 천안문화원

#### 강당 시설개요

총면적	120석
객석수	230석 (이용정도에 따라 상, 하층 구분)
무대면적	20평
시 설	연극조명 . 실링, 보테, 그랜드피아노, 서스, 스크린, 무대막, CD플레이어 (LP포함) 음향시스템, 냉난방시설, 분장실, 연습실, 대기실
이용시간	3월~10월

#### 전시실

총면적	80평(1층)
전시공간	54평
벽높이	3m(작품수에 따라 이동벽면, 이동조명)
조 명	직접조명 - 스포드 간접조명 - 삼파장 황색형광등
주차장	70대 주차가능

#### 놀이마당, 야외무대

300석 야외놀이마당, 파고라, 어린이놀이터, 한국의 꽃동산

#### 문화의 집

120평, 인터넷부스, 비디오 오디오부스, 문화창작실, 문화관람실, 문화사랑방, A/V감상실, 정보자료실

#### - 천안문화원 2006프로그램

월	공연제목	장 르	공연기간
1	4인전	전시	2006.1.23~1.26
2	어린이뮤지컬 보물섬	뮤지컬	2006.2.17 ~2006.2.19
3	목요일음악회	음악	매주 목요일

4	어린이 마술쇼	공연	2006.4.8 ~2006.4.9
	동물난타음악대	뮤지컬	2006.4.21 ~2006.4.23
5	이동석 개인전	전시	2006.5.12 ~2006.5.14
	가족뮤지컬 알라딘	뮤지컬	2006.5.12 ~2006.5.14
	천안현대여성작가회전	전시	2006.5.17 ~2006.5.21
	충남미술대전	전시	2006.5.24 ~2006.5.29
6	어린이 뮤지컬 엄지공주	뮤지컬	2006.6.5 ~2006.6.6
	어린이뮤지컬 별주부전	뮤지컬	2006.6.24 ~2006.6.25
7	화미회 전시	전시	2006.7.14 ~2006.5.17
9	이정희유화전	전시	2006.9.1 ~2006.9.7
	제2회 이동석 Drop전	전시	2006.9.8 ~2006.9.10
	나요환 조각전	전시	2006.9.14 ~2006.9.19
11	한마음실내악단제13회 정기연주회	음악	2006.11.9
12	레이디스싱어즈 송년 음악회	음악	2006.12.19

천안과 도시 규모가 비슷하고 문화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의 전당과 비교해 보자. 의정부 문화예술의 전당은 대극장(1,033석), 소극장(237석), 전시장(224평), 국제회의장(177석), 야외무대, 주차면수 438면, 레스토랑 78평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경기북부주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이 보다 나은 미래, 보다 나은 문화적인 삶을 즐기는 아름다운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시설로써 운영되고 있다. 또한 행정요원은 관장 이라 기획계, 공연계, 시설계, 무대계로 나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의 주요 공연 프로그램

의정부 예술의 전당(개요)

위치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요시설물	국제회의장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2동 323	40,273㎡ (12,182평)	22,372㎡ (6,767평)	7,094㎡ (2,146평)	대극장 : 1,033석 소극장 : 237석 전시장 : 224평	177석 (기자석, 방청석 68석)

의정부 예술의 전당 2006프로그램

월	공연제목	장 르	공연기간
1	2006신년음악회	음악	2006.1.20
	2006 현대미술의 단면전	전시	2006.1.20 ~ 2.25
	세가지 숲 이야기	공연	2006.1.24 ~ 1.25
2	이은미 콘서트	공연	2006.2.24
	웃어라 무덤아	연극	2006.2.17 ~ 2.18
	러시아 국립 볼쇼이극장 오페라 솔리스트 내한공연	공연	2006.2.18
	경기도 청소년 음악극워크숍	공연	2006.2.20 ~ 2.23
	어린이극 하룻 이야기	공연	2006.2.25 ~ 2.26
3	콩쥐와 팥쥐엄마	공연	2006.3.4 ~ 3.5
	희성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	음악	2006.3.11
	아카페코랄 제 5회 정기연주회	음악	2006.3.16
	오창현의 매직 콘서트	공연	2006.3.18 ~ 3.19
	모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음악	2006.3.21
	파릇파릇 음악회	음악	2006.3.25
	뽕롱뽕롱 뽀로로	공연	2006.3.31 ~ 4.1
4	화음챔버 오케스트라 음악회	음악	2006.4.4
	판소리 이야기 셋	음악	2006.4.5
	김성녀의 벽속의 요정	공연	2006.4.8 ~ 4.9

	음악놀이터 음표야 놀자~	음악	2006.4.11
	이무지치 실내악단 내한 공연	음악	2006.4.14
	시가 흐르는 천상음악회	음악	2006.4.29
	천상전시회 - 함속의 함	음악	2006.4.28 ~ 5.6
5	시리둥둥 거미둥둥	공연	2006.5.5
	캐주얼 클래식콘서트	음악	2006.5.5
	돈키호테	연극	2006.5.5 ~ 5.6
	Crossover Korean Soul	음악	2006.5.6
	카바레 쇼 - 발라간	공연	2006.5.9 ~ 5.10
	인당수 사랑가	공연	2006.5.12 ~ 5.13
	두 번째 달 콘서트	음악	2006.5.13
	O HAPPY DAY!	음악	2006.5.13
	연옥의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공연	2006.5.13 ~ 5.14
	의정부 소리 난장굿	음악	2006.5.14
	이리와 무뎌	공연	2006.5.16 ~ 5.17
	밑바닥에서	공연	2006.5.17
	꽃잎은 지고	공연	2006.5.19
	쇼 케이스 <페임>	공연	2006.5.20
	동방의 신기 - 동춘서커스	공연	2006.5.20
	유스챔버오케스트라 연주회	음악	2006.5.21
	쇼 케이스 <한 여름 밤의 꿈>	공연	2006.5.27
	5월, 새싹들의 축제	공연	2006.5.27
	Art of Voice 메이트리	공연	2006.5.27
6	화사회 6회 정기전	전시	2006.6.1 ~ 6.6
	오페라 춘향전	공연	2006.6.3 ~ 6.4
	유스챔버 제 4회 정기 연주회	음악	2006.6.6
	경기 북부 서예 문인화 대전	전시	2006.6.7 ~ 6.10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공연	2006.6.8 ~ 6.10
	프로포즈 서양화전	전시	2006.6.13 ~ 6.18
	가족 뮤지컬 보물섬	공연	2006.6.15 ~ 6.16

	은빛합창단 정기 연주회	음악	2006.6.17
	제1회 의정부 여성 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	2006.6.21
	제10회 회룡 전국 세미누드사진전	전시	2006.6.21 ~ 6.24
	조지윈스턴 피아노 콘서트	음악	2006.6.23
	의정부시합창단 정기 연주회	음악	2006.6.24
	오페라 투란도트	공연	2006.6.30 ~ 7.1
7	열린서예문인화대전	전시	2006.7.1 ~ 7.5
	의정부시무용단 - 제9회 정기공연	공연	2006.7.6
	뮤지컬 파워레인저 SPD	공연	2006.7.8 ~ 7.9
	기예 경진대회 출품작품 전시회	전시	2006.7.12 ~ 7.14
	제2회 경기도 평화통일미술대전	전시	2006.7.17 ~ 8.4
8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전	전시	2006.8.9 ~ 9.5
	청소년이 알아야할 클래식 여행	음악	2006.8.12
	뽀미언니와 함께하는 미운아기오리 발레리나 만들기	공연	2006.8.12
	2006 썸머 페스티벌	공연	2006.8.12 ~ 8.26
	정통 아이스발레-신데렐라	공연	2006.8.15 ~ 8.16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메이세컨	음악	2006.8.17
	청소년 해설 음악회	음악	2006.8.18
	모차르트는 내친구	음악	2006.8.19
	신나는 국악여행	음악	2006.8.20
	황회정의 음악세상 청소년 음악회	음악	2006.8.22
	가족뮤직컬 체크키&북키	공연	2006.8.25 ~ 8.26
9	의정부 기독 합창단 제16회 정기연주회	음악	2006.9.2
	2006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함께 나누는 음악회	음악	2006.9.8

	바람을 타고 나는 새야	공연	2006.9.8 ~ 9.9
	브레히트 사후 50주년기념 공연-코카서스의 백묵원	공연	2006.9.8 ~ 9.9
	가락! 가락! 가락! 제8회 시민을 위한 국악의 향연	음악	2006.9.9
	서울 기타 콰르텟 콘서트	음악	2006.9.12
	소뽕평인형극단의 “아기도깨비 깨몽이의 모험	공연	2006.9.13 ~ 9.16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공연	2006.9.16 ~ 9.17
	김대진과 프라인필의 [모짜르트스페셜]	음악	2006.9.23
	로또 팰리스	공연	2006.9.23
10	남사당놀이 한마당	공연	2006.10.8
	겨울의 불꽃, 범의 낙엽-제13회 베세토 연극제	공연	2006.10.10 ~ 10.11
	도화선-제13회 베세토 연극제	공연	2006.10.10 ~ 10.11
	제8회 회룡 한국 무용제	공연	2006.10.14
	원야-제13회 베세토 연극제	공연	2006.10.14 ~ 10.15
	억척어멈과 그 자식들	공연	2006.10.15
	제2회 정기연주회-신흥대 기독교실용음악과	음악	2006.10.18
	안치환과 자유콘서트	음악	2006.10.21
	국제 민족 가면무 축제	공연	2006.10.22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과 함께하는 창작 문화체험 콘서트	음악	2006.10.24
	오선지 위의 걸음마	공연	2006.10.28
	모스크바 국립 남성합창단 내한공연	음악	2006.10.29
11	어린이 뮤지컬 하늘을 나는 피터팬	공연	2006.11.3 ~ 11.4
	제4회 의정부 가곡의 밤	음악	2006.11.7

	금난새와 함께하는 오페라여행-비제‘카르멘’하	공연	2006.11.10
	뮤지컬 선녀와 나무꾼	공연	2006.11.15 ~ 11.16
	중국 단둥시 가무단 초청 합동공연	공연	2006.11.6
	Air클래식 기타연주회	음악	2006.11.18
	경민대 생활체육과 10주년 기념공연	공연	2006.11.21
	의정부예술대축제	공연	2006.11.22 ~ 11.25
	백설공주를 사랑한 난장이	공연	2006.11.24 ~ 11.25
	의정부 합창제	음악	2006.11.28
	서도소리 제3회 정기공연	음악	2006.11.29
	잘자요 엄마-창단 10주년기념공연	공연	2006.11.30
	하얀돌 미소 정기전	전시	2006.11.30 ~ 12.3
12	제11회 한국서예협회 경기 북부지부전	전시	2006.12.2 ~ 12.8
	제4회 정기연주회-의장부필 챔버오케스트라	음악	2006.12.3
	프라하 소년소녀합창단 내한공연	음악	2006.12.6
	시합창단 정기연주회	음악	2006.12.7
	패티김 콘서트	음악	2006.12.9
	서울감동이-극단허리	공연	2006.12.9 ~ 12.10
	제10회 디딤전 및 장애인 도공전	전시	2006.12.11 ~ 12.13
	뮤지컬 cats-경민대 뮤지컬과	공연	2006.12.14 ~ 12.15
	제7회 김형철 그림전	전시	2006.12.14 ~ 12.20
	송고한 사랑의 오페라 ‘나비부인’	공연	2006.12.16
	다시 새를 날리는 이유	공연	2006.12.19 ~ 12.20
	제5회 한신음악회	음악	2006.12.21
	대한민국 대표 미술사 정성모의 마법의 성	공연	2006.12.23~ 12.24
	뮤지컬 터널	공연	2006.12.27~ 12.2
	2006송년음악회-백건우의 피아노리사이틀	음악	2006.12.30

특징: 의정부는 지역문화호라동에 있어서 비교적 귀감이 된다. 특히 지역예술인의 예술혼을 기리는 프로그램이 독특하다. 의정부에 생을 마감한 천상병예술제가 그 대표적이다. 매년 개최되는 천상병예술제는 성공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2006 천상병 예술제 프로그램

제 목	일 시	장 소
학술 심포지엄	4.28(금) 15:00	국제회의장
시가 흐르는 천상 음악회	4.29(토) 17:00	대극장
특별 전시회	Open 4.28(금) 18:00~5.6(토)까지	전시장
제3회 천상 백일장 대회	4.29(토) 13:00	야외광장
드라마 <귀천> 방영	4.29(토) 오후 1시~5시	소극장

#### - 천안 문화교실

##### 천안시민문화회관

구 분	과 목
주 간 반	사물놀이, 민요, 서양화, 꽃꽂이, 사군자, 한국화, 서예, 클레이아트, 클래식기타, 시민노래교실
야 간 반	사물놀이, 서예, 꽃꽂이, 서양화, 퀼트, 요가, 문인화

##### 두정분관교실

구 분	과 목
오 전	가구만들기, 꽃꽂이, 도예, 문인화, 매듭공예, 서양화, 서예, 손뜨개, 종이접기, 집볼·밴드운동, 퀼트, 풍선공예, 영어, 일어, 중국어
오후	컴퓨터, 하모니카, 기초영어
야간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성환분관교실

구 분	과 목
오 전	풍선아트, 서예, 요가 및 건강체조

- 천안시 문화공간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천안은 서울에 인접한 도시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에 치중할 수가 있다. 천안시는 자체적인 문화공간의 설립보다는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프로그램이 급선무이다. 천안의 아라리오 갤러리가 전국 각지의 예술인들을 천안시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있듯이 천안시의 모습은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 시기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천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와 연계하는 미술전시가 전무한 실정이다. 중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미술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연단체 공연작품수 -장르별 현황<sup>32)</sup>

(단위: 개,편)

구 분	공연단체수	공연작품수	평 균
전 체	1,508	7,419	4.92
연 극	371	1,279	3.45
국 악	381	1,921	5.04
양 악	477	2,737	5.74
무 용	239	1,192	4.99
복합 장르	40	290	7.25

32) 문화관광부,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5공연예술 실태조사 p.154.

## 2) 당진 문화예술회관

### - 당진의 인구분포 및 학교·학생 현황

당진군 인구 연령별 분포도<sup>33)</sup>

연 령	남 자	여 자	남 녀
12-14세	2,337	2,068	4,405
15-19세	3,060	3,033	6,093
20-29세	5,739	4,900	10,639
30-39세	9,060	7,469	16,529
40-49세	9,493	8,107	17,600
50-59세	7,292	6,972	14,264
60-69세	14,080	18,671	32,751
70세이상	4,781	7,619	12,400
합 계	56,021	54,955	110,976

당진군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 현황(2004년)<sup>34)</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국 립	-	-	-
	공 립	33	7	4
	사 립	-	5	4
	계	33	12	8
학생 수	남 자	국립	-	-
		공립	-	281
		사립	-	375
		계	4,643	656
	여 자	국립	-	-
		공립	-	288
		사립	-	349
		계	4,352	637
	남녀 합계		9,095	1,293

33) 통계청 자료참조, 현재2007년 자료, <http://www.nso.go.kr>

34)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2004년도 자료 참고, <http://www.cne.go.kr/ctnt/ptal>



- 당진문예의 전당 시설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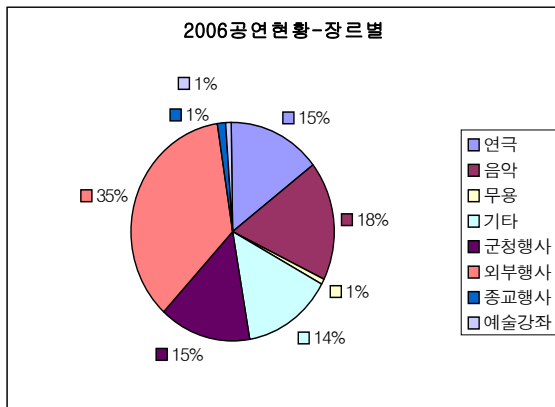
시설개요: 총사업비 29,475백만원 (국비2,000백만원, 군비27,475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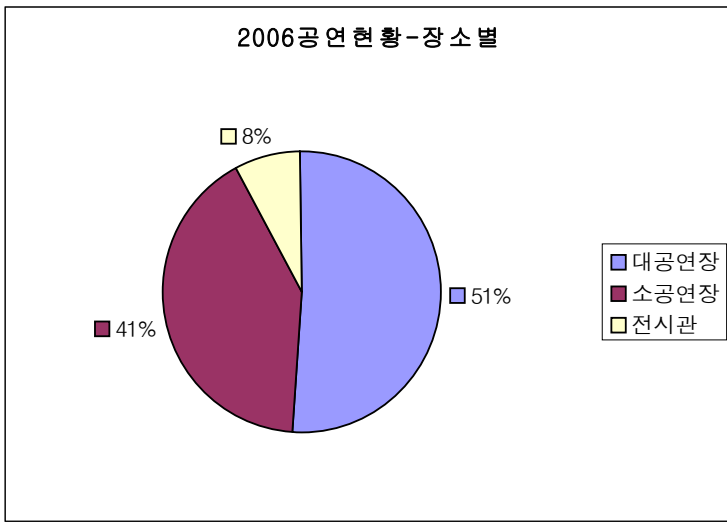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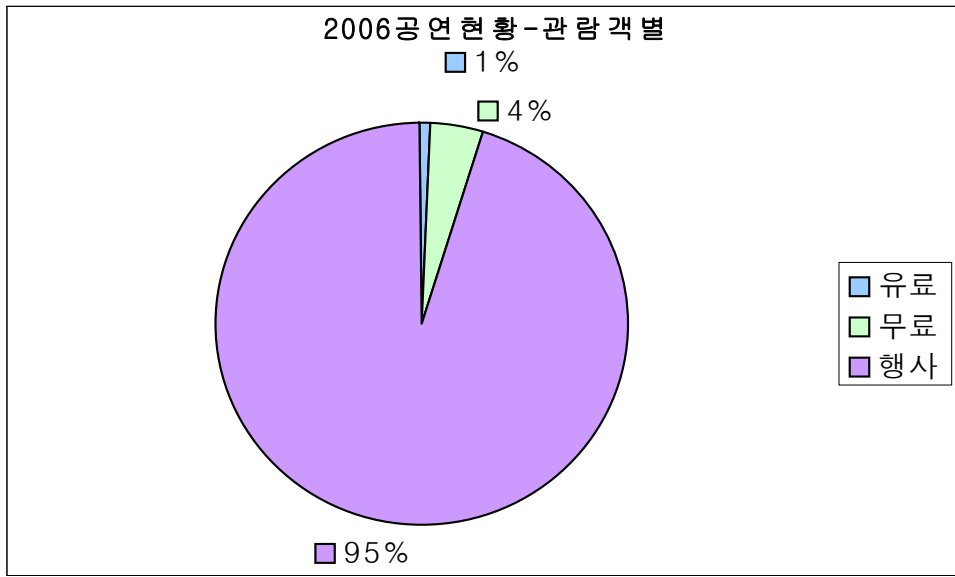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주요시설
4,834,55평	2,265,71평	대극장: 1,018석/소극장: 300석 전시실/오케스트라실 합창실/무용실

공연동	전시동	야외무대	분장실 및 연습실
2,033,40평 지상3층	전시동 26,125평, 지상2층	291 평	분장실: 대공연장 4실, 소공연장 2실 연습실 : 대공연장 (합창실1실, 앙상블실 3실) 소공연장( 무용실1실, 앙상블실 1실)

공간의 특징: 당진문예의전당은 1,018석의 대공연장과 300석의 소공연장, 전시관 등 건물 3개동에 대, 중, 소 연습실 등의 주요 시설과 오케스트라, 합창실, 무용실 등 훌륭한 초현대식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 2006년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 2006년 공연 및 행사집계표

장르별			건수	관람객 (명)				자체기획 (건)	대 관 (건)	장 소 (건)		
				계	유 료	무 료	행 사			대 공연장	소 공 연 장	전시 관
공 연	연 극	아 동 극	26	17,321	12,521	4,800	-	2	24	23	3	-
		성 인 극	5	3,360	3,360	-	-	2	3	3	2	-
		청소년 극	1	2,500	-	2,500	-	-	1	1	-	-
		계	32	23,181	15,881	7,300	-	4	28	27	5	-
	음 악	클 래 식	34	16,609	-	10,759	5,850	13	21	30	4	-
		오 페 라	-	-	-	-	-	-	-	-	-	-
		대중가 요	14	12,914	-	6,604	6,310	3	11	12	2	-
		계	48	29,523	-	17,363	12,160	16	32	42	6	-
	무 용	한국무 용	-	-	-	-	-	-	-	-	-	-
		현대무 용	3	1,006	-	-	1,000	1	2	3	-	-
		발 레	-	-	-	-	-	-	-	-	-	-
		계	3	1,006	-	-	1,000	1	2	3	-	-
	기 타	국 악	4	1,240	-	1,240	-	4	-	4	-	-
		전 시	17	6,251	5,100	1,150	1	1	16	-	-	17
		영 화	11	7,770	7,770	-	-	-	11	10	1	-
		축 제	5	3,800	-	300	3,500	1	4	4	1	-
		계	37	19,061	12,870	2,690	3,501	6	31	18	2	17
	소 계		120	72,771	28,751	27,353	16,661	27	93	90	13	17
행	군청행사		32	13,895	-	-	13,895	-	32	9	-	1

사										22	
	외부행사	72	26,439	400	2,180	23,859	-	72	18	54	-
	종교행사	5	2,050	-	-	2,050	-	5	3	2	-
	예술강좌	5	60	40	-	20	5	-	-	2	-
	소 계	114	42,444	440	2,180	39,824	5	109	30	80	1
합 계		234	115,215	29,191	29,533	56,485	32	202	120	93	18

- 당진문예의 전당 2006프로그램

2006년도 문예의전당 상반기 기획공연 및 유치

일 시	공연명	단체명	장소	장르	형식	비 고
합 계	11 작품	9개 단체	전당	장르	기획/유치	93,054천원
2/23	러시아 볼쇼이 오페라 솔리스트초청 내한공연	한국 IAM	대	클래식	기획공연	10,000 천원
3/31	장애우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사랑의 음악회”	전 당	대	복합장르	기획공연	19,850 천원
3/30	찾아가는 국립국악원 공연	국립국악원	대	국 악	유치공연	무료공연
4/13	필리핀 “쌍토 토마스합창단” 초청 내한공연	지제이뮤직 컨택트	대	클래식	기획공연	8,800 천원
5/6	어린이모험극 “큐빅스”	(주)아트노우	대	아동극	기획공연	11,000 천원
5/26,27	시리동동 거미동동	툼 방	소	아동극	기획공연	11,000 천원

6/8	김홍철의 요들송 (1주년기념)	코리아매니지먼트	대	대중가요	복권기금	4,004 천원
6/20	세계민속악기여행 (1주년기념)	코리아매니지먼트	대	클래식	복권기금	2,800 천원
6/22	충남교향악단 (도립단체)	충남도립교향악단	대	클래식	기획유치	무 료
6/24	코믹무술극 점프 (1주년기념)	(주)아트노우	대	성인극	기획공연	22,000천원
6/29	얌모얌모콘서트 (1주년기념)	한우리오페라단	대	클래식	복권기금	3,600 천원
전 시 부 문						
06, 6, 1~7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관	기획유치	무료 전시	완 료

- 2006년도 문예의전당 하반기 기획공연 및 유치

구 분	공연명	단체명	장소	장르	형식	비 고	
일 시	작 품	단 체	전당	장르	기획	106,946천원	
7/8	수다콘서트 통! 통! 통! (여성주간기념)	(사)여성문화예술	대	복합	복권기금	9,678천원 (50%지원) 기금4,839천원+전당4,839천원	
7/24~28	모들 청소년 뮤지컬교실 1일 8시간 총 40시간 30명	극단 모시는 사람들	소	강좌	복권기금	7,900천원 (전액지원)	
7/25~27	그림자극 만들기교실 3일/3회/180분/ 2개 반	사다리 연극놀이연구 구소	연	강좌	복권기금	7,470천원 (전액지원)	
8/8~11	재미있는 오페라이야기 <성악교실>	전당 문화강좌	연	강좌	문화강좌	320천원	문화강좌비용
8/7~11	마임놀이 초등생 문화체험 5일 10회	마네트 상사화	연	강좌	복권기금	8,405천원 (전액지원)	
8/8~11	My Dance (무용교실)	전당	연	강	문화	320천원	문화강좌비

		문화강좌		좌	강좌		용
8/ 7	캐나다 스탯슨 마칭밴드 단원 100명	코리아나매 니지	대	클 래 식	기획 공연	5,000천원	44,000천원  이 부분은 여름 음악페스티 발 공연임.
8/ 8	퓨전 국악팀 “대한사람”	대한인	대	국 악	기획 공연	3,300천원	
8/10	췌즈밴드 인터크로스	인터크로스	소	대 중 가 요	기획 공연	6,000천원	
8/12	뉴 월드 팝스오케스트라	충청투데이	대	대 중 가 요	기획 공연	30,000천원	
9/12,13	용띠위에 개띠 <이도경>02-766-1717	극단“이랑” 011-305-33 36	소	성 인 극	기획 공연	9,000천원 담당자:	
9/28	김애라 Scent of Wind	스텝프	대	국 악	복권 기금	9,480천원(60%지원 전당40%(3,792,000원)	
10/1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공연	당진군	대	복 합	기획 공연	군비20,000/기획10,000	
10/18	가을음악회“관악페스티 발”	충남관악협 회	대	클 래 식	기획 공연	3,000천원	
10월	기획전시전 「깃발 전」	기획전시	운	전 시	기획 전시	10,000천원(기획전시비용)	
10/20	하바나에서 온 리듬편지	코바나	대	대 중 가 요	복권 기금	13,000천원 (60%지원) 기금 7,800천원+전당5,200천원	
10/26	모스크바국립남성합창단	I A M	대	클 래 식	기획 공연	15,000천원	
12/21	충남국악관현악단 (도립단체)	유치공연(충 남도)	대	국 악	기획 유치	2,000천원 (국. 도립공연단체 초청비용)	
12/30	2006청소년댄스페스티발	당진청소년 댄스	대	무 용	기획 공연	2,700천원	
12/31	당진군민 송년의 밤 (제야음악회)	전당(예정)	대	복 합	기획 공연	10,815천원	

○ 상반기 기획공연 지출비용 → 93,054천원

○ 하반기 기획공연비 지출 → 1. 7. 8. 9. 10. 11. 12. 13. 16. 19 번

- 지출예정 비용 → 106,946천원 = 합계 200,000천원
- 하반기 지원금 및 기획전시 등 → 61,942천원
- 1 ~ 19번 총 비용 → 168,538천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당진은 문화예술프로그램이 다양화 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지역의 축제가 공공문화공간과의 연결이 미흡하다. 발레와 미술전시는 음악공연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따라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이 급선무이다. 편향된 문화행사는 공공문화공간의 활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출신의 예술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미술전시와 지역의 작가들에 대한 자료를 발굴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공공기관이 담당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원로나 타계한 작가들의 행보를 녹취하여 자료를 일반일도 연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자료보관실 운용과 청년작가의 방출을 예방하고 타 지역의 유능한 작가가 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3) 청양 문화예술회관

- 청양의 인구분포 및 학교·학생 현황<sup>35)</sup>

연 령	남 자	여 자	남 녀
12-14세	1,747	483	2,230
15-19세	529	676	1,205
20-29세	1,291	874	2,165
30-39세	1,571	1,432	3,003
40-49세	2,134	2,123	4,257
50-59세	2,129	2,243	4,372
60-69세	6,117	8,408	14,525
70세이상	2,284	3,468	5,752
합 계	14,665	16,113	30,778

35) 통계청 자료참조, 현재2007년 자료, <http://www.nso.go.kr>

- 청양군 초·중·고등학교 및 학생 현황(2004년)<sup>36)</sup>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국립		-	
	공립	16	5	3
	사립		2	
	계	16	7	3
학생 수	남 자	국립	-	
		공립	165	
		사립	8	
		계	1,172	126
	여 자	국립	-	
		공립	63	
		사립	107	
		계	170	123
	남녀 합계		2,149	341
				249

- 청양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현황

사업비: 19,623백만원(국비2,500, 도비750, 군비16,373)

대지면적	31,109m <sup>2</sup> (9,409평)
연면적	5,615.65m <sup>2</sup> (1,698평)
주요시설	대공연장735석, 가변석70석, 소공연장213석, 향토사료전시관, 야외공연장, 관리사무실, 다목적실, 기계(전기)실 등

청양문화예술회관의 특징: 부지 9,400여 평의 대지에 735석의 대공연장과 213석의 소 공연장, 2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등 건물 2개동에 다목적실과 다용도의 연습실 등의 주요 시설과 100여 평의 향토 사료 전시관을 비롯한 초현대식 문화예술공간.

36)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2004년도 자료 참고, <http://www.cne.go.kr/ctnt/ptal>



- 청양 문화예술회관 2006-2007프로그램

월	공연제목	장르	공연기간
10	개관 기념 공연		2006.10.25
	군민 노래자랑		2006.10.26
	마당극: 청아 청아 내딸 청아		2006.10.27
	위대한 음악가 시리즈		2006.10.28
	오케스트라 공연: 군포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2006.10.29
	창작 인형극		2006.10.30
	뮤지컬: 캣츠		2006.10.31
2	2007년 새봄맞이 신춘음악회 개최	음악	2007.2.27
3	필금금공연	공연	2007.3.23
4	충청남도 연극제	공연	2007.4.8 ~ 2007.4.10
5	대전팝소오케스트라	음악	2007.5.17
	부여군충남국악단 제 23회 정기공연	음악	2007.5.18
	해설과 함께하는 아산시교향악단의 청양순회연주회	음악	2007.5.26
	‘옥수동에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연극	2007.5.27
6	현대무용극 화성으로Ⅱ	무용	2007.6.15
10	한국식 뮤지컬 . 마당극 ‘어사또 출두요’	뮤지컬	2007.10.17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양 문화예술회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공간 시설 우선, 내용 경시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의 인력파견이라던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또는 지역 내 대학의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그래머와 관리요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건물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청양의 문화공간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문화예술회관의 프로그램은 열악하다. 청양의 경우는 천안과 당진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첫째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전문인과 이 프로그램을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문화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건물은 있고

행사가 없다면 그야말로 죽은 공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전문가들은 국내외 문화행사를 비교분석하고 지역의 특성을 문화로 담아내는 안목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실행부를 동시에 통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외부의 용역을 가져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다.

#### - 청양의 문화예술공간 활용에 관한 종합

충청남도내(천안, 당진, 청양)에 소재한 문화예술공간의 외관상 중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된다. 첫째, 천안과 당진 그리고 청양의 문화예술공간에서 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가 부재하여 건물의 활용에 있어서 매우 미비하다. 또한 고도의 문화예술적 식견을 요하는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계획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처해 있다. 둘째, 공연 프로그램의 장기적 안목이 전무하다.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끌어올리고 그들에게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지역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지역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참여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프랑스나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외부에서 초청공연에 정열을 쏟기 보다는 지역의 연극인을 초대하여 공연하게 하고 지역의 음악인을 초대하여 콘서트를 열고 지역 학생들의 밴드를 초청하여 문화적 열정에 자리를 마련해 준다.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지역 예술인의 무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지역의 관객들에게도 더 큰 의미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공간도 많은 돈을 들여 외부의 대공연 대 음악회만을 불러들이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하드웨어에 투자한 사업비에 비해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사업비가 매우 열악하다. 따라서 예산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수기에도 꾸준히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공간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가에게 활동할 수 있는 제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공간을 설립하고 나서 공간의 유지, 관리, 보수에 필요한 경비는 인식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개발, 기획, 자료수집, 정리를 비롯해 소모품성 예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빠른 대책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 4. 각 지역의 주요 문화 축제와 공간 활용

본 항목에서는 각 지역의 주요 축제를 살펴봄으로서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축제는 실내 공간 보다는 실외 공간을 이용한 경우가 더 많이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 특정 지역에 실내문화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어느새 수많은 축제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사과 아가씨 선발대회와 제주 감귤 아가씨 선발대회 그리고 춘향이 선발대회 등 미녀 선발대회의 범주를 벗어나 각 자치단체마다 몇 개 또는 수십 개씩 축제가 생겨났다. 물론 각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고 자치단체를 브랜드화 하여 산업으로까지 연결하는 바람직한 면도 없지 않으나, 자치단체 또는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행정은 합리적인 계획이 없이 무분별한 축제를 남발하고 그로 인한 재정적 낭비는 또 다른 국민의 혈세의 낭비로 이어진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지역의 특색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 특색이 고려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 성공한 모델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똑같은 축제를 되풀이 하는 것은 그 성패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저 축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 둘째로는 자치단체 주도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예술인과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어야 한다. 셋째 우선 시작하고 보자는 한탕주의식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넷째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체계적이고 건실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산재한 축제를 정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획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이다.

### 1) 천안

천안은 충남의 주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로부터 한양에서 지방을 내려가려면 천안 삼거리의 반드시 거치는 곳 이었던 만큼 21세기 지방자치의 시대에 가장 변영할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충남에서 인구분포나 도시의 규모로 볼 때 그 중요성은 한 층 더 커질 것이다.

천안의 주요 축제는 다음과 같다.

• 천안홍타령축제<sup>37)</sup>



우리 민족을 한이 서린 한 많은 민족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 민족만큼 흥을 좋아하는 민족도 드물 것이다. 천안 홍타령 축제는 고전적인 우리의 춤사위는 물론 현대의 춤까지 모든 춤을 아우르는 춤의 한마당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제는 천안 지역의 고유정서가 녹아진 "홍타령 춤 · 노래 · 의상" 을 주테마로 하여 "신명 · 감동 · 열정" 이란 내용을 담아 흥겨움으로 표출하는 열린 축제로서 춤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축제이다. 홍타령 축제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신나는 춤을 주제로 선택하여 기획한 것이어서 시민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라 할 수 있다. 이 축제는 팀별 경쟁을 통하여 시상을 하는 경연대회를 포함하고 있다.

이 행사의 공연 장소로는 천안시의 주요 장소를 설정하여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실내와 실외 공간을 잘 활용하고 있다. 삼거리 공원과 아라리오 광장 그리고 문화동 청사에서 음악회, 춤경연, 민속경기, 장기자랑 등 각종의 기량을 펼치고 평가하는 춤의 축제이다. 홍타령축제의 거리퍼레이드는 기획력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외국에서도 주민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는 거리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거리 퍼레이드 이다.

첫째, 거리 퍼레이드는 그 기획 과정과 준비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서 주민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 프랑스의 로렌 지방에는 성 니콜라 축제가 있다. 그 축제는 크리스마스 날을 즈음하여 로렌 지방의 각 소도시마다 마을단위로 기획 및 진행된다. 그 축제의 준비는 수개월 전부터 이루어지는데, 주민들 개인이나 지역의 각 단체/동호인/예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비용과 인력을 자치단체의 비용으로는 치를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

37) 관련 그림은 시청 홈페이지나 관련 홈페이지 참조

이라는 자부심과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축제의 기획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느냐에 그 성패가 엇갈릴 수 있다.

둘째, 거리 퍼레이드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일반적으로 실내의 축제는, -경연대회를 포함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될 우려가 있다. 참여자들의 친지나 이웃 그리고 친구들만의 잔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의 퍼레이드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쉽게 끌어들이 수 있으며, 그 축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홍보의 효과가 크다. 거리를 활보함으로써 이와 같은 축제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다음해에 축제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인쇄매체를 통한 홍보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안: 홍타령 축제의 아쉬운 점은 참가비를 받는 것인데, 축제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겠으나, 다른 후원이나 기부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학생부의 경우 또는 외국인부의 경우는 참가비를 면해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직하다.

- 독립만세 운동기념 봉화제(아우내봉화제)



독립만세 운동기념 봉화제는 독립만세를 기리는 행사이다. 1919년 2월 28일 유관순 열사 주동으로 아우내 장터에서 있었던 독립만세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단결과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매년 기획되는 행사이다. 봉화제와 횃불시위 그리고 기념식 등이 펼쳐진다. 구미산의 추모각

에서 행해지는 행사로 천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 행사는 축제라기보다는 기념행사처럼 진행되는데 새로운 기획으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여 축제의 한마당으로 만들 수 있다. 행사가 구미산의 추모각에서 이루어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 성환 배 축제(신고배축제)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방편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는 축제를 진행한다. 성환배 축제도 그 방편으로 성환 지역의 특산물인 배를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배 수확이 이루어지는 10월에 기획되었다. 그리고 시내중심의 편중된 문화행사를 농촌지역에서 개최하여 지방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주요 행사로는 배품평회를 비롯하여 가요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배아가씨 선발대회가 있다.

- 입장 거봉 포도 축제



입장 거봉 포도 축제도 성환배 축제와 같이 지역의 특산물인 거봉포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여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 안정적 소득 작목으로 만드는 방법적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이 배 축제나 포도 축제는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목표를 두고 이루어지는데 여차하면 그 지역의 축제로만 남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른 축제들과는 달리 특산물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는 축제이므로 지엽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면 그 목표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축제를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산물을 매개체로 축제의 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아가씨 선발대회와 같이 전통적인 형식의 단조로운 틀에서 탈피하여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을 더 끌어들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 구매자인 부모들의 손을 끌고 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 2) 당진

- 기지시 줄다리기 대제<sup>38)</sup>



줄다리기는 우리 민속 고유의 전통 문화이다. 당진의 기지시리에서는 줄다리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그 행사는 전통적으로 전해내려 오는데 무려 45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줄다리를 통해 민속 문화를 전승시키고 지역사람들의 단합과 그해의 증산의욕까지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축제라 함은 대규모의 전국적인 규모의 축제를 위해 기획하고 목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더 많이 사람들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행사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목표에 맞는 규모의 축제가 가장

바람직하다. 기지시 줄다리기의 경우 마을의 축제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훌륭한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축제는 결국 그 규모는 커다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작은 마을의 축제가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어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를 잡아갈 수도 있다. 기지시리의 줄다리기 축제가 바로 이 경우이다. 이 행사는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각종 민속놀이와 체육행사가 기지시리 곳곳에서 열려 당진 군민은 물론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되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완성된 줄의 길이는 200여미터, 직경 1미터가 되는 이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줄제작 체험행사가 진행되어 마을 주민들에게는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축제에 참여함은 물론 전통놀이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 상록문화제

상록문화제는 심훈 선생의 대표작인 ‘상록수’ 정신을 이어받아 향토문화를 발전시키려는 뜻

38) 축제의 그림과 축제의 의의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당진 시청, 문화관광 홈페이지) 참조





에서 시작되었다.

지역의 대표 작가나 예술인 그리고 그 작품의 정신을 기리는 문화 축제는 지역의 애향심은 물론 이거니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되는 교육과 연계된 축제로 승화될 수 있다. 상록문화제는 추모행사, 심훈 문학상 수상, 글짓기 대회, 어울마당 등으로 이루어지며, 1996년부터 심훈 문학상

이 재정되어 중편소설을 공모하여 수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축제는 지역의 초·중등학교에서도 적극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대되는 축제이다. 행사 지역은 당진이지만,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문학작품 공모의 폭을 넓히고 타 지역의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더 내실 있는 문화 축제로 만들 기반을 다지고 있다.

#### •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



당진군 면천면의 진달래 민속축제는 봄이면 만발하는 진달래꽃 축제이다. 진달래는 청순하고 깨끗한 이미지와 우리 민족정서로 대변되는 이미지와 생태특성상 무궁화 지역에 자생하는 관목으로 지역의 깨끗한 이미지를 대변한다. 진달래는 한때 무궁화가 북녘에

서는 얼어 죽으므로 차라리 전국 어느 곳에서도 잘 사는 진달래로 국화를 삼지는 말까지 나올



만큼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려 함께 살아온 꽃이다. 이런 진달래와 관련된 민속놀이의 대표 격인 화전(花煎)놀이는 가장 한국적이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즐겼던 오랜 전통의 민속놀이이다. 봄에 진달래꽃이 필 무렵인 음력 삼월 삼짇날에 전남선녀들은 긴 겨울 동안 갇혀 있던 답답함을 산과 들로 나와 자연과 벗하여 해방감에 젖으며 시와 가무로 흥을 돋우며 화전을 먹으면서 하루해를 즐겼다.

면천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6호인 면천 두견주와 면천은행나무, 안샘, 아미산 등 진달래 민속 문화에 관련된 전설과 각종 진달래 음식문화 및 놀이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정성으로 만들었다는 면천 두견주는 그 비법과 더불어 전설이 생생히 전해오며 중요무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되어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

이처럼 진달래 민속 문화란 진달래에 얽혀 있는 우리 선조들의 삶이며, 이 진달래 민속 문화는 전통과 맥을 같이하고, 선대의 관습, 사고, 기술 등을 계승하고 인수하는 것으로 현재의 삶 속에서 재발견 또는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데 의의를 두고 행해지는 축제이다.

따라서 면천진달래민속축제는 진달래에 얽혀 있는 예술과 문학을 포함한 생활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앙, 놀이, 속담 등과 지역주민들이 먹어왔던 진달래 음식 등 면천지역을 특징 있게 만드는 현저한 정신적, 물질적, 감정적, 지적인 것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부여시켜 지역민이 공감하여 행하는 유형, 무형행사가 될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지역에서도 진달래꽃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면천 진달래 민속축제는 그 선두주자라 할 수 있다.

면천은 백제시대 군사적인 요충지인 몽산성이 있어 백제 부흥운동 당시 백제유민의 피성(避城)역할을 했고, KBS 대하드라마 왕건에 나왔던 고려 개국 공신 복지겸과 박술회가 살았던 풍수지리적인 요지이며 조선시대 성의 특징이 잘 보이는 면천읍성, 동학농민전쟁 당시 동학군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유일하게 승리한 승전목 등 각종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특히 정성으로 만든 중요무형문화재 제86호인 면천 두견주가 그 비법과 함께 전해오고, 그 전설 속에 꽃을 땀던 아미산과 술을 빚었던 안샘, 면천은행나무, 그리고 복지겸의 가묘 등 진달래 문화유적과 더불어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이 전해오는 곳이다.

면천 축제의 핵은 진달래에 얽혀진 진달래민속놀이·설화·속담 등과 진달래 시와 소설 등 진달래문학, 그리고 진달래로 만든 진달래술과 진달래식혜, 화전, 떡 등 진달래 음식을 먹고 즐겨보는 자리이다.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민족의 한과 사랑, 그리고 이별과 슬픔, 희망과 소망 등을 찾고자 하는 축제이다. 진달래면천민속축제 추진위원회를 사단 법인화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축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행사에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지역의 기업이나 기타 단체의 후원으로 점점 더 내실 있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 안섬 풍어제



안섬 풍어제는 송악면 고대리마을에서 행해져오고 있다. 원래 송악면 내도리, 안섬은 당진군의 최북서쪽에 있는 섬이었으나 간척사업으로 연육된 곳이다. 그 섬사람들은 해마다 연평도로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출어 전에 어민들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풍어당 굿놀이를 매년 음력 1월 첫 진일날에 하며 전

통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첫날의 행사는 대동소지, 본당소지, 어망소지, 인집소지를 하는 것으로 마감을 한다.(※ 소지(燒紙): 자기의 사주·소원을 적은 종이를 태우는 것) 둘째 날은 10시에 뱃고사를 지낸 후 장승제, 용왕제, 거리굿, 지신밟기를 하고 떠배에 한해의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소지를 끼워 바다에 흘려보내는 행사로 이틀간의 풍어제가 마감된다. 안섬마을은 아름다운 해안선과 낚지, 주꾸미, 우럭, 꽃게, 간재미등 먹거리가 풍부하여 풍어제를 찾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배가 시킨다.

### 3) 청양

- 칠갑문화제

청양의 대표적인 축제로 칠갑문화제가 있다. 조상들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한 칠갑문화제 행사를 1984년도에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칠갑문화제의 특징으로는 굿시연, 장승제, 동화제, 탑돌이, 구기자 특산물전등 청양지방의 독특한 문화행사가 개최된다는 점이었다. 특히 타지방에서 거의 사라진 장승제는 대치면 대치리, 농소리, 이화리등 칠갑산 기슭에서



전통성 있게 맥을 이어오고 있다. 청양굿 또한 문화성이 높아 충청남도 굿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칠갑문화제는 2년에 한번 개최되는 축제이다. 청양의 군민이 대거 참여하는 이 문화제는 다양한 행사가 행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딱히 대표적인 행사가 없다는 데 그 단점이 있다. 칠갑문화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대

표 행사를 중심으로 훌륭한 지역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재편성이 필요하다.

- 청양고추구기자축제



우리나라의 매운 고추는 청양 고추이다. 그만큼 청양 고추는 매운 고추의 대명사가 되었다.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는 청양의 대표 농산물인 청양 고추와 구기자의 홍보를 위한 축제이다. 이 축제에는 지역경제 수입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인 고추음식 전시 및 시식회, 특산물 먹거리코너 운영, 청양고추 및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운영, 고추음식전

시 및 시식회, 특산물 먹거리코너 등을 통해 고추하면 청양고추를 떠오르게 한다. 지역 농특산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행사로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청양고추의 고유브랜드 조기정착 및 소비자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도시민들이 전원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옛 추억을 되살리고 청양군의 다양한 관광명소를 알수 있는 『농촌 현장 체험 관광투어리즘』에는 고추농가 방문 현장 체험, 장곡사와 장승공원의 역사 문화 체험의 장이 마련되어 참가자의 높은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다.

-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칠갑산 입구에는 각양각색의 장승이 버티고 서 있다. 국내의 장승은 물론이거니와 국내의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문 외국의 장승도 다수 있다. 매년 4월 중순에 칠갑산장승공원에서 개



막식을 비롯하여 칠갑산장승대제, 대형장승 및 솟대세우기, 장승깎기시연, 장승제시연, 창작장승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는 민족정신의 산실로 자리매김 되어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찾는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축제이다.

칠갑산 장승 문화 축제는 한국 최고의 장승문화 보존지역으로 일컬어지는 칠갑산에서 축제를 개최하여 한국 장승의 본거지로써 자리매김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민속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백제권 개발 등과 연계한 칠갑산관광자원 개발로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국제적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 상명대학교 예술학부 오윤균 교수

공동연구 · 상명대학교 예술학부 김승호 교수

상명대학교 예술학부 서석돌 교수

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 권영현 연구위원

기획연구 2007-06 · 충청남도내 문화 · 예술 공간의 창의적 · 효과적 활용방안

글쓴이 · 오윤균, 김승호, 서석돌, 권영현 / 발행자 · 김용웅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07년 10월 31일 / 발행 · 2007년 10월 31일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동 112-1 동아일보빌딩 5-6층 (301-745)

전화 · 042-820-1131(산업디자인팀) / 팩스 · 042-820-1129

ISBN · 978-89-6124-033-8 93300

<http://www.cdi.re.kr>

©2007.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